

▶▶  
**대졸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 전망**

---

강민정

박세정

KEIS

# 대졸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 전망

강 민 정

박 세 정



# 발간사

---

2020년 “OECD Education at a Glance”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34세의 고등교육기관 이수율은 70%로 OECD 평균(45%)보다 높으나 25~34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85%)보다 낮다.

청년층의 학력 상승은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인적 자본 상승을 가져와 개인의 인적자원 가치를 높인다. 그러나 높은 진학을 대비 낮은 취업률은 투자 대비 낮은 성과로 낮은 투자 수익률을 가져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대졸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 선행 연구들은 노동시장 신규진입 상황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의 이행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신규진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대졸자들의 경제활동 상태변화를 전문대와 일반대로 구분하여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졸자들이 진입한 산업과 직업을 학교 유형별, 성별, 전공별로 구분하여 신규진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정성적 분석을 보충하고자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노동시장 진입 준비과정 및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여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진출한 산업·직업 대분류 매트릭스를 구축하여 시나리오별 전망을 시행하였다. 시나리오 I 은 『2019-2029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대졸자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추세를 활용하여 취업률 전망을 하였고, 시나리오II~III은 목표 취업률을 설정하였다.

시나리오II에서 전문대는 전망 상반기 목표 취업률을 73% 하반기 목표 취업률을 75%, 일반대는 상반기에는 70%, 하반기에는 72.5%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III에서 전문대는 전망 상반기 목표 취업률을 75% 하반기 목표 취업률은 80%, 일반대는 72.5%, 하반기에는 75%로 설정하여 전망을 시행하였다.

조사 데이터를 다루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연구진과 보고서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원내외 연구 자문단께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로서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나영돈

## [ 차례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구성 .....	4
제2장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분석 .....	5
제1절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	5
제2절 대졸자 취업 분포 추이 .....	14
제3장 대졸자의 취업 현황: 2017년 졸업자를 중심으로 .....	21
제1절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상 취업 현황 .....	21
제2절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상 산업별 전공 분포 현황 .....	28
제3절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상 직업 분포 현황 .....	46
제4절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상 직업별 전공 분포 현황 .....	49
제5절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상 산업·직업 분포 현황 .....	59
제4장 대졸자 취업 현황과 정책 지원 방향 .....	77
제1절 Focus Group Interview 목적과 대상 .....	77
제2절 전문대 취업 현황 .....	80
제3절 일반대 취업 현황 .....	87
제4절 취업지원센터 담당자 면담 결과 .....	96
제5절 요약 및 함의 .....	104

제5장 대졸자 신규 진입 전망 .....	108
제1절 대졸자 신규 공급 현황 및 전망 .....	108
제2절 대졸자 취업자 전망 .....	113
제6장 결론 .....	125
참고 문헌 .....	178

## [ 표 차례 ]

〈표 1-1〉 2007~2017년 졸업자 취업 평균연령.....	11
〈표 3-1〉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전문대 졸업자의 전공계열 분포..	25
〈표 3-2〉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일반대 졸업자의 전공계열 분포..	26
〈표 3-3〉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교육대 졸업자의 전공계열 분포..	27
〈표 4-1〉 FGI 참여자 그룹 구성 및 인원.....	78
〈표 4-2〉 FGI 참여자 인터뷰 주요 내용.....	79
〈표 4-3〉 학교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류.....	97
〈표 5-1〉 2019~2029년 대학 유형 졸업자 전망.....	111
〈표 5-2〉 2000~2020년 학령인구 변화 추이.....	112
〈표 5-3〉 2014~2018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추이.....	113
〈표 5-4〉 2019~2029년 전문대 졸업 취업자 전망.....	115
〈표 5-5〉 2019~2029년 일반대 졸업 취업자 전망.....	115
〈표 5-6〉 2019~2029년 전문대 졸업 취업자의 산업 비중 전망.....	118
〈표 5-7〉 2019~2029년 전문대 졸업 취업자의 직업 비중 전망.....	118
〈표 5-8〉 2019~2029년 전문대 졸업 보건 사회 서비스업의 직업 비중 전망..	120
〈표 5-9〉 2019~2029년 일반대 졸업 취업자의 산업 비중 전망.....	122
〈표 5-10〉 2019~2029년 일반대 졸업 취업자의 직업 비중 전망.....	122
〈표 5-11〉 2019~2029년 일반대 졸업 교육 서비스업의 직업 비중 전망.....	124



## [ 그림 차례 ]

[그림 2-1]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6
[그림 2-2] 대학 유형별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 추이.....	7
[그림 2-3] 2008~2018년 경제활동 변화.....	8
[그림 2-4] 2008~2018년 성별 취업자 분포 현황.....	9
[그림 2-5] 2008~2018년 전공별 취업자 분포 현황.....	10
[그림 2-6] 2008~2018년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을 통한 한계효과.....	12
[그림 2-7] 2008~2018년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을 통한 한계효과_전문대 .....	13
[그림 2-8] 2008~2018년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을 통한 한계효과_일반대 .....	13
[그림 2-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산업 분포 .....	17
[그림 3-1] 산업별 취업 현황.....	22
[그림 3-2] 전문대 졸업자의 산업 취업 현황.....	24
[그림 3-3] 일반대 졸업자의 산업 취업 현황.....	26
[그림 3-4] 교육대 졸업자의 산업 취업 현황.....	27
[그림 3-5] 2018년 GOMS 농업 취업자 전공 현황.....	28
[그림 3-6] 2018년 GOMS 제조업 취업자 전공 현황.....	29
[그림 3-7] 2018년 GOMS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취업자 전공 현황.....	30
[그림 3-8] 2018년 GOMS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취업자 전공 현황.....	31

[그림 3-9] 2018년 GOMS 건설업 취업자 전공 현황.....	32
[그림 3-10] 2018년 GOMS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전공 현황.....	33
[그림 3-11] 2018년 GOMS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전공 현황.....	34
[그림 3-12] 2018년 GOMS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전공 현황.....	35
[그림 3-13] 2018년 GOMS 정보통신업 취업자 전공 현황.....	36
[그림 3-14] 2018년 GOMS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전공 현황.....	37
[그림 3-15] 2018년 GOMS 부동산업 취업자 전공 현황.....	38
[그림 3-16] 2018년 GOMS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전공 현황 .....	39
[그림 3-17] 2018년 GOMS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 전공 현황.....	40
[그림 3-18] 2018년 GOMS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취업자 전공 현황.....	41
[그림 3-19] 2018년 GOMS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전공 현황.....	42
[그림 3-20] 2018년 GOMS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전공 현황 .....	43
[그림 3-21] 2018년 GOMS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전공 현황.....	44
[그림 3-22] 2018년 GOM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취업자 전공 현황.....	45
[그림 3-23]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직업 분포 현황.....	46
[그림 3-24] 전문대 졸업자의 직업 취업 현황.....	47
[그림 3-25] 일반대 졸업자의 직업 취업 현황.....	48
[그림 3-26] 2018년 GOMS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취업자 전공 현황... 49	
[그림 3-27] 2018년 GOMS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취업자 전공 현황..... 50	
[그림 3-28] 2018년 GOMS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직 취업자 전공 현황.....	51
[그림 3-29] 2018년 GOMS 보건·의료직 취업자 전공 현황.....	52
[그림 3-30] 2018년 GOMS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취업자 전공 현황 .....	53

[그림 3-31] 2018년 GOMS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취업자 전공 현황.....	54
[그림 3-32] 2018년 GOMS 영업·판매·운전·운송직 취업자 전공 현황...	55
[그림 3-33] 2018년 GOMS 건설·채굴직 취업자 전공 현황.....	56
[그림 3-34] 2018년 GOMS 설치·정비·생산직 취업자 전공 현황.....	57
[그림 3-35] 2018년 GOMS 농림 어업직 취업자 전공 현황.....	58
[그림 3-36] 2018년 GOMS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직업 분포 현황.....	59
[그림 3-37] 2018년 GOMS 제조업의 직업 분포 현황.....	60
[그림 3-38] 2018년 GOMS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의 직업 분포 현황.....	61
[그림 3-39] 2018년 GOMS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직업 분포 현황.....	62
[그림 3-40] 2018년 GOMS 건설업의 직업 분포 현황.....	63
[그림 3-41] 2018년 GOMS 도매 및 소매업의 직업 분포 현황.....	64
[그림 3-42] 2018년 GOMS 운수 및 창고업의 직업 분포 현황.....	65
[그림 3-43] 2018년 GOMS 숙박 및 음식점업의 직업 분포 현황.....	66
[그림 3-44] 2018년 GOMS 정보통신업의 직업 분포 현황.....	67
[그림 3-45] 2018년 GOMS 금융 및 보험업의 직업 분포 현황.....	68
[그림 3-46] 2018년 GOMS 부동산업의 직업 분포 현황.....	69
[그림 3-47] 2018년 GOMS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직업 분포 현황 .....	70
[그림 3-48] 2018년 GOMS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직업 분포 현황.....	71
[그림 3-49] 2018년 GOMS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의 직업 분포 현황.....	72
[그림 3-50] 2018년 GOMS 교육 서비스업의 직업 분포 현황.....	73
[그림 3-51] 2018년 GOMS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직업 분포 현황 .....	74
[그림 3-52] 2018년 GOMS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직업 분포 현황.....	75

[그림 3-53] 2018년 GOM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직업 분포 현황.....	76
[그림 5-1] 2019~2029년 대학 졸업자 전망.....	109
[그림 5-2] 2019~2029년 전문대 졸업자 전망.....	110
[그림 5-3] 2019~2029년 일반대 졸업자 전망.....	111
[그림 5-4] 2019~2029년 전문대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전망(시나리오 I) .....	116
[그림 5-5] 2019~2029년 일반대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전망(시나리오 I) .....	116
[그림 5-6] 2019~2029년 전문대 졸업 취업자의 산업 비중 전망.....	117
[그림 5-7] 2019~2029년 전문대 졸업 취업자의 직업 비중 전망.....	119
[그림 5-8] 2019~2029년 일반대 졸업 취업자의 산업 비중 전망.....	121
[그림 5-9] 2019~2029년 일반대 졸업 취업자의 직업 비중 전망.....	123



## 요약

---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70%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45%보다 25%p 높은 수치이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고용률은 2018년 76%로 OECD의 평균 고용률인 85%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청년층의 학력 상승은 국가적 인적 자본의 상승으로 좋은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도 개인의 인적 자본 상승은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쟁력은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될 때 의미가 있다.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함일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은 투자 대비 낮은 성과이고, 미시적 관점에서도 인적 자본 투자 목적 대비 미취업 또는 하향 취업은 투자 수익률이 낮아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대졸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대졸 청년의 고용 문제를 풀려면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행 과정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신규 진입 상황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나타나는 결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노동시장 신규 진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과정을 통해 대졸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어떤 산업으로, 어떤 직업으로 진출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졸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10년간 대졸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을 전망하며, 이를 통해 청년 대졸자의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 ii 요약

2장에서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시계열로 구축해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였다. 2007년 청년 대졸자의 취업자 비중은 77.7% 수준이었으나 2018년은 73.6%이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2007년 15.5%에서 2018년 18.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항 로짓 모형을 통해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의 취업이 더 쉬우며 전문대가 일반대보다 취업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의약계열과 비교하여 타전공계열에 취업할 한계효과를 계산해 본 결과 자연계열이 취업할 확률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07년 졸업자와 비교했을 때 2017년 자연계열 졸업자의 상황은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인문계열은 의약계열에 비해 2018년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을 확인했다.

3장에서는 최근 조사된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통해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취업 현황과 비교한 뒤 청년층 취업 현황의 특징을 찾아냈다. 그 결과 청년 대졸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취업한 비중이 높았다. 동 산업이 청년 대졸자가 선호하는 산업이거나 신규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일 것이다.

직업을 선정하는 데 성별의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청년 대졸자 신규 진입 직업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의 경우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일반직의 경우 경영·사무·금융·보험직임을 확인했다.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가장 많이 신규 진입한 전공은 사회계열로 나타났고,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의 경우는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전공자가 많았다.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의 경우는 교육계열 전공자가 많았고 다음이 사회계열이었다. 보건·의료직은 의약계열 출신이 83.3%인 것으로 나타나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가장 높았다.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은 예체능계열 출신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계열로 나타났다.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에 신규 진입한 청년 대졸자는 사회계열 출신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예체능계열이다. 영업·판매 운전·운송직을 살펴본 결과 사회계열 출신이 가장 많았다. 건설·채굴직과 설비·정비·생산직은 공학계열 출신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직은 자연계열 출신이 많았다.

4장에서는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에 관하여 FGI를 수행해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참여자 집단은 전문대와 일반대로 구분하여 대학 유형별 취업률 상위 3개 산업 분야를 고려해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6개 그룹을 구성했고, 대학교 내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1그룹을 포함하였다.

취업 준비과정 중 애로사항으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금전적인 측면이 두드러졌다. 그와 동시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던 의견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전공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부재하거나 내용이 질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전공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이 요구되거나 프로그램에 따라 수준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졸업 전 혹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는 학과 출신 신규 취업자의 경우, 실제 직무를 체험하는 실습 활동, 인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작성에서도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없어 어려웠다는 응답으로 미루어 볼 때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되어 취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취업률이 대학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대학교 내 취업과 관련한 종사자의 비정규직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으로 유도되면서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수치적인 취업률보다는 양질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관련 종사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분석된다.

5장은 대졸자 신규 진입 현황을 전망하였다. 대졸자의 신규 진입을 전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년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자료를 활용한 2019~2029년의 대졸자 수 전망이다.

전망 기간의 대학 졸업자 수는 연평균 3.4%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망 상반기보다 전망 하반기로 갈수록 졸업자 감소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졸업자 수에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의 취업률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취업률을 전망하는 기간 모든 변인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시나리오별로 취업률을 전망하였다.

시나리오 I 은 2019~2029년 중장기 인력수급 내용 중 대졸자 경제활동참여율 전망 추세를 취업률에 적용해 전망하였고 시나리오 II~III는 목표 취업률을 전망 기간 중 상반기, 하반기로 설정하여 전망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전망된 취업률을 졸업자 수에 적용하여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대졸자 전망 수치를 산출하였고 산업·직업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산업과 직업 비중 전망을 수행하였다.

전망 결과는 대학 유형을 전문대와 일반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전문대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9년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쉬울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고 직업은 보건·의료직으로 전망되었다.

일반대는 도매 및 소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019년보다 2029년에 상대적으로 신규 진입이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 직업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과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이 2029년에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2029년 대졸자 신규 진입 전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력공급 제약이 전망 기간 하반기에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교육의 질 개선이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이 단순히 양적인 축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8~2028년 결과에 따르면 인력수요 차원에서 중요한 특징은 기술 진보의 영향으로 산업 및 직업의 구조개편이 가시화할 것이라 서술했다. 이러한 산업 및 직업 구조개편에 적응하기 위해 대학은 전

문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전문 인력 양상 정책 추진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에서 2017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8년 조사가 최근 조사였던 만큼 최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FGI를 실행했지만 물리적 한계로 특정 산업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2020년 초 확산된 코로나19 여파를 전망 모형에 반영하지는 못했다.



# 제1절

---

#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70%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45%보다 25%p 높은 수치이다. 취업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sup>1)</sup>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9년 67.1%로 나타났고, 전문대학 졸업자는 70.9%, 일반대 졸업자는 63.3%, 교육대학 졸업자는 63.8%이다.

그러나 OECD 대졸자의 평균 고용률이 85%로 높은 수치인 데 비해 우리나라 전문대 취업률(70.9%)과 일반대 취업률(63.3%)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알 수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청년층의 학력 상승은 국가적 인적 자본의 상승으로 좋은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도 개인의 인적 자본 상승은 물론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쟁력은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

---

1) 고등교육기관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대학원을 포함.

를 얻을 때 의미가 있다.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함일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대학 졸업 후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은 투자 대비 낮은 성과이고 미시적 관점에서도 인적 자본의 투자 목적 대비 미취업 혹은 하향 취업은 투자 수익률이 낮아 손실을 준다.

Ammermueller et al.(2009)는 취업난이 심각할 때 학력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의 감소를 보였고 이는 곧 교육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가치가 낮아지고 있으며, 청년층의 학력 수준별 평균 임금을 조사해 본 결과, 일반대 졸업자의 하위 20%와 전문대 졸업자의 50% 이상이 고졸자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주호 외, 2014).

즉, 대졸 청년층의 낮은 취업률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대졸 청년의 고용 문제를 풀려면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과 이행 과정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신규 진입 상황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나타나는 결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신호이론에 따르면 기업이 개인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데 인적숙성 정보를 활용하는 것처럼 개인의 이전 고용 상태도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즉, 기업은 대졸자의 노동시장에서 첫 직장의 고용 상태를 신호로 받아들여 개인의 생산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에 노동시장 신규 진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과정을 통해 대졸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어떤 산업으로, 어떤 직업으로 진출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졸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10년간 대졸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현황을 전망하며, 이를 통해 청년 대졸자의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대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모집단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 통계이다. 전문대,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전년도 졸업자 1만 8천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1회 조사를 하는 횡단면

조사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조사 규모가 크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공 계열별로 대졸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현황을 보기에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조사의 장점을 이용하여 대학 유형별, 전공별 분석도 수행할 것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2007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8년 9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최근 완료된 조사는 2017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에 9월 1일 기준으로 수행한 조사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대학 졸업 후 신규로 진입한 대졸자만을 선별할 것이다. 즉, 조사 문항 중 현 직장이 첫 직장이라고 응답한 케이스만 선별하여 분석을 시작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구성

대졸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 전망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장은 2절로 구성되는데, 1절에서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2007년 졸업생부터 2017년 졸업생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졸자의 경제활동 변화 요인을 관찰한다. 인적속성변수만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취업 결정 요인 로짓분석을 추가로 수행한다. 이 로짓 분석을 통해 전공별 취업 효과를 2007년 졸업자와 2017년 졸업자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졸업자의 산업과 직업 분포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최근 조사된 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하여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취업자 전공 현황을 대학 유형별로 확인하고 직업은 한국 고용분류기준에 맞춰 대분류 차원에서 대학 유형별 분포 현황을 확인한다. 각 산업 내 직업 분포 현황도 확인할 것이다.

4장에서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대졸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노동시장 진입 준비과정 및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여 데이터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정량적, 정성적으로 대졸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이슈를 분석하여 정책적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장에서는 2019년부터 2029년까지 대졸자 신규 진입 전망을 수행하고자 한다. 대졸자 공급 전망은 2019~2029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상 취업률을 이용하여 대졸자 수요를 전망할 것이다. 대졸자 수요를 대학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업과 직업 대분류 수준에서 비중 전망을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 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구성된다.

## 제2장

#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분석

### 제1절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본 장에서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졸업 시점에서 18개월이 지난 후 경제활동, 취업 준비 현황, 학교생활 등을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한다. 예를 들면 2017년 졸업자는 2018년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졸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현황을 확인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표본 중 조사 기준일에 첫 직장 취업자만으로 구성하여 신규 진입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앞으로 보고서에 언급될 취업자는 설문 문항 중 현 직장이 첫 직장이라고 응답한 대졸자만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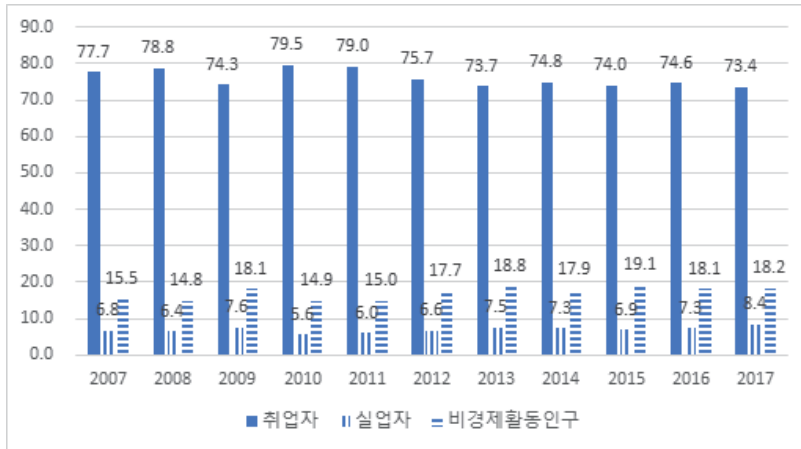
2007년 졸업자 중 77.7%가 2008년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졸업자 중 73.4%가 2018년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나 취업자 비중은 10년 동안 4.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10년 동안 6.8%에서 8.4%로 1.6%p



상승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5.5%에서 18.2%로 2.7%p 상승하였다.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환경은 10년 동안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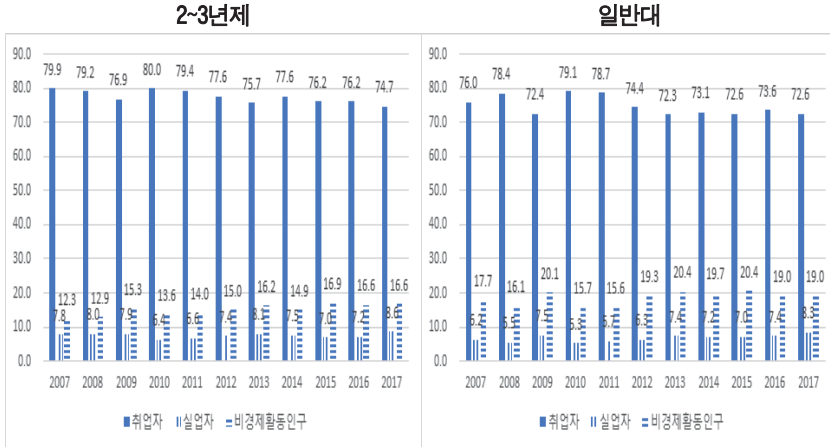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2007~2017년 졸업자의 대학 졸업 후 경제활동 상황을 대학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자 비중은 2007년 졸업자의 경우 79.9%에서 2017년 졸업자는 74.7%로 5.2%p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7.8%에서 8.6%로 0.8%p 상승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2.3%에서 16.6%로 4.3%p 상승하였다.

[그림 2-2] 대학 유형별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 추이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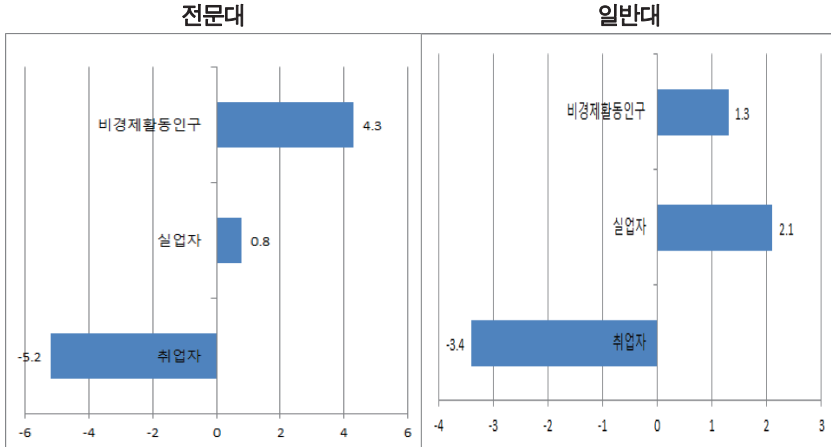
일반대 2007년 졸업생의 경우 76.0%에서 2017년 72.6%로 3.4%p 하락하였고 실업자는 6.2%에서 8.3%로 2.1%p 상승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17.7%에서 19.0%로 1.3%p 상승하였다.

2007~2017년 졸업생을 비교했을 때 전문대 취업자 비중은 5.2%p 감소하였고 일반대는 3.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 졸업자의 경제활동 상태가 일반대 졸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전문대 졸업자 중 실업자는 2007년에 비해 비중이 0.8%p 상승하였으나 일반대 졸업자가 동기간 2.1%p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폭은 낮은 편이다. 실업자의 비중 감소로 경제활동 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2007년 졸업자에 비해 4.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 졸업자의 경제활동 상태가 일반대 졸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2008-2018년 경제활동 변화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신규 취업자만으로 대학 유형을 살펴본 결과 전문대 졸업자는 2007년 38.5%에서 2017년 29.4%로 9.1%p 하락하였고 일반대 졸업자 비중은 동기간 9.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8년 일자리가 23,775천 명에서 2018년 26,822천 명으로 같은 기간 취업자는 연평균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 해당하는 연령대인 25~35세 일자리는 2008년 6,733천 명에서 2018년 6,715천 명으로 연평균 -0.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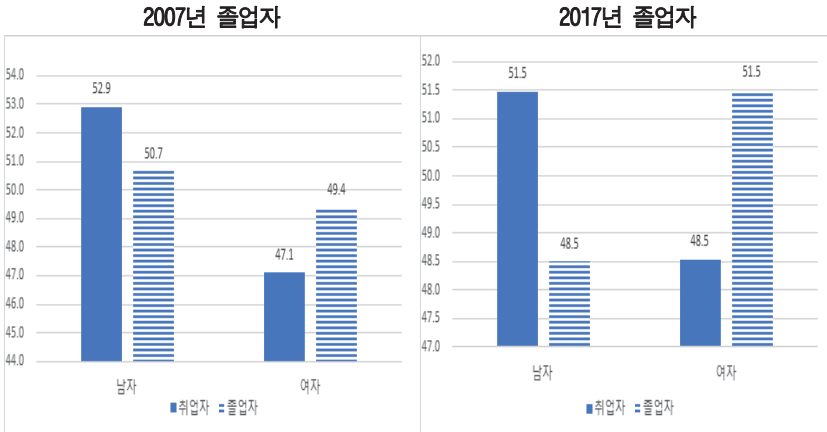
대학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대졸자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졸업 후 취업자를 대학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전문대가 38.5%, 일반대(교육대 포함)는 6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졸업자 중 전문대 출신이 39.9%를 차지하였고, 일반대(교육대 포함)가 60.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대 출신이 일반대(교육대 포함) 출신보다 상대적 취업 비중은 낮지만 원 구성을 생각하면 일반대보다 전문대 출신이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쉬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17년 졸업자 중 전문대 출신의 취업 비중은 29.4%이고 일반대(교육대 포함) 출신 취업 비중은 70.6%이다. 2017년 졸업자 중 전문대 출신의 비중은 31.7%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전문대 졸업자가 일반대(교육대 포함) 졸업자보다 취업이 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의 목적을 생각하면 일반대 졸업자보다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성별에도 분명하게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2007년 졸업자 중 남성 비중은 50.7%, 여성 비중은 49.4%인데 취업자만으로 분석하면 남성은 52.9%, 여성은 47.1%였다. 2017년 졸업자 중 남성은 48.5%, 여성은 51.5%의 분포를 보이는데 취업자만으로 보면 남성은 51.5%, 여성은 48.5%로 나타나 남성 대졸자가 여성 대졸자보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2008-2018년 성별 취업자 분포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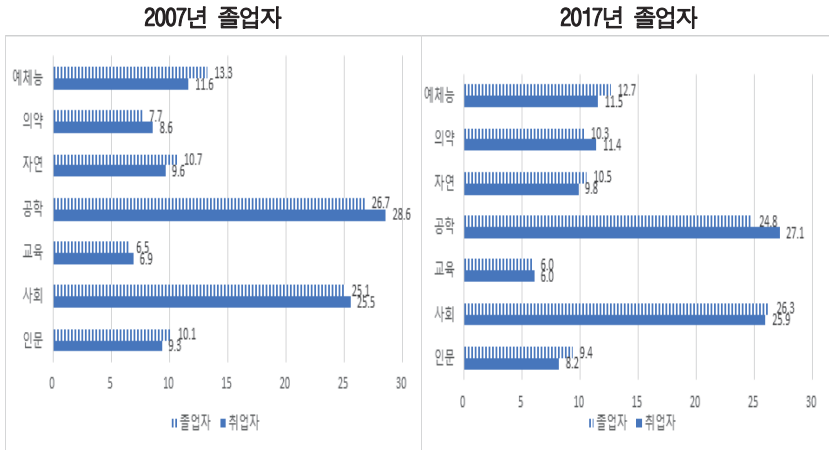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졸업자의 전공별 분포를 고려하여 2007년과 2017년을 살펴보면, 의약계열 출신 졸업자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웠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2007년 졸업자보다 2017년 졸업자가 더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계열의 경우 2007년 졸업자보다 2017년 졸업자의 취업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체능계 졸업자는 사회계열 졸업자와 달리 2007년 졸업자보다 2017년 졸업자가 취업 상황이 더 좋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2008~2018년 전공별 취업자 분포 현황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연령도 분명 노동시장 신규 진입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대졸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범위도 한정적이다. 따라서 기존에 많이 논의되어 온 나이와 노동시장 신규 진입에 관련된 논문과는 다른 결론을 나올 수 있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졸업자 평균연령보다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 평균연령이 높아졌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17년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대졸자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를 확인해 보았다.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정부 주도하에 청년층을 위한 인턴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대졸자 중 임시근로자 비중은 늘어 가는 추세이다. 청년 인턴제도 활성화가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2007~2017년 졸업자 취업 평균연령

(단위: 세, %)

연도	졸업자	취업자	취업자		상용 근로자 비중	임시 근로자 비중
			2~3년제	일반대		
2007	25.6	25.8	24.9	26.3	85.0	10.5
2008	26.2	26.4	25.4	27.0	85.8	10.3
2009	26.1	26.3	25.2	27.0	88.3	7.8
2010	26.0	26.2	24.9	26.9	86.0	9.9
2011	26.2	26.5	25.3	27.0	83.8	12.6
2012	26.1	26.2	24.7	26.9	83.7	11.8
2013	25.6	25.8	24.3	26.5	86.2	9.9
2014	25.6	25.7	24.3	26.5	82.5	13.0
2015	25.6	25.7	24.3	26.5	82.6	12.7
2016	25.7	25.8	24.4	26.5	82.3	13.9
2017	25.7	25.8	24.5	26.4	81.4	13.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지금까지의 분석은 빈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할 때 다른 변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해석에서 유의할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7~2017년 대졸자를 대상으로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sup>2)</sup>을 수행하고자 한다.

2008~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010년, 2011년 졸업자의 경우 여성 더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일반대(교육대 포함) 더미 변수를 통해 전문대 졸업자가 일반대(교육대 포함) 졸업자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대 더미 변수는 2007~2017년 분석 대상 기간 중 2010년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일반대 더미 변수의 한계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평균  $-0.01 \sim -0.07$  크기로 추정되었다. 2014년 이후 일반대 더미 변수의 한계효과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 효과는 감소하

2) <부표>의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모형에 사용된 변수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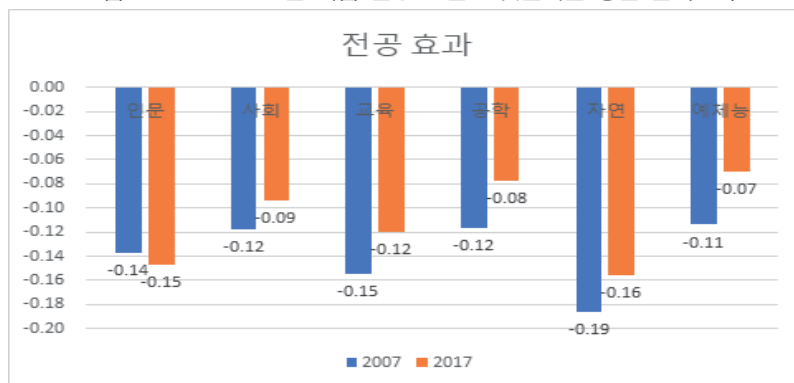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입학 시 전공을 선택할 때 향후 노동시장 진입이 유리한 전공을 고려한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 결정에는 분명히 전공 효과가 존재할 것이다. 졸업 후 취업률이 높은 의약계열을 기준으로 전공계열별 취업 효과를 살펴본다. [그림 2-5]는 2007년과 2017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결정 요인을 분석한 추정치를 통해 한계효과를 계산한 것이다.

의약계열과 비교하면 취업이 가장 힘든 과는 자연계열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졸업자에 비해 2017년 졸업자는 상대적으로 나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타 전공 계열과 달리 인문계열의 경우 의약계열과 비교했을 때 2007년 졸업자보다 2017년 졸업자가 취업이 더 힘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졸업자에 비해 2017년 졸업자는 대부분의 계열에서 취업 상황이 나아졌는데 특히 예체능계열이 상대적으로 좋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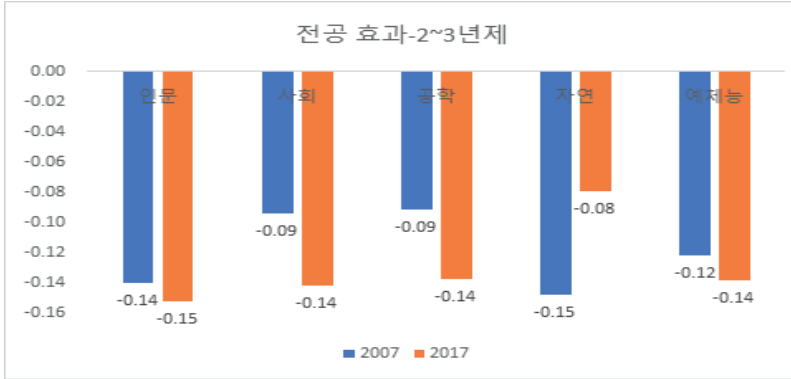
[그림 2-6] 2008-2018년 취업 결정 요인 로짓분석을 통한 한계효과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대학 유형을 구분하여 먼저 전문대 졸업자부터 살펴보면서 교육계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의약계열과 비교했을 때 자연계열을 제외한 타 계열의 취업 상황은 2007년보다 2017년이 더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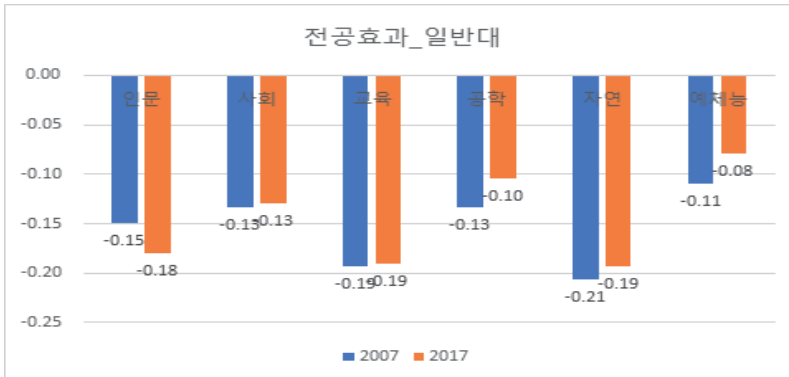
[그림 2-7] 2008~2018년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을 통한 한계효과\_2~3년제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 의약계열을 기준으로 인문계열을 제외한 타 전공계열의 경우 취업 상황이 나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 전공자의 취업 상황이 2007년 졸업자에 비해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8] 2008~2018년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을 통한 한계효과\_일반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대졸자의 가족 환경을 대리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활동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취업 결정 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제2절 대졸자 취업 분포 추이

### 1. 산업

2007-2017년 대졸자의 신규 진입은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집중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sup>3)</sup>할 수 있다.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취업한 대졸자 비중은 2007년 졸업자는 45.3%에서 2008년 46.6%, 2009년 46.8%, 2010년 48.0%, 2011년 47.3%, 2012년 46.5%, 2013년 47.6%, 2014년 47.2%, 2015년 45.8%, 2016년 44.4%, 2017년 43.5%로 여전히 집중되어 있지만, 그 비중은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대졸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산업은 제조업(17.6%)이며, 그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14.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1%), 도매 및 소매업(9.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9%)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통계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08)에 따르면 제조업(16.9%), 도매 및 소매업(15.4%), 숙박 및 음식점업(8.6%), 건설업(7.7%), 교육 서비스업(7.6%)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라는 점을 착안하면 대졸자가 진출하는 산업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8년 대졸자도 제조업(16.4%), 교육 서비스업(15.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3%), 도매 및 소매업(8.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5%)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제조업(16.9%), 도매 및 소매업(15.4%), 숙박 및 음식점업(8.6%), 건설업(7.7%), 교육 서비스업(7.6%)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09년 졸업자도 제조업(16.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3%), 교육 서비스업(14.6%), 도매 및 소매업(8.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5%)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인구조사(2010)에서는 제조업(17.0%), 도매 및 소매업(15.0%), 숙박 및 음식점업(7.9%), 교육 서비스업(7.5%)

---

3) <부표 1> 참조

건설업(7.4%)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0년 졸업자는 제조업(17.5%), 교육 서비스업(1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5%), 도매 및 소매업(9.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인구조사(2011)에서는 제조업(16.9%), 도매 및 소매업(15.0%), 숙박 및 음식점업(7.6%), 건설업(7.2%), 교육 서비스업(6.9%)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1년 졸업자는 제조업(18.0%), 교육 서비스업(1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7%), 도매 및 소매업(9.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인구조사(2012)에서는 제조업(16.7%), 도매 및 소매업(14.9%), 숙박 및 음식점업(7.7%), 건설업(7.2%), 교육 서비스업(7.1%)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졸업자는 제조업(18.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3%), 교육 서비스업(14.1%), 도매 및 소매업(9.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6%)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인구조사(2013)에서는 제조업(16.8%), 도매 및 소매업(14.6%), 숙박 및 음식점업(7.9%), 건설업(7.0%), 교육 서비스업(7.0%)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3년 졸업자는 제조업(1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1%), 교육 서비스업(14.2%), 도매 및 소매업(8.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인구조사(2014)에서는 제조업(17.0%), 도매 및 소매업(14.8%), 숙박 및 음식점업(8.2%), 건설업(7.1%), 교육 서비스업(7.1%)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졸업자는 제조업(18.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9%), 교육 서비스업(14.1%), 도매 및 소매업(8.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인구조사(2015)에서는 제조업(17.4%), 도매 및 소매업(14.6%), 숙박 및 음식점업(8.4%), 건설업(7.1%), 교육 서비스업(7.0%)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졸업자는 제조업(1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5%), 교육 서비스업(14.3%), 도매 및 소매업(8.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5%)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인구조사(2016)에서는 제조업(17.1%), 도매 및 소매업(14.2%), 숙박 및 음식점업(8.7%), 건설업(7.1%), 교육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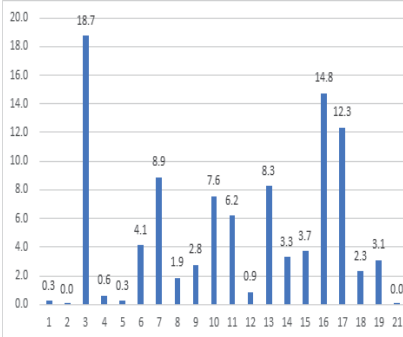
비스업(7.0%),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7.0%)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 졸업자는 제조업(15.9%),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14.6%), 교육 서비스업(14.0%), 도매 및 소매업(8.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7%)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인구조사(2017)에서는 제조업(16.9%), 도매 및 소매업(14.2%), 숙박 및 음식점업(8.6%), 건설업(7.4%),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7.2%)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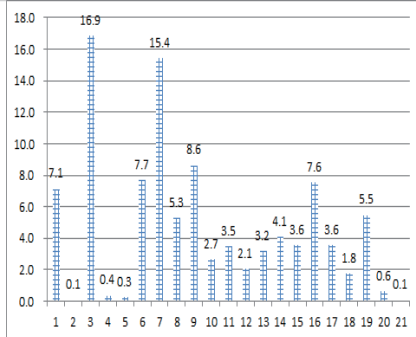
2017년 졸업자는 제조업(14.8%),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14.5%), 교육 서비스업(14.2%), 도매 및 소매업(8.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0%)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활동인구조사(2018)에서는 제조업(16.8%), 도매 및 소매업(13.9%), 숙박 및 음식점업(8.4%), 건설업(7.6%),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7.6%) 순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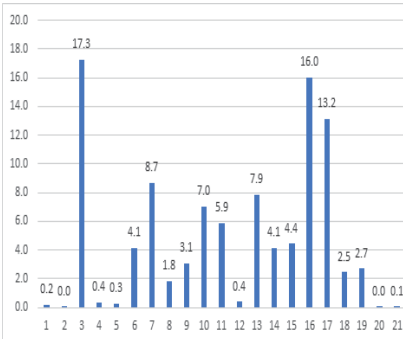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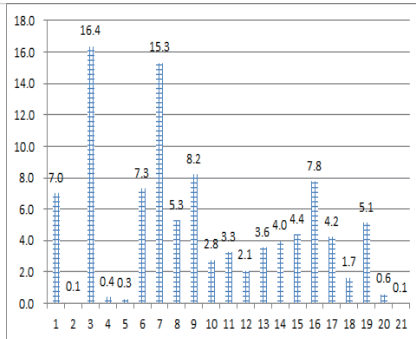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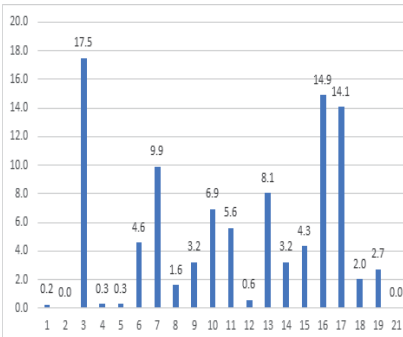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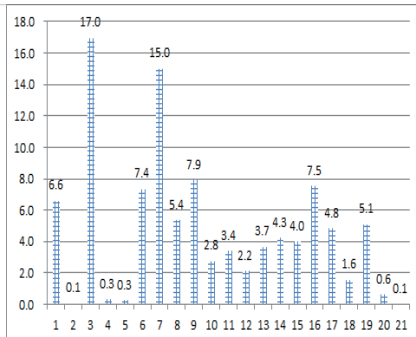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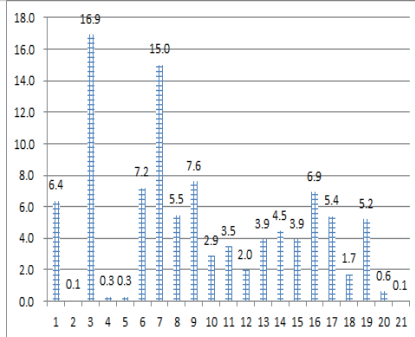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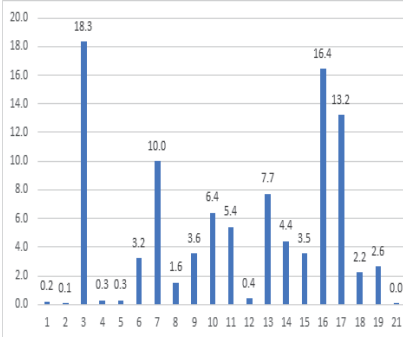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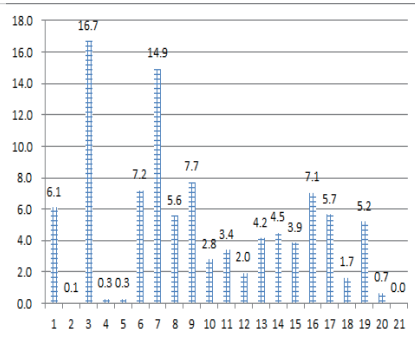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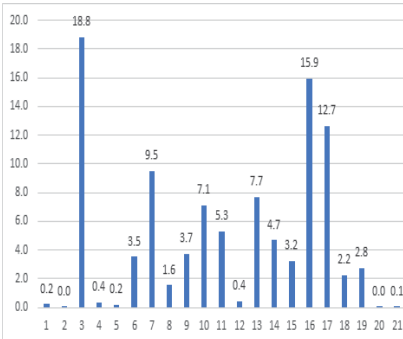
[그림 2-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산업 분포(계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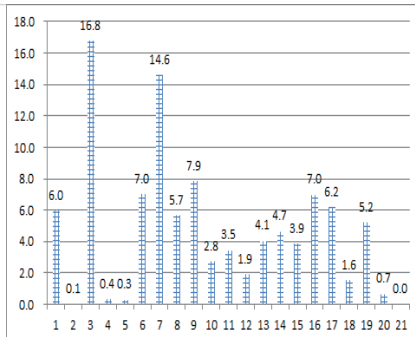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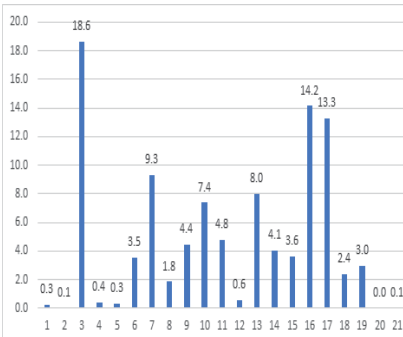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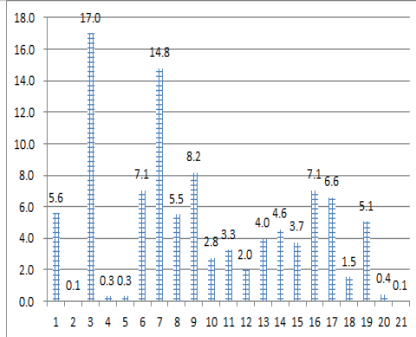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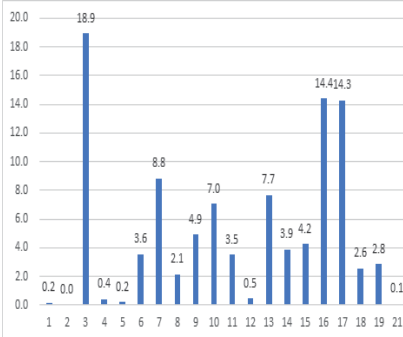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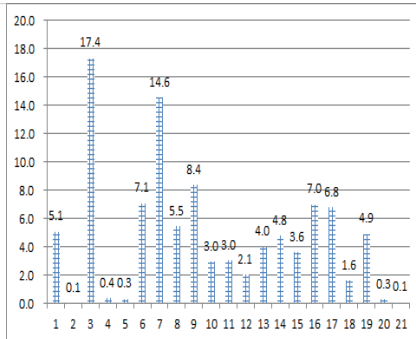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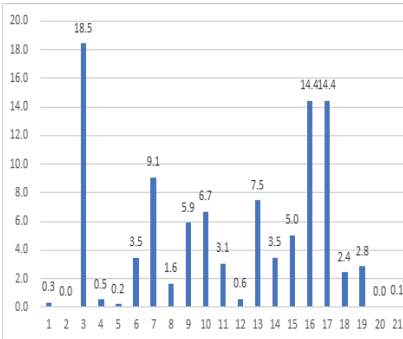
[그림 2-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산업 분포(계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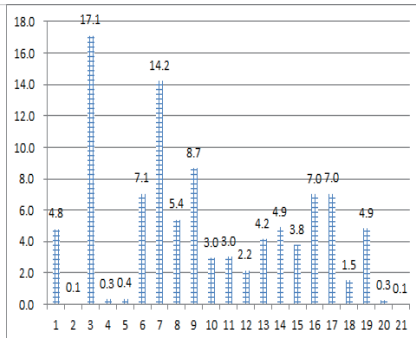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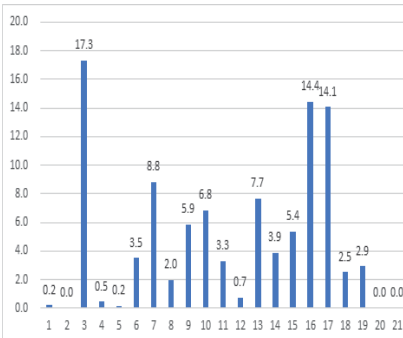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4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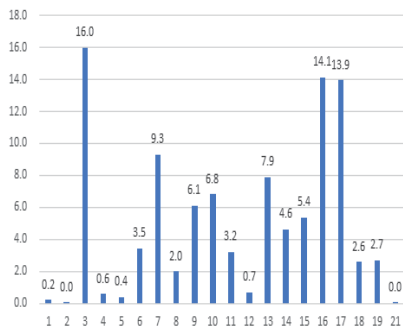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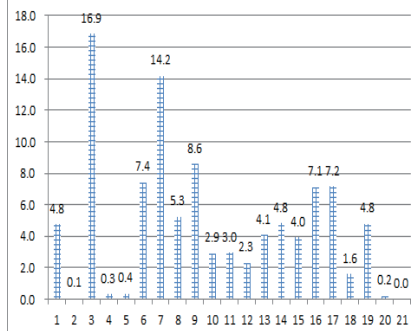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그림 2-9]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산업 분포(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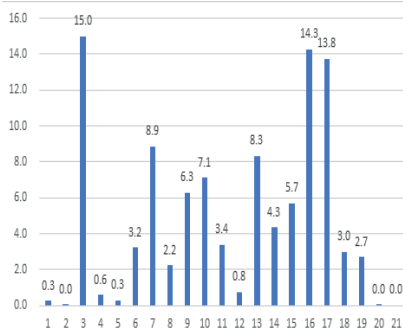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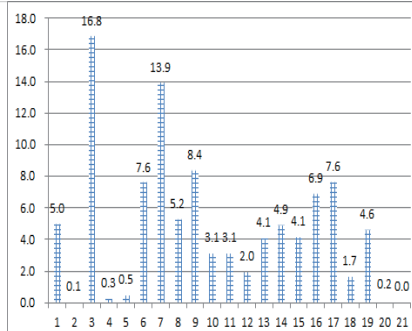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 주: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 제3장

## 대졸자의 취업 현황

### - 2017년 졸업자를 중심으로 -

#### 제1절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상 취업 현황

2017년에 졸업한 대졸자를 대상으로 2018년 9월 조사 시점의 첫 직장 산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에 취업한 비중이 1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취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대학 졸업자의 전공 출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졸자의 27.1%가 공학, 9.8%가 자연계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취업한 대졸자 비중은 전체의 43.0%로, 대졸자 취업이 특정 산업에 집중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부동산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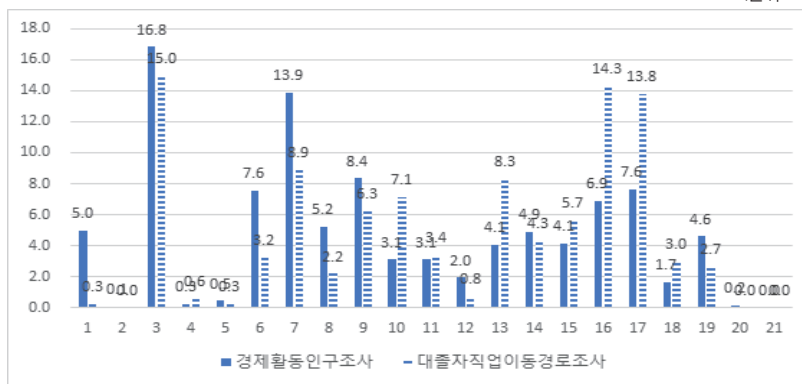
산업에 취업한 졸업자는 1% 미만으로 취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산업에서는 대졸자 진입이 원활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요인이 대졸자의 특정 산업 기피에 기인한 것인지, 산업 진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전체 연령의 2018년 취업자 산업별 취업 동향<sup>4)</sup>을 비교해 보면, 1% 미만의 취업 비중을 보였던 산업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도 취업자 비중이 낮은 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산업별 취업 현황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8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주: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에 따르면 취업자 분포는 농업, 임업 및 어업(5.0%), 광업(0.0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0.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0.47%), 부동산업(1.9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0.18%), 국제 및 외국기관 산업(0.03%)으로 나타남.

그러나 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비중은 5.0%인데 비해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동 산업 취업 비중은 0.3%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자의 산업 기피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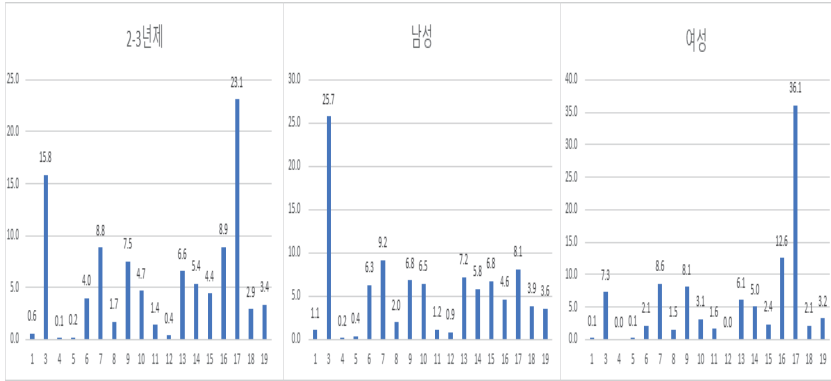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 더 높은 취업자 비중을 보였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동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각각 7.4%p, 6.1%p 높았다. 이는 대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이거나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이라고 생각된다.

남성 졸업자의 경우 제조업에 22.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11.8%, 도매 및 소매업 8.9% 순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 19.5%, 도매 및 소매업 7.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가 4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여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2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전공과 일자리 불일치가 남성보다 심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전문대의 경우 교육 목적이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 일반대는 학문 탐구와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유형을 분리하여 대졸자 취업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2] 전문대 졸업자의 산업 취업 현황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주: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먼저 전문대를 살펴본 결과 전문대 졸업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1%), 제조업(15.8%), 교육 서비스업(8.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는 취업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제조업(25.7%)에 가장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졸업자의 전공을 <표 3-1>을 통해 확인해 보면 49.1%가 공학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으로 사회계열 출신이 19.5%, 의약계열은 11.5%로 나타난다. 여성 졸업자는 의약계열 전공자가 28.8%, 사회계열 25.1%, 예체능 17.7%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성 여성 모두 전공이 취업과 연관성이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표 3-1〉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전문대 졸업자의 전공계열 분포

(단위: 명, %)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전체
전체	2,431	16,978	4,577	19,650	5,454	15,686	10,785	75,560
	(3.2)	(22.5)	(6.1)	(26.0)	(7.2)	(20.8)	(14.3)	(100)
남성	760	6,827	74	17,221	2,517	4,032	3,614	35,045
	(2.2)	(19.5)	(0.2)	(49.1)	(7.2)	(11.5)	(10.3)	(100)
여성	1,671	10,151	4,503	2,429	2,937	11,654	7,172	40,516
	(4.1)	(25.1)	(11.1)	(6.0)	(7.3)	(28.8)	(17.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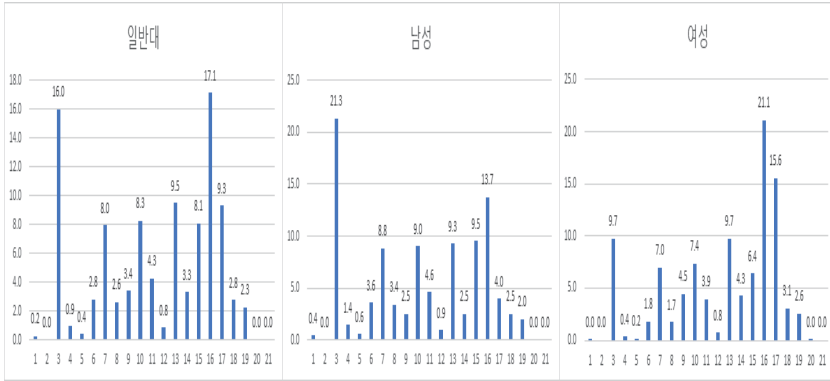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일반대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취업한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17.1%)이며, 그다음으로 제조업(16.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제조업(21.3%)에 가장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교육 서비스업(21.1%)으로 나타났다. 남성 졸업자의 전공을 <표 3-2>에서 확인해 보면 41.1%가 공학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계열 출신이 27.1%, 자연계열은 10.0%로 나타났다. 여성 졸업자는 사회계열 전공자가 28.5%, 예체능계열 14.3%, 인문계열 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보다는 남성이 전공과 취업의 유사성이 더 깊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3-3] 일반대 졸업자의 산업 취업 현황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주: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표 3-2>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상 일반대 졸업자의 전공계열 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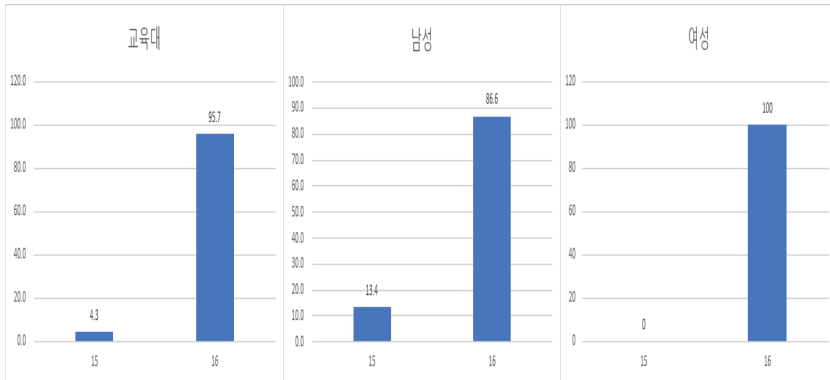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전체
전체	18,611	49,676	8,335	50,195	19,785	13,580	18,878	179,060
	(10.4)	(27.7)	(4.7)	(28.0)	(11.1)	(7.6)	(10.5)	(100)
남성	7,726	26,160	2,782	39,716	9,697	3,378	7,127	96,587
	(8.0)	(27.1)	(2.9)	(41.1)	(10.0)	(3.5)	(7.4)	(100)
여성	10,885	23,516	5,553	10,480	10,088	10,202	11,750	82,473
	(13.2)	(28.5)	(6.7)	(12.7)	(12.2)	(12.4)	(14.3)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교육대 졸업자의 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취업한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95.7%)과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서비스업(4.3%)으로, 두 산업에 집중해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의 특성에 맞게 졸업자가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과 일자리 연관성이 매우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 교육대 졸업자의 산업 취업 현황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주: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여성 교육대 졸업자의 경우 100% 교육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남성 교육대 졸업자는 13.4%가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서비스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남성의 경우 전공과 일자리 매칭이 여성에 비해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3>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교육대 졸업자의 전공계열 분포

(단위: 명, %)

	남성	여성	전체
교육계열	847	1,784	2,631
	(32.2)	(67.8)	(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제2절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상 산업별 전공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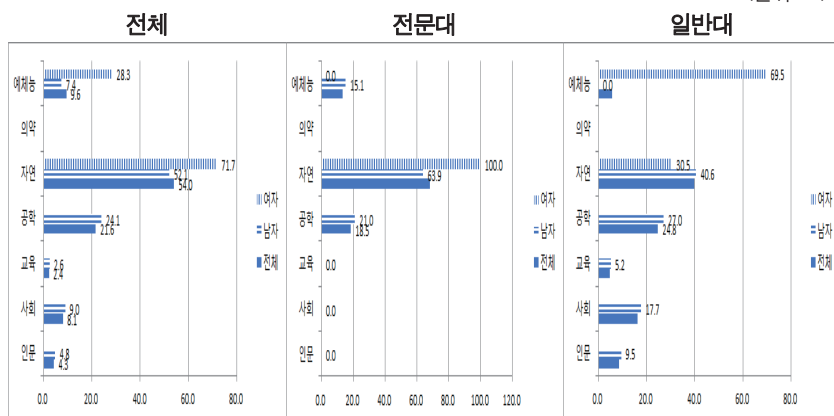
### 1)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54.0%가 자연계열 전공자이고 공학계열 전공자는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전공 선택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별로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전공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성은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전공자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2018년 GOMS 농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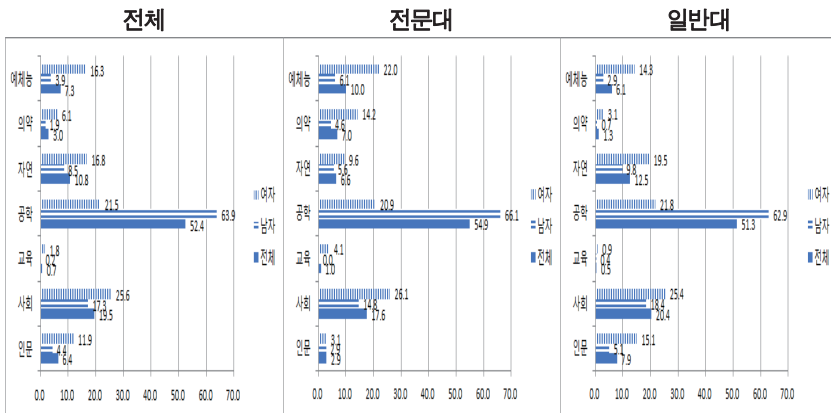
전문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 간 차이 없이 자연계열 출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 남성은 자연계열 출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은 예체능계열 출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조업

제조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52.4%가 공학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사회계열 전공자가 19.5%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가 전체 취업자의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25.6%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공학계열(21.5%)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중 남성의 경우 10명 중 6명 정도가 공학계열인 데 비해 여성은 10명 중 2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무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2018년 GOMS 제조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전문대와 일반대 남성 졸업자의 경우 공학계열 출신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여성은 사회계열 출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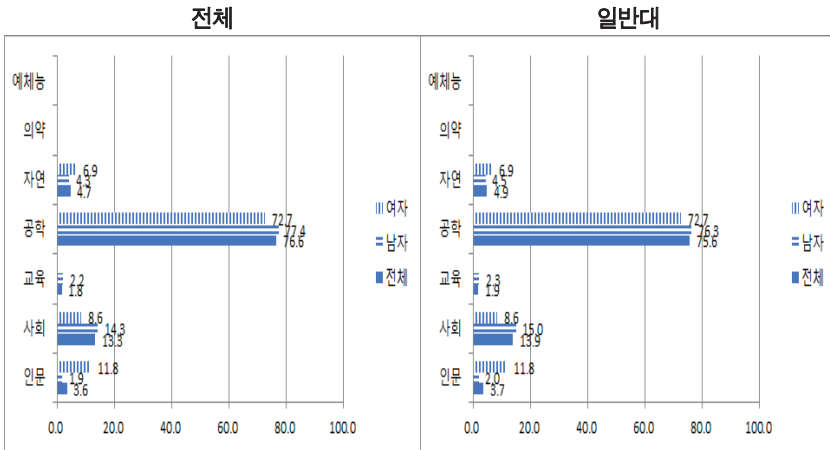


### 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76.6%가 공학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사회계열 전공자가 13.3%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 여성 모두 공학계열 전공자가 남녀 각각 전체의 77.4%, 7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는 남성 여성 모두 공학계열 전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2018년 GOMS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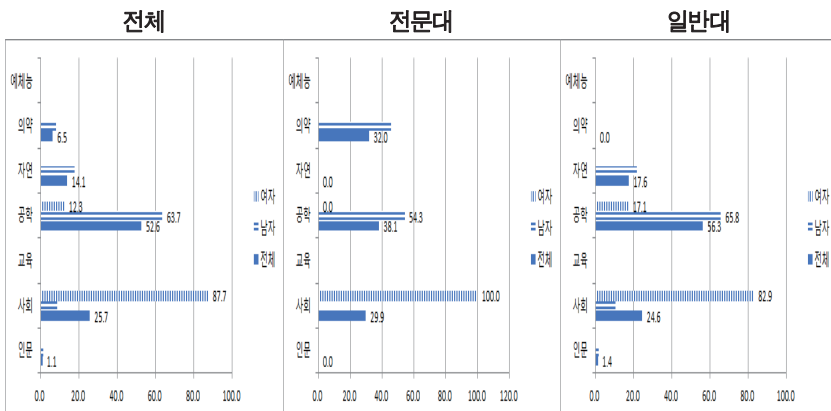
주: 전문대의 경우 남성 공학계열 전공자만 존재하여 표기하지 않음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 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52.6%가 공학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사회계열 전공자가 25.7%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가 63.7%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87.7%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남성과 여성의 업무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남성은 공학계열 전공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에 여성은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높았다.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 남성은 공학계열(65.8%), 자연계열(21.9%)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에 여성은 사회계열(82.9%), 공학계열(17.1%)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취업자의 남성과 여성의 전공 분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는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남성과 여성 직무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림 3-8] 2018년 GOMS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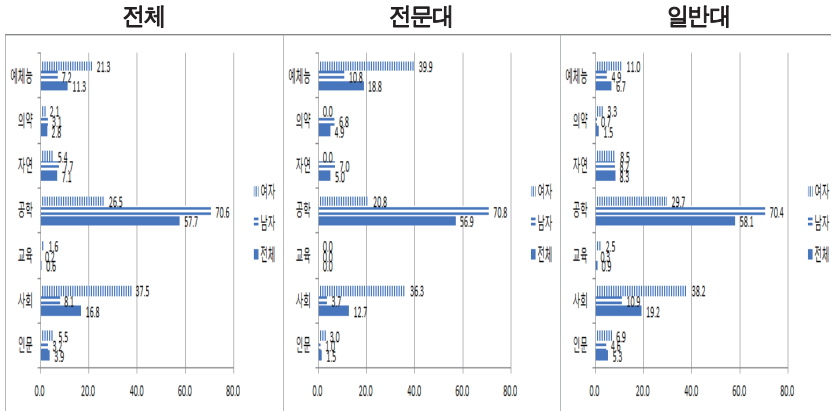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5) 건설업

건설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57.7%가 공학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사회계열 전공자가 16.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가 70.6%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남성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26.5%가 공학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3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3-9] 2018년 GOMS 건설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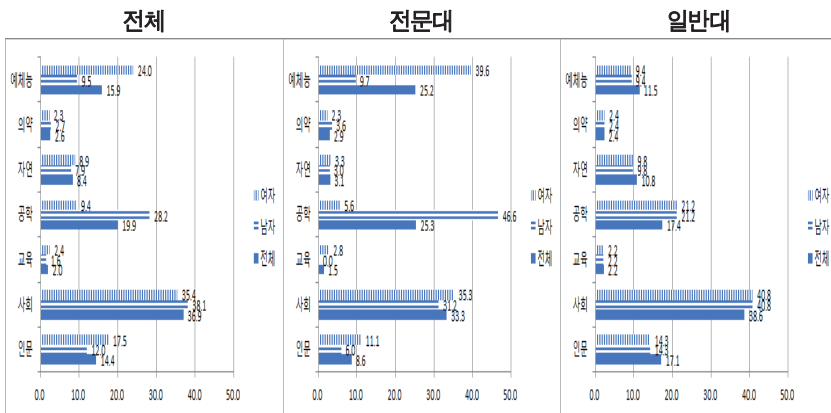
전문대와 일반대 모두에서 남성은 공학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건설업 직무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 6)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36.9%가 사회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공학계열 전공자가 19.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 여성 모두 사회계열 전공자가 각각 38.1%, 35.4%로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전공으로 남성은 공학(28.2%), 여성은 예체능(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 산업 특성상 취업자의 출신 전공이 타 산업에 비해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2018년 GOMS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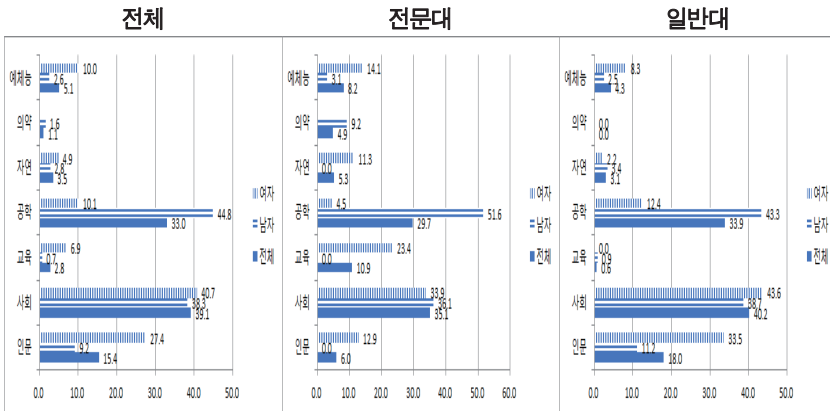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전문대와 일반대 졸업자 모두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는 전문대에서는 공학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대에서는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전문대와 일반대 모두에서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7) 운수 및 창고업

운수 및 창고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39.1%가 사회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공학계열 전공자가 33.0%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공학계열 전공자가 4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사회계열(38.3%)로 나타났다. 여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인문계열(27.4%)로 나타났다.

[그림 3-11] 2018년 GOMS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전문대와 일반대 졸업자 모두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는 공학계열 전공자 비중이 전문대와 일반대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전문대와 일반대 모두에서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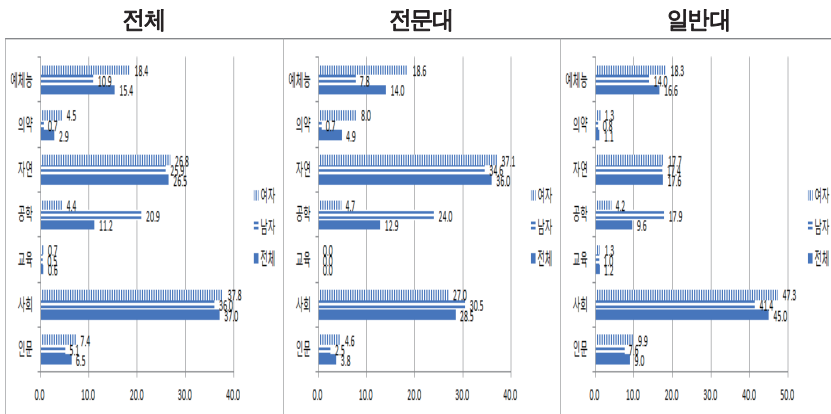
## 8)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37.0%가 사회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자연계열 전공자가 26.5%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3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자연계열(25.9%)로 나타났다. 여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자연계열(26.8%)로 나타났다.

대학 유형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중 전공자 분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의 경우 자연계열 전공자가 36.0%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사회계열(28.5%)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일반대의 경우는 사회계열이 4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자연계열(17.6%), 예체능(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2018년 GOMS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9) 정보통신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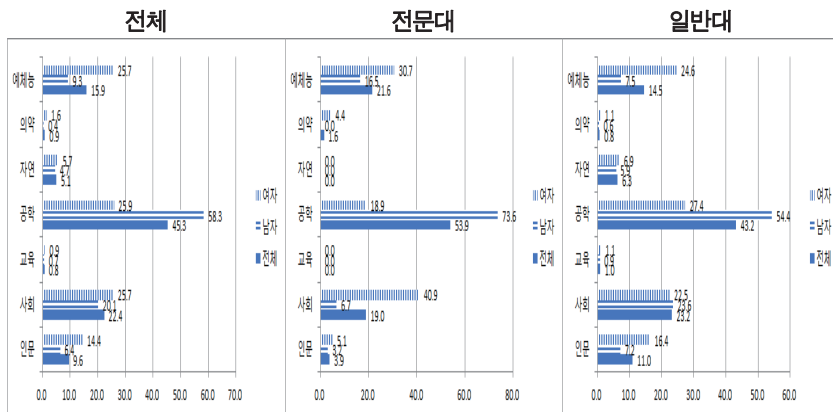
정보통신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45.3%가 공학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사회계열 전공자가 22.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공학계열 전공자가 5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사회계열(20.1%)로 나타났다. 여성은 공학계열 전공자가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사회계열(25.7%)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남성의 73.6%가 공학계열 출신으로 나타났으나, 일반대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5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이와 반대로 일반대 졸업자의 27.4%가 공학계열 출신으로 전문대 졸업자에 비해 비중이 8.5%p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3] 2018년 GOMS 정보통신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10) 금융 및 보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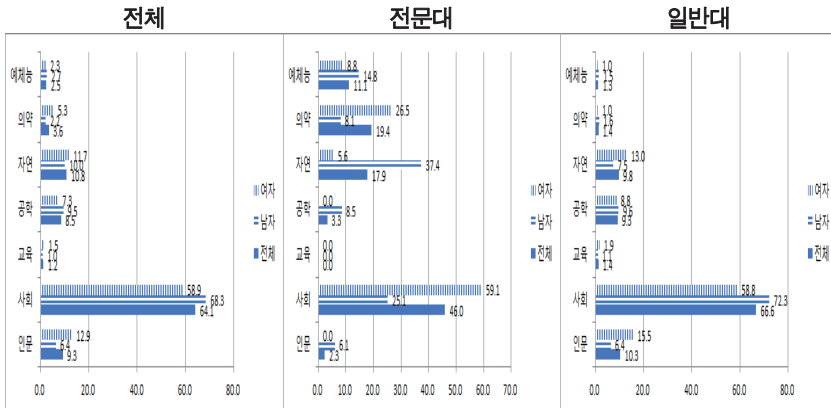
금융 및 보험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64.1%가 사회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자연계열 전공자가 10.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6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자연계열(10.0%)로 나타났다. 여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자연계열(11.7%)로 나타났다.

전문대와 일반대 졸업자 모두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는 전문대 졸업자 중 자연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일반대는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전문대와 일반대 모두에서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4] 2018년 GOMS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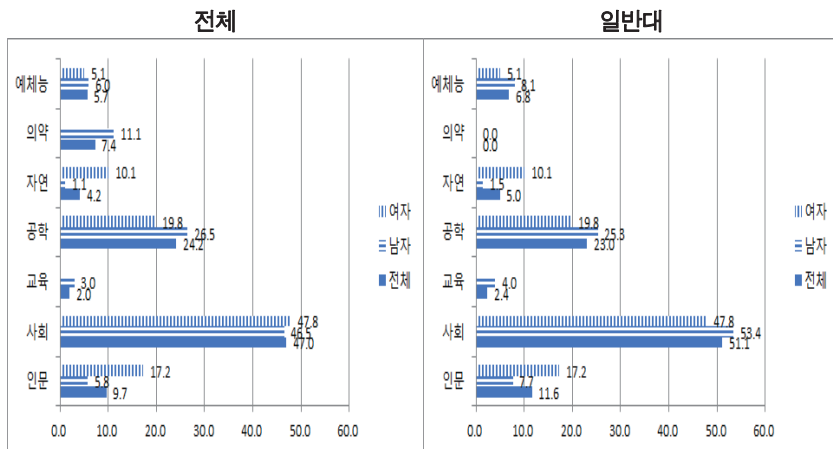
## 11) 부동산업

부동산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47.0%가 사회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공학계열 전공자가 24.2%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4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공학계열(26.5%)로 나타났다. 여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공학계열(19.8%)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의 일반대 출신 남성의 절반 이상인 53.4%가 사회계열 출신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공학계열(25.3%)이고 여성은 사회계열 출신이 47.8%, 공학계열 19.8%로 나타나 부동산업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전공계열 분포가 유사성이 높아 업무에 성별 차이가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15] 2018년 GOMS 부동산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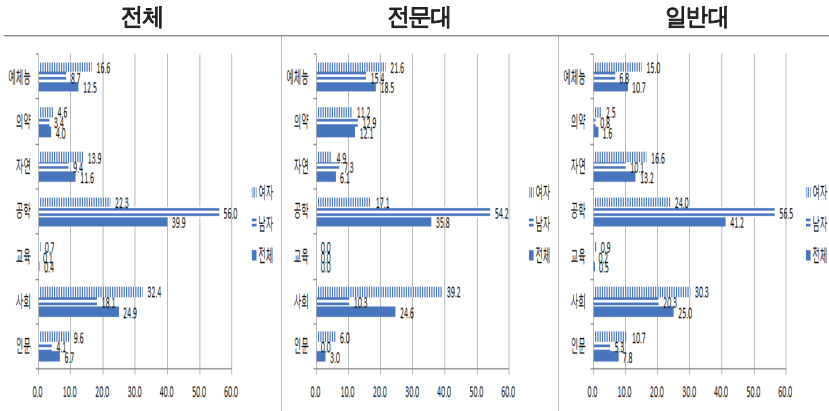
주: 전문대의 경우 남성 사회(26.0%), 공학(30.0%), 의약(44.2%) 비중을 차지함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39.9%가 공학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사회계열 전공자가 24.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공학계열 전공자가 5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에 여성은 공학계열 전공자가 22.3%를 차지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사회계열 전공자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문대 출신 남성 중 절반 이상(54.2%)이 공학계열인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대 출신 남성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56.5%가 공학계열 출신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전문대와 일반대 모두에서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2018년 GOMS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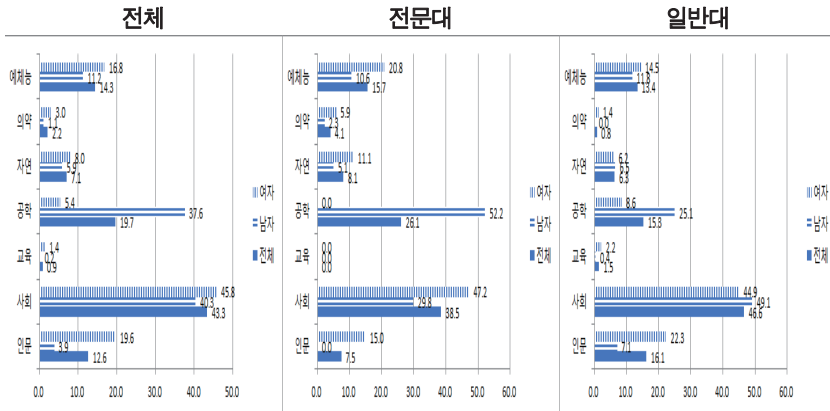
### 1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43.3%가 사회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공학계열 전공자가 19.7%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4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공학계열(37.6%)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공이 사회계열로 45.8%이고 그다음은 인문계열로 19.6%이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문대와 일반대 졸업자 모두에서 사회계열 전공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3-17] 2018년 GOMS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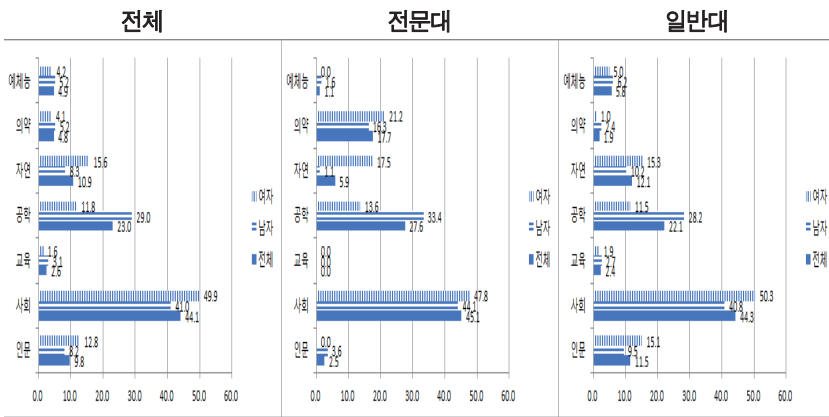


주: 산업에서 모름과 무응답자는 제외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1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44.1%가 사회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공학계열 전공자가 23.0%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3-18] 2018년 GOMS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남성은 사회계열 전공자가 4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은 공학계열(29.0%)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공은 사회계열로 49.9%이고 그다음은 자연계열로 15.6%이다. 전문대와 일반대 졸업자 모두에서 사회계열 전공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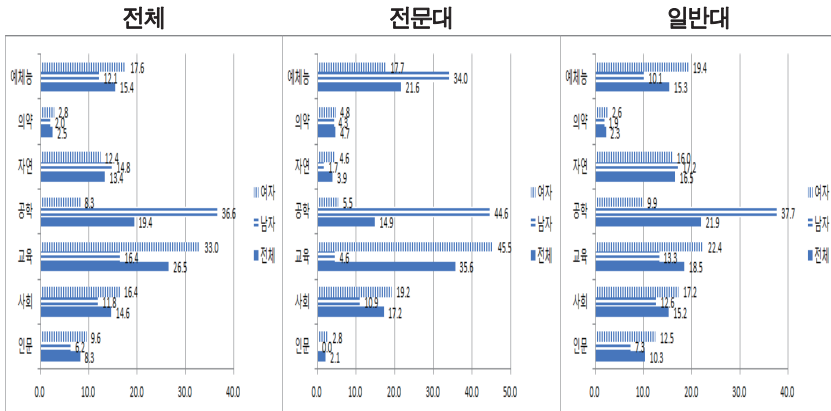
남성과 여성 모두 대학 유형과 상관없이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의 경우 대학 유형별, 성별 직무에 따른 차이가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 15) 교육 서비스업

교육 비스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26.5%가 교육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공학계열 전공자가 19.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3-19] 2018년 GOMS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주: 교육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교육대 출신 중 남성 29.1%, 여성 70.9%의 비중을 보임  
산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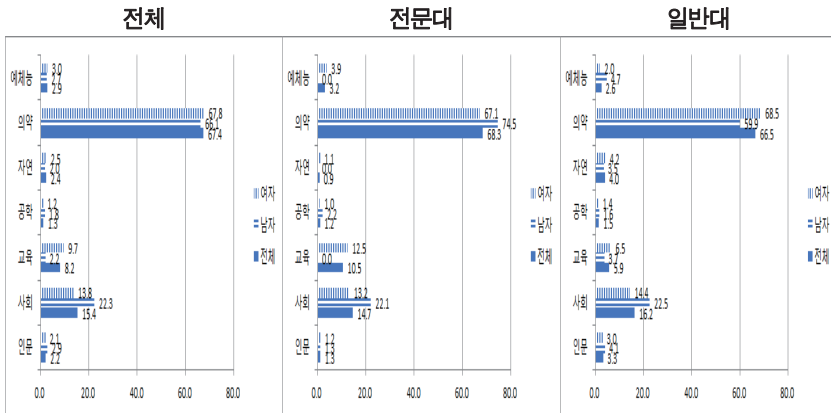
남성은 공학계열 전공자가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교육계열(16.4%)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공은 교육계열로 33.0%이고 그다음은 예체능계열로 17.6%이다.

##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67.4%가 의약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사회계열 전공자가 15.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의약계열 전공자가 6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사회계열(22.3%)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공은 의약계열로 67.8%이고 그다음은 사회계열로 13.8%이다.

전문대의 경우 남녀 모두 의약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대 졸업자도 같은 상황이다.

[그림 3-20] 2018년 GOMS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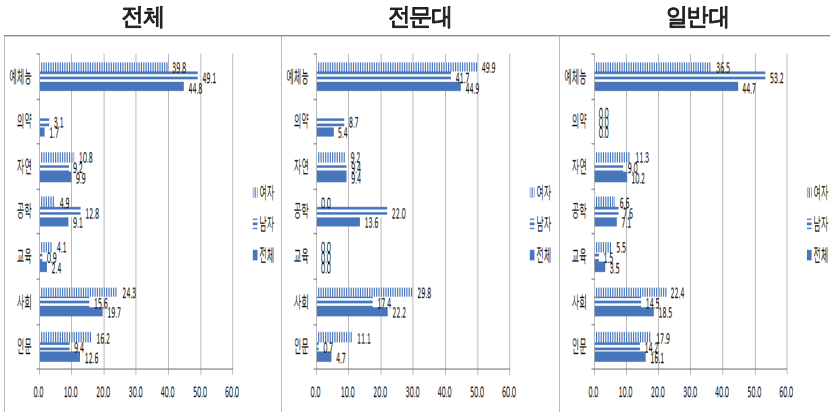
###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44.8%가 예체능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사회계열 전공자가 19.7%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예체능계열 전공자가 4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사회계열(15.6%)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공은 예체능계열로 39.8%이고 그다음은 사회계열로 24.3%이다.

전문대와 일반대 졸업자 모두에서 예체능계열 전공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예체능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2018년 GOMS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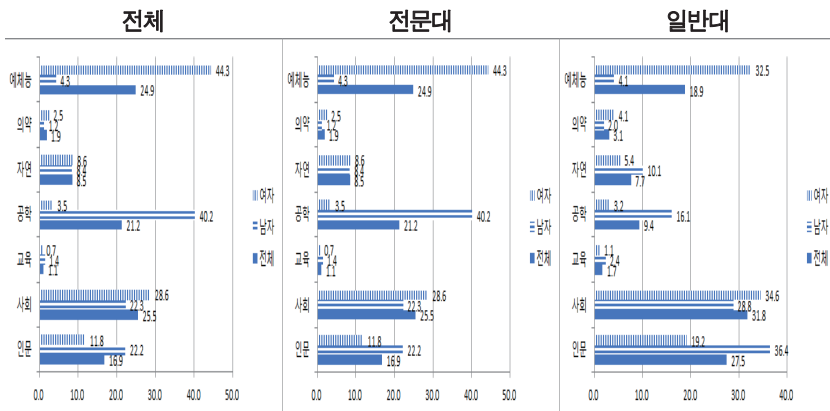
주: 산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첫 직장으로 취업한 대졸자 중 25.5%가 사회계열 전공자이고 다음으로 예체능계열 전공자가 24.9%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공학계열 전공자가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사회계열로 22.3%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공은 예체능계열로 44.3%이고 그다음은 사회계열로 28.6%이다. 전문대의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대의 경우는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일반대는 인문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전문대 졸업자에서는 예체능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대의 경우는 사회계열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2] 2018년 GOM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산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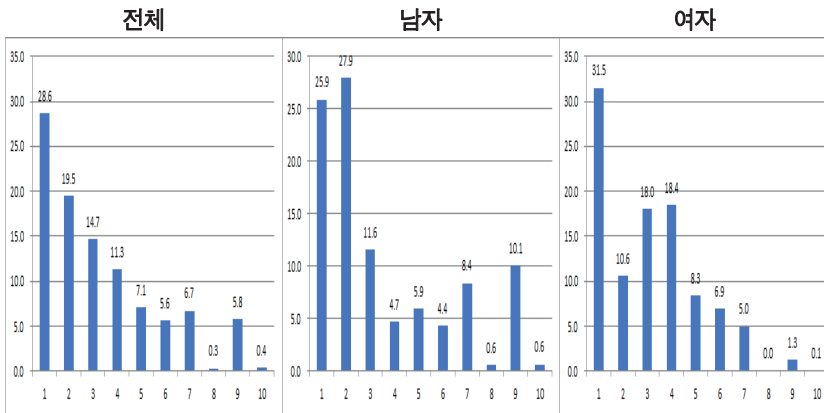
### 제3절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상 직업 분포 현황

현황 분포를 살펴본 결과,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취업자 비중이 28.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19.5%),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14.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이유 등에 따라 직업 선정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성별로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으로 종사하는 취업자가 전체의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이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보건·의료직 (18.4%),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18.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3] 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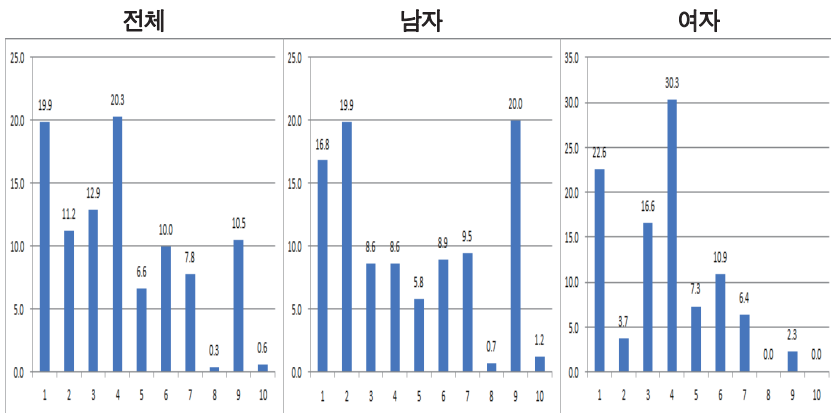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경영·사무·금융·보험직(19.9%),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12.9%)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 중 남성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이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으로 19.9%이며 여성은 보건·의료직이 30.3%로 나타났다.

[그림 3-24] 전문대 졸업자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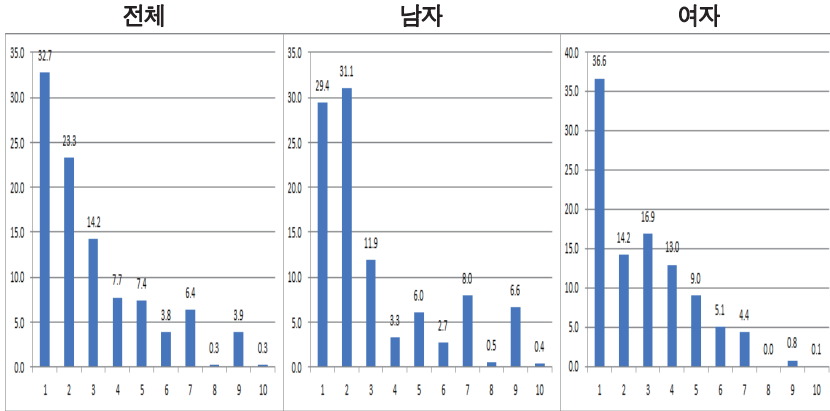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일반대 졸업자의 경우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23.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14.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대 졸업자 중 남성과 여성 모두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종사자가 각각 29.4%, 36.6%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림 3-25] 일반대 졸업자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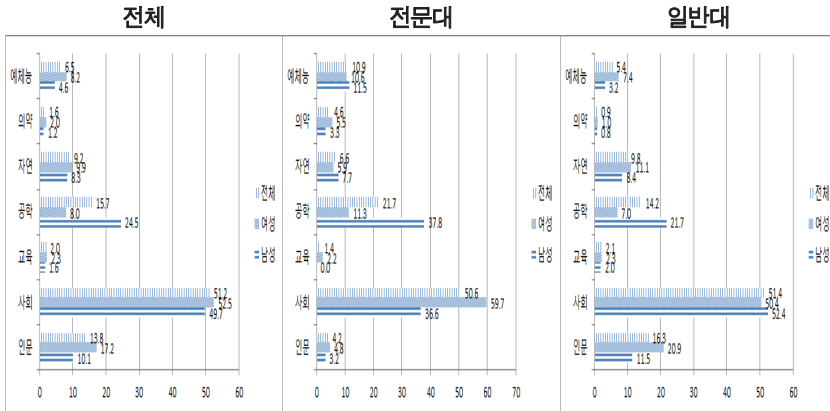
## 제4절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상 직업별 전공 분포 현황

###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경영·사무·금융·보험직으로 처음 취업한 대졸자 중 51.2%가 사회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공학계열이 15.7%, 인문계열이 13.8%이다.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중은 46.6%, 여성의 비중은 53.4%이다.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남성의 49.7%가 사회계열이고, 공학계열이 24.5%, 인문계열이 10.1%이며, 여성은 사회계열 52.5%, 인문계열 17.2%, 자연계열 9.9%로 나타났다.

[그림 3-26] 2018년 GOMS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전문대 졸업자 중 50.6%가 사회계열 전공자이고 일반대의 경우는 51.4%로 나타나,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업은 타 전공보다 사회계열 전공자에게 업무가 적합할 것으로 추측된다.

##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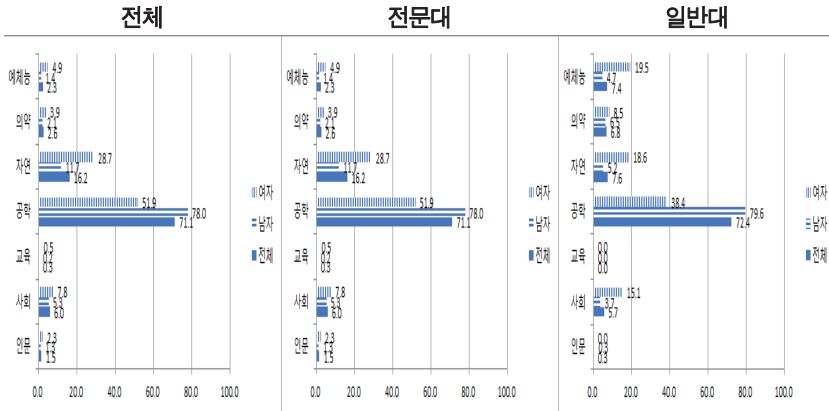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으로 처음 취업한 대졸자 중 71.1%가 공학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자연계열이 16.2%, 사회계열이 6.0%이다.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중은 73.6%이고 여성은 26.4%이다.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남성 졸업자 중 78.0%가 공학계열 출신이고 11.7%가 자연계열 출신인 반면에 여성은 51.9%가 공학계열, 28.7%가 자연계열, 7.8%가 사회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 중 71.1%가 공학계열 전공자이고 일반대의 경우는 72.4%로 나타나,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은 타 전공보다 공학계열 전공자에게 업무가 적합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27] 2018년 GOMS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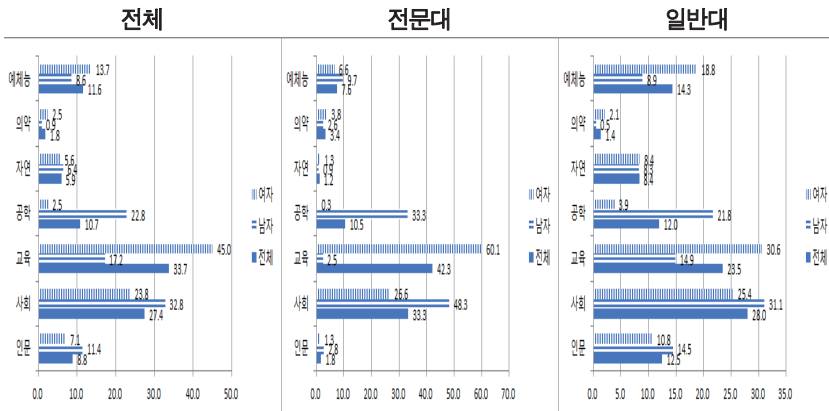
###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직으로 처음 취업한 대졸자 중 33.7%가 교육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사회계열이 27.4%, 공학계열이 10.7%이다.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직에 종사하는 남성 비중은 40.7%이고 여성은 59.3%이다.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직 남성 졸업자 중 32.8%가 사회계열 출신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으로는 공학계열이 22.8%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교육계열 출신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사회계열 23.8%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 중 교육계열 출신이 4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일반대의 경우는 사회계열이 2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직에 교육직이 포함되었음에도 일반대의 경우 사회계열 전공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이유는 교육대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띤 대학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3-28] 2018년 GOMS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직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직에 종사하는 교육대 출신 중 여성 비중은 67.8%이고 남성은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보건·의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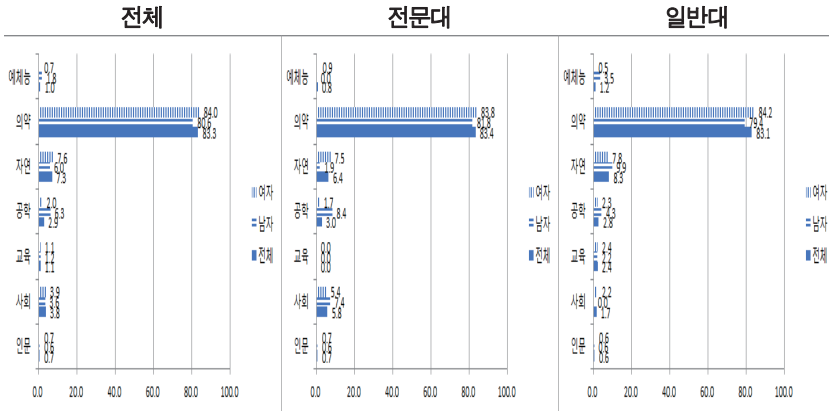
보건·의료직으로 처음 취업한 대졸자 중 83.3%가 의약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자연계열(7.3%), 사회계열(3.8%) 순이다.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중은 21.2%이고 여성은 78.8%이다.

보건·의료직 남성 졸업자의 의약계열 출신은 8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그다음은 공학계열(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84.0%가 의약계열 출신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자연계열(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의 83.4%가 의약계열 출신이고, 일반대의 경우는 83.1%가 의약계열 출신으로 나타나 의약계열 출신의 경우 보건·의료직으로 진출할 확률이 타 전공에 비해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9] 2018년 GOMS 보건·의료직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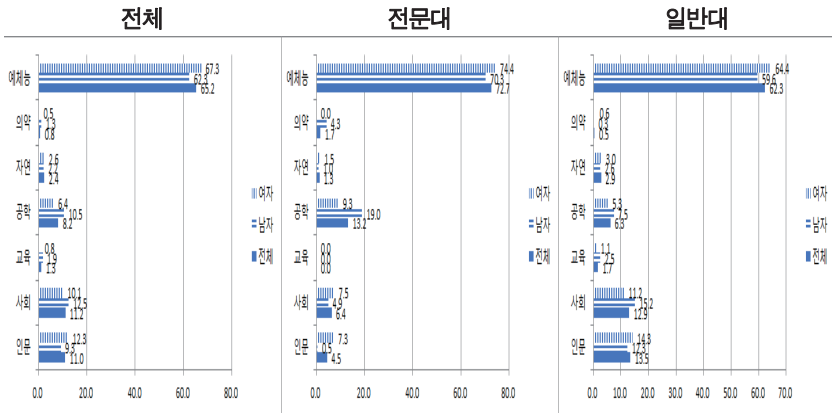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으로 처음 취업한 대졸자 중 65.2%가 예체능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회계열이 11.2%, 인문계열이 11.0%이다.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중은 42.9%이고 여성은 57.1%이다.

[그림 3-30] 2018년 GOMS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에 취업한 남성 졸업자 중 62.3%가 예체능계열 출신이고 12.5%가 사회계열 출신인 반면에 여성은 67.3%가 예체능계열, 12.3%가 인문계열, 10.1%가 사회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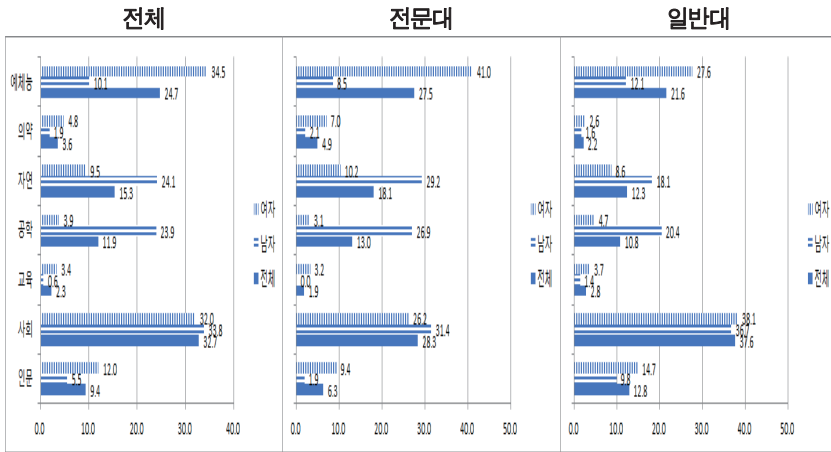
전문대 졸업자 중 72.7%가 예체능계열 전공자이고, 일반대의 경우는 62.3%로 나타나 예체능계열 전공자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직업에 취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타 전공에 비해 용이함을 알 수 있다.



###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으로 처음 취업한 대졸자 중 32.7%가 사회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예체능계열이 24.7%, 자연계열이 15.3%이다.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중은 40.1%이고 여성은 59.9%이다.

[그림 3-31] 2018년 GOMS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으로 취업한 남성 졸업자 중 33.8%가 사회계열 출신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여성은 예체능계열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문대는 사회계열이 28.3%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일반대의 경우는 사회계열이 3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대학 유형별 전공자 취업 분포가 다를 수 있다.

##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영업·판매·운전·운송직으로 처음 취업한 대졸자 중 34.1%가 사회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공학계열이 22.4%, 예체능계열이 16.3%이다. 영업·판매·운전·운송직의 남성 비중은 64.2%이고 여성은 35.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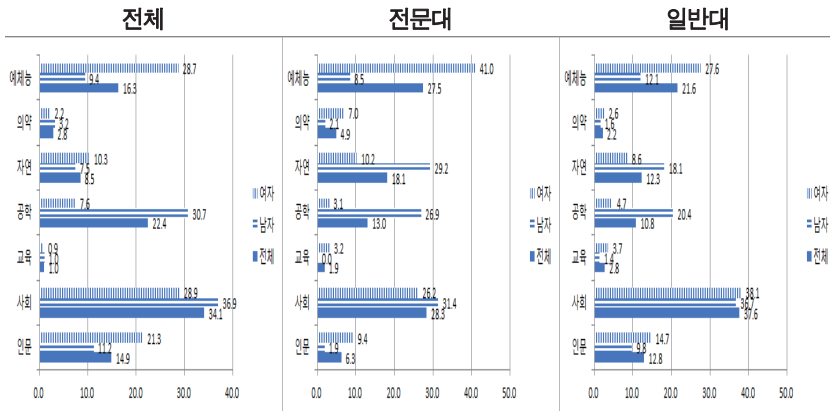
영업·판매·운전·운송직으로 취업한 남성 졸업자 중 36.9%가 사회계열 출신이고 30.7%가 공학계열 출신인 반면에 여성은 28.9%가 사회계열, 28.7%가 예체능계열, 21.3%가 인문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 중 28.3%가 사회계열 전공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반대의 경우는 사회계열 전공자가 3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영업·판매·운전·운송직의 경우 특정 전공과 관련성이 타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았다.

[그림 3-32] 2018년 GOMS 영업·판매·운전·운송직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산업 직업 모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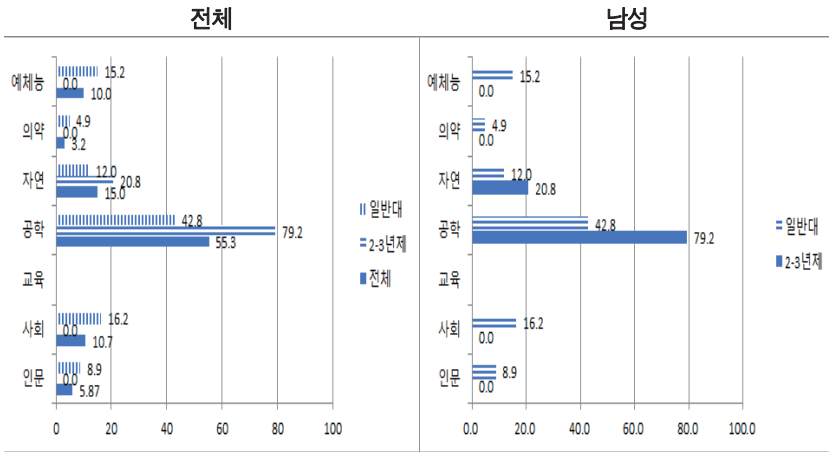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8) 건설·채굴직

건설·채굴직으로 처음 취업한 대졸자 중 55.3%가 공학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자연계열이 15.0% 사회계열이 10.7%이다. 건설·채굴직 종사자는 남성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종사하기에는 신체적, 환경적으로 건설·채굴직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3] 2018년 GOMS 건설·채굴직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9) 설치·정비·생산직

설치·정비·생산직으로 처음 취업한 대졸자 중 66.7%가 공학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사회계열이 11.4%, 자연계열이 9.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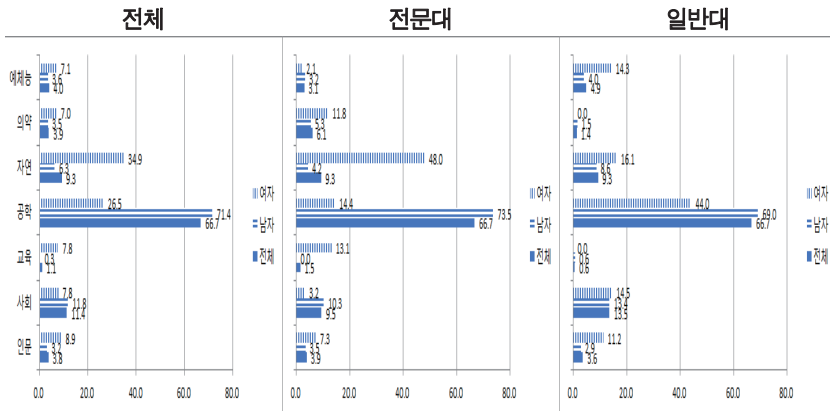
설치·정비·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중은 89.6%이고 여성은 10.4%로 나타나 설치·정비·생산직업도 건설·채굴직과 유사한 업무 환경임에 따라 여성 취업자 비중은 낮을 것이다.

남성 졸업자 중 71.4%가 공학계열 출신이고 11.8%가 사회계열 출신인 반면에 여성은 34.9%가 자연계열, 26.5%가 공학계열, 8.9%가 인문계열, 7.8%가 사회계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 중 66.7%가 공학계열 전공자이고 일반대의 경우는 66.7%로 나타나 설치·정비·생산직은 타 전공보다 공학계열 전공자에게 상대적으로 맞는 일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3-34] 2018년 GOMS 설치·정비·생산직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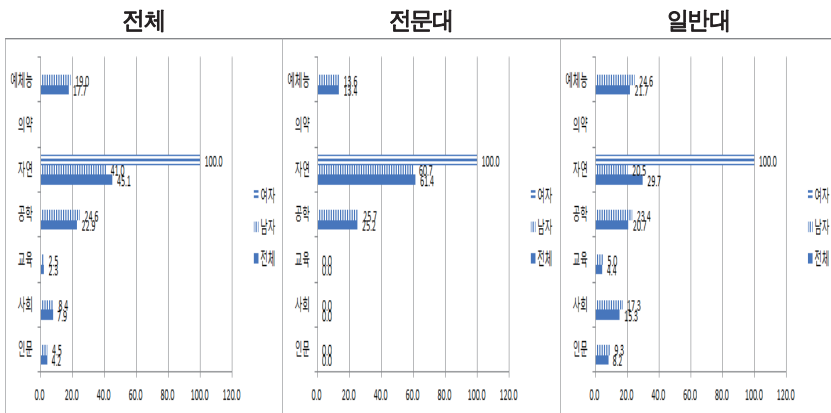
### 10) 농림 어업직

농림 어업직으로 처음 취업한 대졸자 중 45.1%가 자연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공학계열이 22.9%, 예체능계열이 17.7%이다. 농림 어업직에 종사하는 남성의 비중은 93.1%이고 여성 비중은 6.9%로 여성 취업자 비중이 낮은 직업이다. 이는 남성에 비해 육체적 특성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무 환경이거나 여성 취업자의 기피 직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성 졸업자 중 41.0%가 자연계열 출신이고 24.6%가 공학계열 출신인 반면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에서 첫 직업을 농림 어업직인 여성은 자연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 중 61.4%가 자연계열 전공자인 반면에 일반대는 전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전공계열 출신이 농림 어업직을 첫 직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5] 2018년 GOMS 농림 어업직 취업자 전공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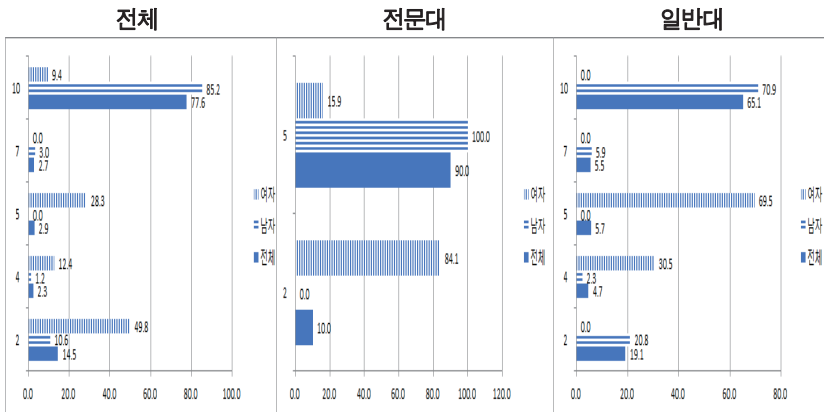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제5절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상 산업·직업 분포 현황

### 1)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직업 분포<sup>5)</sup>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직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산업 특성상 농림 어업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의 경우 남성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비중이 높게 나왔으나 여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의 경우 남성은 농림 어업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6] 2018년 GOMS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은 10% 정도 낮은 비중을 나타내는 점을 고려할 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에 종사하는 여성을 쉽게 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광업 취업자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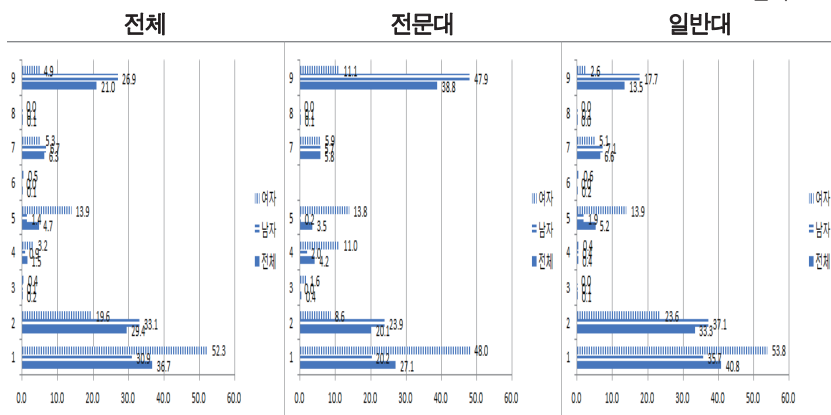
## 2) 제조업

제조업의 직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산업 특성상 경영·사무·금융·보험직(36.7%),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29.4%), 설치·정비·생산직(21.0%)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의 경우 대학 설립 목적에 맞게 설치·정비·생산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면 남성은 설치·정비·생산직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7] 2018년 GOMS 제조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일반대의 경우 남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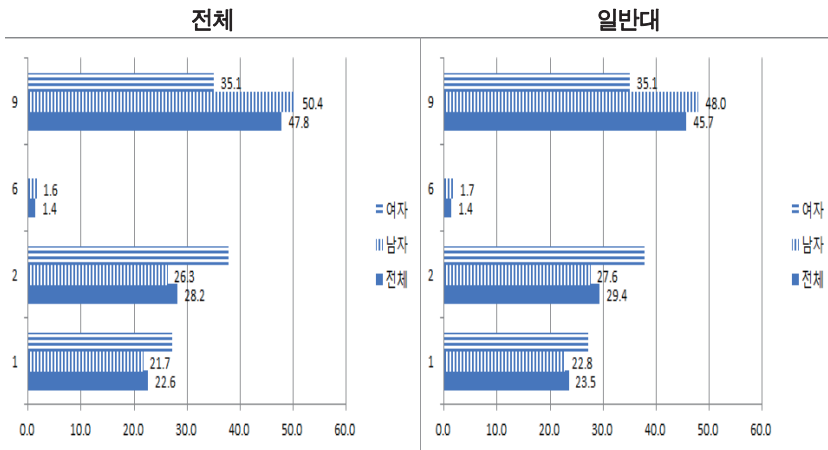
### 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의 직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산업 특성상 설치·정비·생산직(47.8%),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28.2%)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8)에 따르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 첫 직장인 종사자는 모두 설치·정비·생산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의 경우 남성은 설치·정비·생산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8] 2018년 GOMS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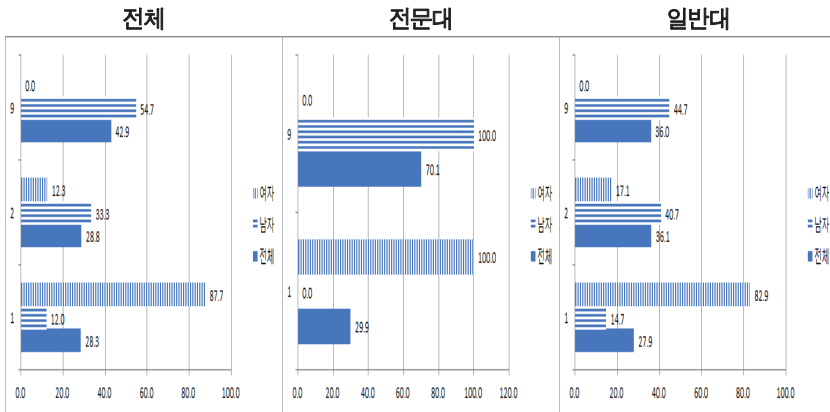


#### 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직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산업 특성상 설치·정비·생산직(42.9%),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28.8%)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는 설치·정비·생산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대의 경우 남성은 설치·정비·생산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9] 2018년 GOMS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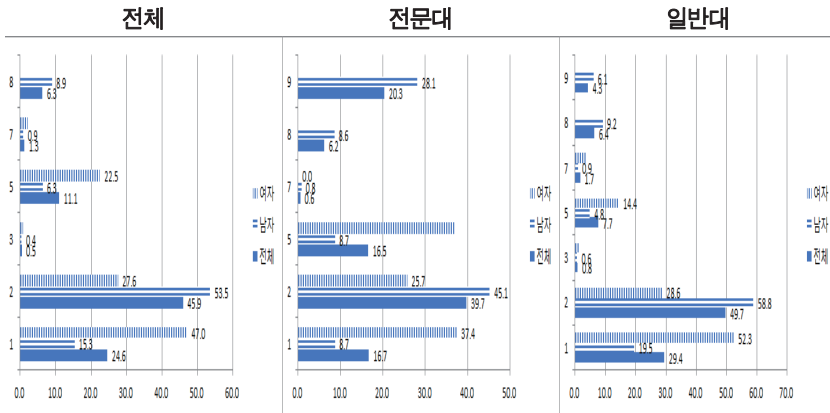
## 5) 건설업

건설업의 직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산업 특성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45.9%), 경영·사무·금융·보험직(24.6%)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 중 남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의 경우는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 남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비중이 가장 높고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으로 나타나 건설업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직무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3-40] 2018년 GOMS 건설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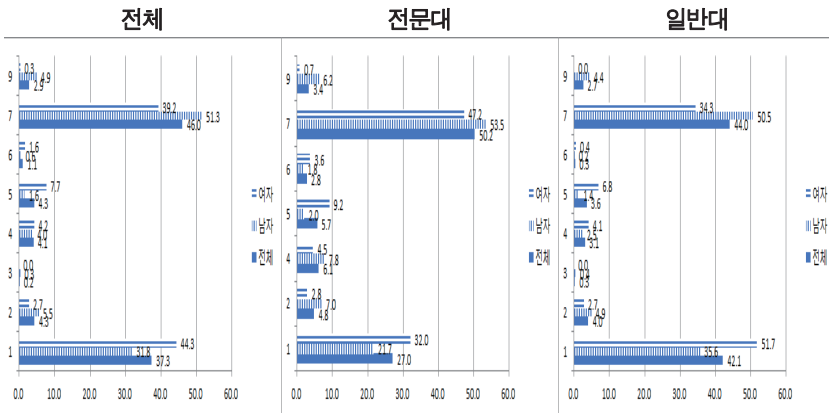
## 6)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의 직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산업 특성상 영업·판매·운전·운송직(46.0%), 경영·사무·금융·보험직(37.3%)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 중 남성은 영업·판매·운전·운송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여성도 같은 직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의 경우 남성은 영업·판매·운전·운송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1] 2018년 GOMS 도매 및 소매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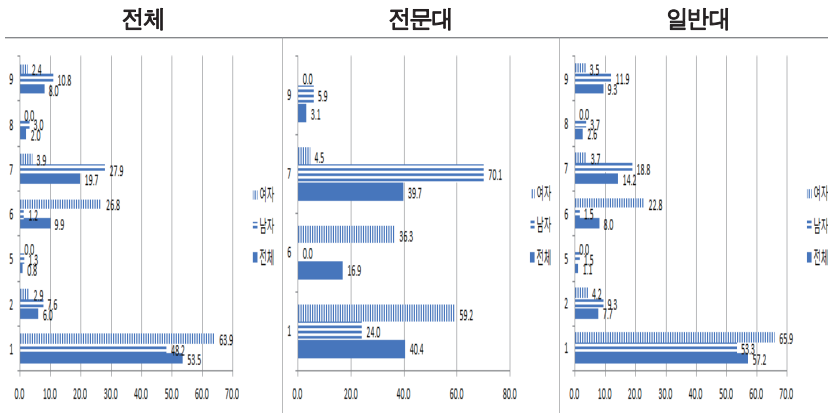
## 7) 운수 및 창고업

운수 및 창고업의 직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경영·사무·금융·보험직(53.5%), 영업·판매·운전·운송직(19.7%)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운수 및 창고업 특성상 영업·판매·운전·운송직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신규 취업자인 점을 고려하면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이 높은 점이 이해된다.

전문대 졸업자 중 남성은 영업·판매·운전·운송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2] 2018년 GOMS 운수 및 창고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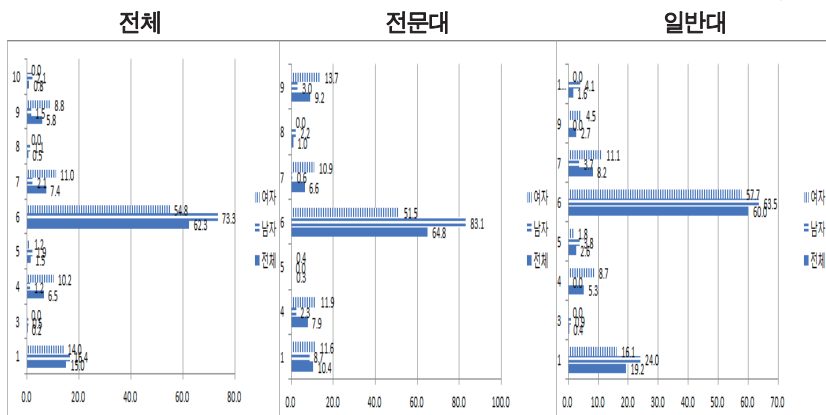
### 8)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특성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62.3%)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15.0%)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 중 남성은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비중(83.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 또한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비중(51.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3] 2018년 GOMS 숙박 및 음식점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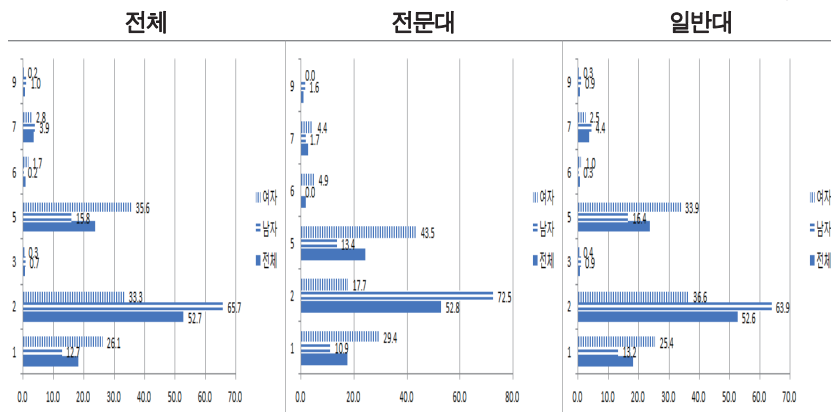
## 9)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특성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52.7%)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23.8%)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 중 남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비중(72.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비중(43.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4] 2018년 GOMS 정보통신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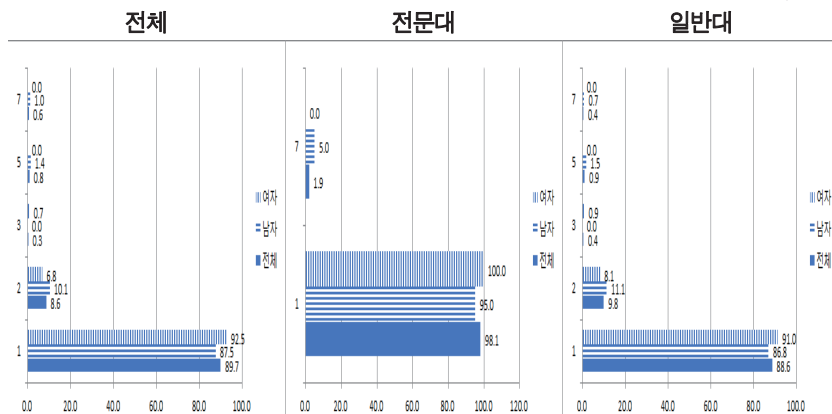
## 10)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특성상 경영·사무·금융·보험직(89.7%)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8.6%)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출신의 신규 취업자 중 남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95.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모두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5] 2018년 GOMS 금융 및 보험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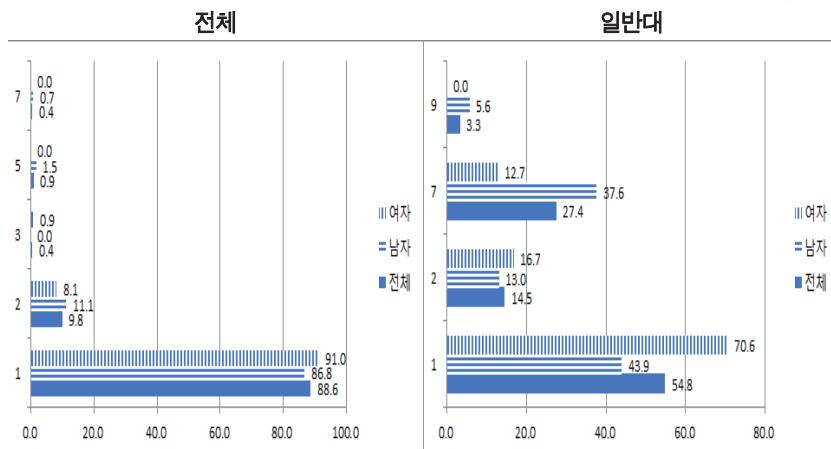
## 11) 부동산업

부동산업 특성상 경영·사무·금융·보험직(88.6%)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업에 신규 취업한 남성 중 86.8%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으로 나타났고 여성 또한 같은 직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일반대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신규 취업자 중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3-46] 2018년 GOMS 부동산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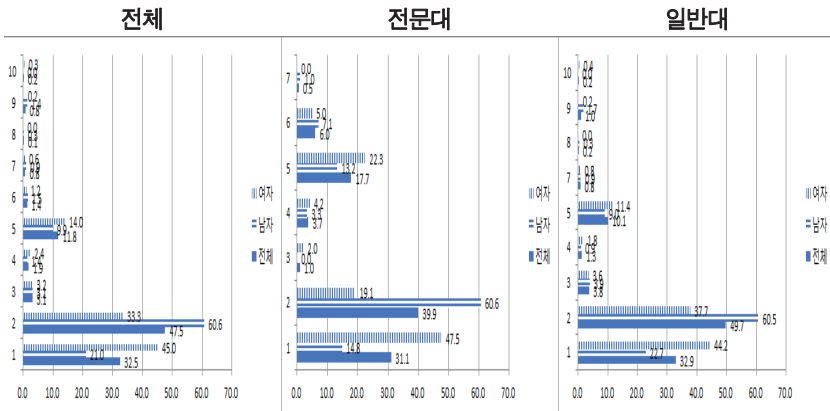
## 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특성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47.5%)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60.6%)에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에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45.0%)에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문대의 경우 남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60.6%)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47.5%)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일반대의 경우 전문대와 같이 남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비중이 높았고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남성은 연구와 기술 관련 일에 종사할 확률이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무 관련 일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7] 2018년 GOMS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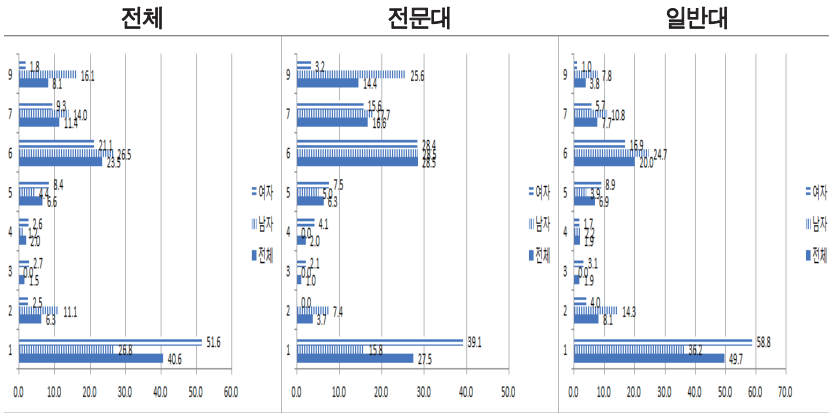
### 1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경영·사무·금융·보험직(40.6%)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문대의 경우 남성은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28.5%)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39.1%)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일반대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8] 2018 GOMS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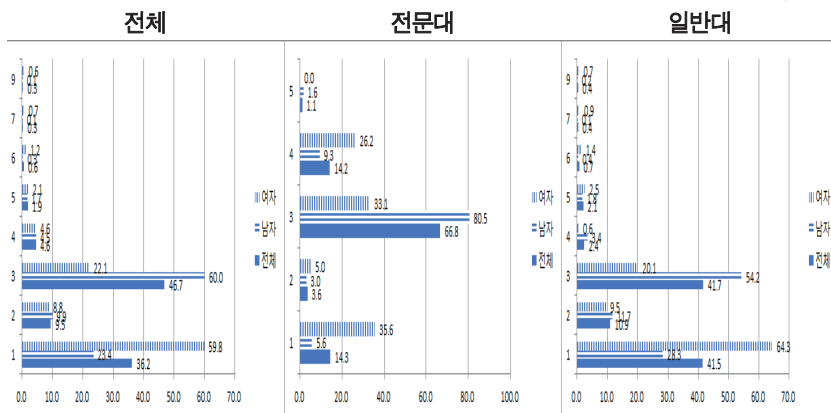
### 1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에서는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46.7%)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60.0%)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여성 경영·사무·금융·보험직(59.8%)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문대의 경우 남성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80.5%)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35.6%)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일반대의 경우 남성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54.2%)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64.3%)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9] 2018년 GOMS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15) 교육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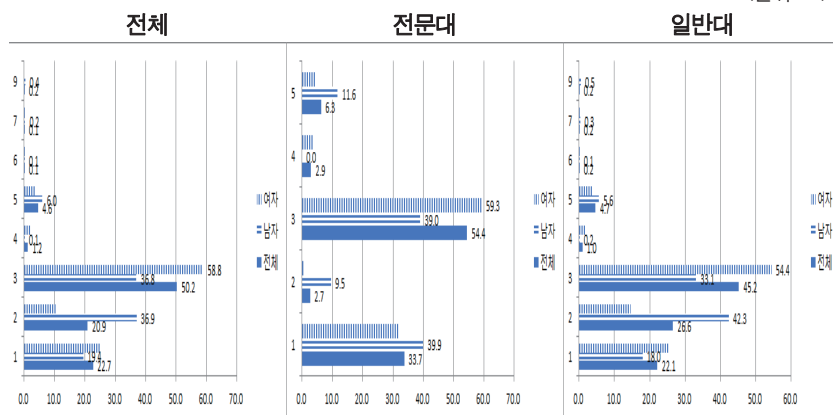
교육 서비스업에서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50.2%)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36.9%)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여성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58.8%)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문대의 경우 남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39.9%)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59.3%)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일반대의 경우 남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33.1%)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여성 중 54.4%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0] 2018년 GOMS 교육 서비스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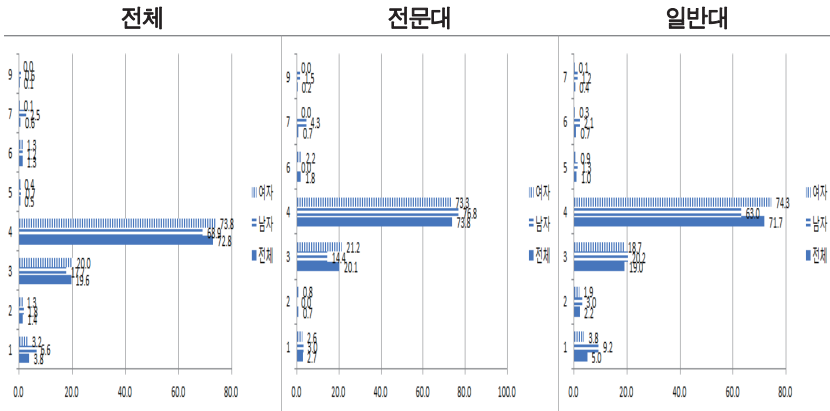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보건·의료직(72.8%)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와 일반대 모든 대학 유형에서 보건·의료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보았을 때도 보건·의료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1] 2018년 GOMS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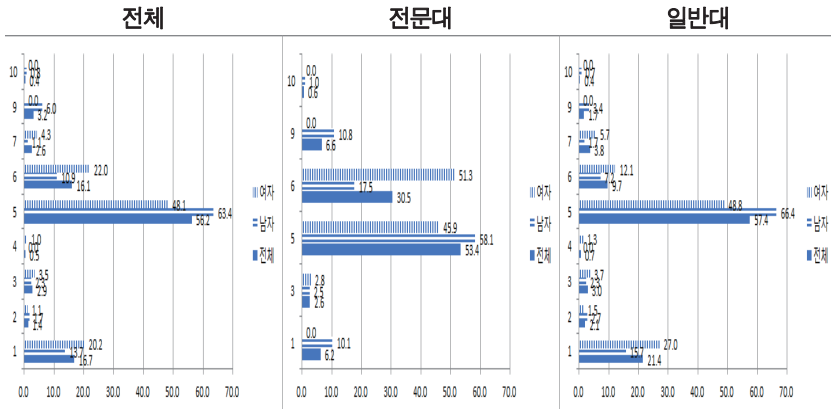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는 산업의 특성에 맞게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56.2%)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와 일반대 모든 대학 유형에서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보았을 때도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2] 2018년 GOMS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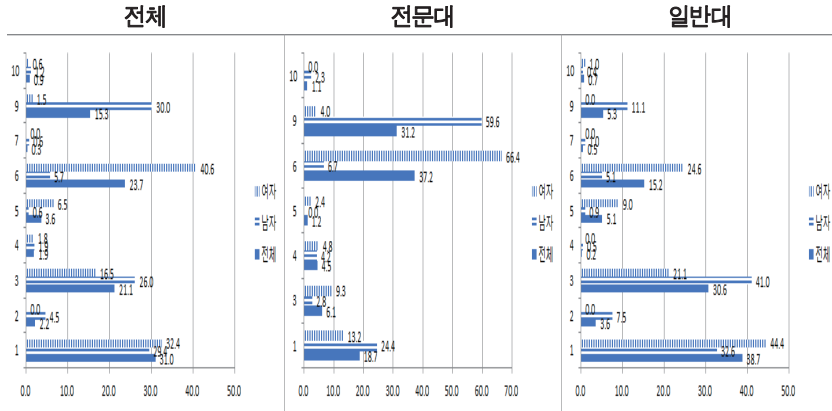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31.0%)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종사자 비중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의 경우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일반대는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남성과 여성 간 직무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대학 유형에 상관없이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3] 2018년 GOM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주: 직업은 KECO분류를 적용함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3.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4. 보건·의료직, 5.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7.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 건설·채굴직, 9. 설치·정비·생산직, 10. 농림어업직

산업 직업 모름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제4장

# 대졸자 취업 현황과 정책 지원 방향

### 제1절 Focus Group Interview 목적과 대상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고자 한다. 대학 유형별 신규 취업자와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졸자의 취업 현황과 준비 과정을 심층 인터뷰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다.

앞장에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8~2018년 대졸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대졸자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취업 전후 상황의 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정량적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다. 또 2018년 9월 조사 시점까지 비경제활동이었던 대상자가 현시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시점 격차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FGI 대상자는 신규 취업자와 대학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신규 취업자 선정은 앞서 살펴본 대졸자이동경로조사 내용 결과를 바



탕으로 그룹을 형성하였다. 대학 졸업 후 16~24개월이 지나고 현 직장이 첫 직장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대와 일반대 그리고 대학 유형별로 진입률이 높은 상위 3개 산업 업종으로 구분해 총 6개 집단을 구성하였다. 정량적 데이터 결과에서 파악할 수 없는 속성을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 대졸자의 취업 전후 상황을 가장 많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대상은 대학 취업지원센터 담당자일 것이다. 대졸자가 겪는 취업 절차와 변화를 장기간 관찰할 수 있는 집단이다. 나아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성을 체감하는 대상이기도 하므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대와 일반대로 구분하여 심층조사를 수행하였다.

<표 4-1> FGI 참여자 그룹 구성 및 인원

그룹	그룹 구성	참여 인원
1.	전문대 졸업자 중 제조업 종사자	7명
2.	전문대 졸업자 중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6명
3.	전문대 졸업자 중 보건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6명
4.	일반대 졸업자 중 제조업 종사자	7명
5.	일반대 졸업자 중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6명
6.	일반대 졸업자 중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	6명
7.	전문대, 일반대 취업지원센터 담당자	4명

신규 취업자 대상으로는 앞서 살펴본 정량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유형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의 과정과 재직 현황 등 주요 내용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그 밖에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계열별 특성과 관련해서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학 취업지원센터 담

당자 대상으로는 대학 취업지원센터와 지원프로그램 현황, 대졸자의 취업 현황을 질문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수집했다.

<표 4-2> FGI 참여자 인터뷰 주요 내용

대상	질문	주요 내용
신규 취업자	졸업 전 취업 준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 전 희망한 일자리 특성</li> <li>- 산업 및 직무에 대한 주요 정보 획득 경로 및 내용</li> <li>- 재학 중 취업을 위한 활동 내용</li> <li>- 복수 전공, 휴학 경험 여부와 그 이유</li> <li>-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만족도</li> <li>- 취업 준비 과정 중 어려웠던 부분</li> <li>- 취업 지원 횟수와 결과</li> <li>- 취업 목표치 조정 여부와 조정 방향 내용</li> </ul>
	현재 직장 현황 및 취업 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직장 업종과 담당 업무</li> <li>- 현재 직장 선택에 영향을 끼친 요인</li> <li>- 현재 직장 만족도</li> <li>- 취업까지 걸린 기간과 공백기 활동</li> <li>- 주변 동일 계열 혹은 전공자의 취업 업종과 직무</li> </ul>
취업지원 센터 담당자	취업지원센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구성 현황과 담당 업무</li> <li>- 취업지원 대상자</li> <li>- 취업지원프로그램 내용과 특징</li> </ul>
	대졸자 취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계열별 취업 현황(취업률, 주요 산업군 등)</li> <li>- 전공계열별 취업 소요 기간</li> </ul>
	지원 및 정책적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혹은 학과에 취업지원을 위한 요청 사항 의견</li> <li>-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 사항 의견</li> </ul>

## 제2절 전문대 취업 현황

### 1.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 준비 과정

#### 1) 취업 준비 시점과 준비 활동

전문대의 경우 입학 직후부터 취업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였다. 학과에 따라 취업과 직결되는 필수 수업과목이나 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가 취업을 준비할 때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회사 홈페이지, 정보 공유 카페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취업 정보 취득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반면에 보건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온라인 경로보다는 교수, 선후배 간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탐색하며 실습 현장에서 직접 실무자에게 정보를 얻는 경우가 더 많다고 답하였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항목은 공통으로 어학 성적, 자격증 보유, 포트폴리오를 꼽았다. 전공과 직무 일치도에 따라 중요시하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면 항공정비사는 면허가 없으면 취업하기 어려우므로 자격증이 필수적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실습 평가나 실습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전문대는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대학으로서 일반대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기간이 짧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 돌입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취업을 위한 교과목 편성,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자격증 과정, 실습 과정으로 학사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는 경우 구인·구직사이트를 활용하기보다는 교수나 선후배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취업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시점]**

“시각디자인은 포트폴리오를 1학년 때부터 준비하고 있죠.”

“회계 쪽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아예 자격증 수업 과목이 있었어요.”

“카드 쪽도 2학년 때부터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부터 준비가 시작돼요.”

“과목이 거의 모든 게 승무원이랑 관련 있어서 수업 듣는 거 자체가 취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2년제고 과도 전공이 2개여서 1학년 때부터 활동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요.”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작업치료사 전용 정보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항공정비사 워너비 카페’ 라는 곳에서 정보를 좀 얻었어요.”

“정보는 교수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고 선배님들도 오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라 막상 나가면 너무 달라서요.”

“학교에 과 동아리가 있는데 많게는 저보다 20학번 차이 나는 선배님도 오세요. 많은 선배가 여러 곳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 갈 때마다 정보가 쏟아져서 따로 찾아볼 필요 없이 거기서 충당되었습니다.”

“교수님이나 취업한 선배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제일 많죠.”

“1,000시간 동안 실습을 해야 해서, 실습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많이 얻어 와요.”

**[취업 준비 활동]**

“항공정비사 면허가 없으면 항공정비 쪽으로는 취업을 하기 어려워요. 토익점수도 커트라인이 있어서 준비 좀 해놔야 돼요.”

“회계 쪽은 자격증이 거의 80%, 학점이 20% 정도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실습할 때 썼던 수업 계획안이나 수업교구 같은 거 모아 뒀다 포트폴리오로 제출해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실습평가나 실습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느 직무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게 따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고 어린이를 상대해야 되니까 긍정적인 모습이나 좋은 인성을 잘 보여줘야 돼서 면접도 되게 중요해요.”

“병원은 3.3 정도로 커트라인을 두는데 좋은 곳은 3점 후반대나 4점 초반대가 많이 뽑혀서 학점 관리가 중요해요.”

## 2) 복수전공, 휴학 경험 및 진학 여부

전문대에서는 취업을 위한 복수전공, 휴학을 경험한 사람은 드물었다. 전문대로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하지 않았지만, 전공 심화 또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했다는 일부 응답자는 취업 때문이 아닌 학력 콤플렉스, 연봉 차이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

### [취업을 위한 휴학]

“전공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1년 휴학해서 세무랑 회계 자격증 준비를 했어요.”

### [진학 여부]

“학력 세탁하고 싶어서 대학원 갈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2년제랑 일반대의 연봉 차이가 크다 보니까 편입을 생각해 봤어요.”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걸 채우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고 싶었어요.”  
 “호봉을 올리려고 전공심화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가 덜 되었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보조교사 하면서 실무적인 거 배우고, 이론적인 건 야간 다니면서 배우려고 했죠.”

---

##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전문대 참여자 집단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이용자가 있었는데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해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가 FGI에 참석하였다. 이 참여자의 경우, 졸업 후 새로운 분야를 배워 전공에 적용한 사례였다. 그 외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지원금,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기대한 수준보다 프로그램 내용이 질적 면에서 떨어져 아쉬웠다고 답변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이외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용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여한 사례였다. 현직자가 현장의 실제 정보를 제공해 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대 참여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취업지원센터 담당자의 면담

에서 밝혀졌듯이 전문대는 주로 학과에서 교수의 주도로 취업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보인다.

---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취업성공패키지 통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이란 면접 준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꾸준히 진행하면 지원금이 계속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알선해 준 학원을 간 적 있는데 시각디자인 쪽에서는 퀄리티가 떨어져서 별로였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해서 코딩 배우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취직했어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취업성공패키지를 했는데 돈 주는 건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취업 시즌 되면 대학병원 근무하는 선생님들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어요. 병원별로 장단점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요.”

---

### 4) 준비 과정 중 애로사항

참여자 대부분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으로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꼽았다. 직무와 관련된 유사 경험을 기술하거나 타 지원자와 차별화하여 내용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자기소개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면접이었다. 인상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외모나 목소리, 면접에 필요한 예의범절을 혼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그 외에는 학원비와 자격증 취득 비용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 자격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실습 과정, 진로 설계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

#### [취업 준비 과정 중 겪었던 애로사항]

“직무 경험이 없어서 자기소개서에 뭘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항공사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아서 자기소개서 형식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눈에 띄게 쓰기가 어려워요.”

“3년 동안 준비한 걸 한 번에 함축해서 자기소개서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

“서비스직이다 보니 외모나 목소리가 중요해서 그걸 신경 쓰느라 면접 준비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유치원 실습을 나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고 수직적이어서 진로를 바꿔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어요.”

“자격증 때문에 휴학한 이유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학원비나 시험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좀 됐거든요.”

“면접 같은 경우에도 옷매무새를 다듬거나 예의범절 같은 걸 혼자 알아서 해야 해서 좀 힘들었어요.”

“AI면접 볼 때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데 배우지 않은 걸 물어봐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 5) 취업 지원 횟수와 목표치 조정 여부

전문대는 비교적 단기간에 취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 지원이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선배나 교수 등 지인을 통해서 혹은 실습 과정에서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원 횟수가 30회, 70회인 응답자는 전공과 다른 분야로 구직한 경우였다. 전공과 다른 분야의 구직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번 지원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기업 규모를 낮추면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고 대답하였다.

### [취업 응시 횟수]

“서류 7군데 넣어서 5군데 면접 보러 갔어요. 그중에서 하나 붙어서 들어갔어요.”

“70번 넣었는데 10군데 정도 연락이 와서 인적성 검사한 적도 있고 면접 보러 간 적도 있어요.”

“3번 넣어서 2번 떨어지고 지금 합격한 곳이 처음으로 합격한 곳이에요.”

“바로 한 번 넣은 거 같아요.”

“30번 정도 넣었는데 면접은 4번 봤고, 대학교 교직원이라는 타이틀이 탐이 나서 이쪽으로 가게 됐어요.”

“면허 나오고 나서 선배에게 연락이 와서 같은 회사에 지원했는데 바로 돼서 거기 갔어요.”

“5-6군데 지원했는데 서류가 다 붙어서 면접 다 가 보고 골라서 갔어요.”

**[취업 목표치 조정 여부]**

“중견기업 가고 싶었고 중소기업에서도 이름 있거나 큰 데 가고 싶었는데 전공자가 아니라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만 하는 데 가자’ 했던 것 같아요.”

“30번 정도 응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보는 눈이 점점 낮아졌어요.”

“저희는 특이한 게 좋은 병원이 공고가 먼저 나서 순서대로 지원하고, 대형병원 안 되면 다음 병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어요.”

## 2. 전문대 신규 취업자 재직 현황

### 1) 입사 이유와 직장 만족도

첫 직장을 선택한 이유에는 일과 개인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워라벨(Work-life balance)이 가장 많았다. 정시출퇴근, 집과 회사 간 거리, 복지제도도 많이 꼽았는데 워라벨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회사의 명성, 급여, 연봉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직장 만족도는 5점 척도로 보았을 때 평균 3.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만족하는 요인에는 워라벨을 이룰 수 있는 정시퇴근, 집과 직장 간 거리, 자유로운 휴가 사용, 조기퇴근 제도를 꼽았으며 동료와의 관계,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추가적인 답변으로 제시되었다. 워라벨이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980-90년대 중반 출생자들은 소위 밀레니얼세대로 불리는데 이들은 집단적 가치보다는 개인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일과 생활을 분리해 퇴근 후 개인적인 삶을 살기 원하면서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이다.

불만족한 요인에는 CEO의 경영 능력 부족, 잦은 야근, 업무 능력 성장 한계, 직장이 멀리 위치 등 이유가 있었다.

**[입사 이유 및 직장 만족도]**

“프리랜서라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입사했고 동물들이랑 노는 것도 적성에 너무 맞고 급여도 마음에 들어요.”

“안정적이고 급여도 괜찮고 출근시간이 오전 7시지만 퇴근도 오후 3시면 해서 자기 개발할 시간도 많아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는 근무형태가 교대근무라 GT가 좋은 직장을 선호하고 출퇴근 거리도 중요해요.”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이 조기퇴근 제도도 있고 상여금도 있어서 이곳을 선택하게 됐어요.”

“연봉이 생각한 수준 이상이라서 입사했고, 복지도 좋지만 남초 회사라서 여자로 다니기 조금 외로운 부분이 있어요.”

“조직문화나 회사분위기는 좋은데 대표가 경영을 못해서 급여에 악영향을 줘요.”

“네임밸류 보고 들어갔는데 워라밸은 너무 좋지만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심하고 업무가 너무 단순해서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급여는 좋은데 워라밸이 생각보다 별로고 오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 2) 동일 전공 졸업자 취업 현황

참여자들과 동일한 전공으로 졸업한 주변 취업 현황을 물었다. 대부분 전공과 연관된 직종에 종사한다고 응답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직종으로 취업하는 전공의 경우에는 관련 업계의 불황으로 일자리 부족, 불명확한 비전을 원인으로 이야기하였다.

### [동일 전공 졸업자 취업 현황]

#### - 전공과 일치한 직종으로 취업

“물리치료학과는 90% 이상은 물리치료사가 돼요.”

“사무회계는 90% 이상이 다 가는 거 같아요. 경리, 경영관리, 인사, 재무, 세무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 - 전공과 불일치한 직종으로 취업

“취업문이 너무 좁아서 다 가고 싶어는 하는데 전공 살려서 가는 비율은 10~20%도 안 될 거 같아요.”

“무용 쪽이 생각했던 것도 그렇고 미래가 일단 너무 없어요. 정확히 어떤 일을 정해서, 유아교육과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데 저희 무용과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고생한 거에 비해 너무 없기 때문에 다들 돈 벌기 위해서 다른 걸 찾아다니거나 디자인 쪽으로 갑자기 변형해서 간다든지 해요.”

## 제3절 일반대 취업 현황

### 1. 일반대 졸업자의 취업 준비 과정

#### 1) 취업 준비 시점과 준비 활동

일반대의 경우, 대부분 4학년 때부터 취업을 준비했다고 응답하였다. 일자리 정보를 탐색하는 경로는 구인·구직사이트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같은 직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 필요한 자격증, 채용공고 등 정보를 공유한다고 언급하였다. 그 외에는 취업 준비 동아리에서 정보를 교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반대 참여자들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인턴 활동이라는 데 대부분의 동의가 있었다. 인턴 활동 여부에 따라 서류 합격이나 면접에 영향을 끼친다고 대답하였다. 인턴이 아니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전문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인턴 활동 다음으로는 어학 성적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외에는 자격증, 자기소개서, 면접, 학점관리, 포트폴리오가 제시되었다.

####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 탐색 방법]

“‘사람인’이나 ‘스펙업’에서 공고 많이 보고 ‘독취사’ 같은 취준생 카페에서 취업 노하우를 알아보는 편이죠.”

“항공사 준비 동아리에서 주로 정보 교환을 했고, 그 외에도 인터넷 검색을 해서 취업 정보를 찾았어요.”

#### [취업 준비 활동]

“인턴 활동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턴 경험이 몇 개월이라도 없다면 따라 서류 합격률이 달라지더라고요.”

“인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무직에 가도 복사하는 일 하나 몰라서 좀 곤란했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를 해 보든지 아니면 교환학생을 갔다 오든지 대외활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진행되는 고용 디딤돌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마케팅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으니까 면접관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직무별 자격증은 있으면 당연히 좋고 마케팅이나 경영 쪽은 관련 학회 참가가 중요한 편이에요.”

“구매팀 직무 특성 상 영어를 쓸 일이 있어서 어학 능력 필요하죠.”

“자기소개서랑 면접 준비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스테디에도 참여했었어요.”

“전공을 불문하고 기초적인 어학 실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2) 복수전공, 휴학 경험 및 진학 여부

복수전공 여부에는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인문 및 상경계열에서 특히 취업을 위한 복수전공을 많이 하고, 계열까지 바꾸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대답하였다. 그 외에 계열에서는 복수전공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에는 전공 공부량이 많아 복수전공까지 베풀기 때문이라 응답하였다.

취업을 위한 휴학을 한 경우는 일부 있었다. 어학 성적, 자격증 취득과 공무원 준비라고 대답하였다. 대학원 진학은 취업이 되지 않아 도피성 선택으로 고려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미 대학원을 진학한 경우에는 일부 직종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거나 우대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대답하였다.

### [복수전공]

“인문계열 학과들은 대부분 상경계, 특히 경영학과 복수전공 많이 하고 드물게 심리학과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SCSC라고 컴퓨터공학 쪽으로 전공 계열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았죠.”

“문과 친구들은 경영학과 반드시 복전하고 C언어를 교양으로 듣고 서울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문과한테도 TO를 쫓아서 복수전공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디자인 쪽 부전공이나 전공을 바꾼 친구도 있고 건축대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다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죠.”

“국어국문학과 복수전공 했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국문학과도 가고 싶었는데 국문학과 진로 특성상 안정적인 직장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갔는데 계속 미련이 남아서 공부라도 해 보자 해서 복수전공 했어요.”

“행정학과는 대부분 공무원을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딱히 전공계열을 바꾸진 않아요.”

“컴퓨터공학과는 자기 전공 공부도 베풀어서 복수전공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화학과에서는 신소재나 생명공학 쪽 복수전공이나 이중 전공 많이 있었어요. 전공계열을 바꾸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한 휴학]**

“3학년 1학기 때 한 번, 4학년 1학기 때 한 번 6개월씩 총 1년 동안 휴학했어요. 인턴이랑 자격증 준비랑 토익 공부했어요.”

“1년 휴학하고 그 기간 동안 8개월 어학연수 갔다 왔습니다.”

“1년 휴학하고 1년 유예했는데 휴학하는 동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공부했고 유예할 때는 공기업 준비 했어요.”

“3학년 끝나고 했어요. 자격증 취득도 할 겸 쉬었던 거라서 자격증은 그때 준비를 하고 땀어요.”

“2학년 끝나고 전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휴학했는데 다 놀았어요. 1년 정도 엄청 열심히 아니고 설렁설렁 하다가 시험 치고 나머지 1년을 그냥 보냈어요.”

**[진학 여부]**

“저는 취업 안 되어서 방법 없나,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대학원 갈까 생각했어요.”

“원하는 곳에 취직을 못하면 박사를 해 볼까 생각했어요.”

“저도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사회복지 기관에서 상급자로 진급을 하려면 최소 석사, 박사는 있어야 해요.”

“보통은 나오면 연구원이나 상담사를 하려고 해도 석사, 박사 전공을 우대하기 때문에 학사로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원 가요.”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용 여부**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참여자의 만족도는 다양하였다. 금전적인 이유로 참여하는 이용자가 많았으며,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구인 공고 제공에 만족을 느꼈다고 했다. 상담사 역량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교내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한 참여자는 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교내 취업과 관련한 교양필수과목은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획일적인 내용 구성으로 흥미가 떨어지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었다. 반면에 형식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취업 노하우를 전달하는 워크숍 혹은 특강 만족도는 높았다.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 취업성공패키지**

“저는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건너뛰고 3단계에서 취업해서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지원금 주는 것도 있고 상담사만 아는 채용공고도 있어서 편했어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서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죠.”

“얕고 넓게 경험을 쌓겠다고 하면 취성패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상담사 분들에 따라 추천해 주는 기업의 질도 좀 다르고, 그래도 이력서 넣을 때 도움이 좀 됐어요.”

“주변에서 돈 받으려고 취성패를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3번 가야 돈을 주는데 은근 귀찮아서 저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추천해 주시는 분 역량이 많이 차지해요. 신규를 하는 분은 거의 못 해 주시고 경력 있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아는 기업에 추천해서 넣고 한대요.”

**-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취업박람회 참여한 적 있는데 별로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처음엔 흥미로웠는데 회사마다 하는 얘기가 다 똑같더라고요.”

“취업박람회는 학교에서 큰 규모로 진행했는데, 기업 실무자와 회사에 대해 깊이 물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어요. 가고 싶은 부서의 실무자가 없으면 정보를 얻는 데 제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교내 취업지원센터 이용해 봤는데 학년별로 팀을 제대로 나누지 않아서 효과는 크게 못 봤어요.”

“실제 유명 PD가 와서 특강을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분야에 관심 있던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취업지원센터에서 소개한 서울시 일자리 카페에서 하는 다양한 특강을 많이 참여했었는데 그중에서도 AI 면접 대비하는 특강이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자소서 첨삭부터 시작해서 면접 준비까지 취업지원센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모의면접이 제일 좋았어요.”

**- 대학교 취업 관련 과목 수강**

“학생마다 흥미가 다른데 획일적으로 수업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교양필수라서 취업 특강을 들긴 들었는데 딱히 크게 도움은 안됐어요.”

“4학년 때 했던 취업실전 워크숍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형식적인 준비 말고 실전적인 팁을 많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 4) 준비 과정 중 애로사항

가장 어려움이 갖는 부분은 면접 준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금전적인 부분이었었는데 응시료,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면접 코칭을 위한 비용 측면에서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인적성검사, 어학 점수, 긴 채용 간격, 부족한 준비 시간 등 다양한 사항을 언급하였다. 일자리 경쟁이 높아지면서 기업에서는 적합한 합격자를 뽑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면서 취업준비생이 갖춰야 하는 요건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

##### [취업 준비 과정 중 겪었던 애로사항]

“자격증이나 필기시험은 노력한 만큼 올라가는데 면접은 아무리 잘해도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영향을 끼쳐서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력서나 면접 준비를 할 때 지원하는 기업에 맞춰서 일일이 분석하고 직무마다 질문이나 답변을 각각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회사마다 인적성 시험이 조금씩 다르고 문제도 많아서 서류 붙고 단기간 내에 준비해야 돼서 많이 힘들었어요.”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적성문제를 잘 풀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의 토익 요구 조건을 맞추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토익 응시라든지 토익 스피킹만 해도 7만 7천 원인데, 아르바이트 하루 종일 해야 7만 7천 원 나오거든요. 저는 부모님 지원 안 받아서 돈 버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면접 코칭 같은 것도 잘 못 받았죠.”

“저는 가고 싶은 분야가 확실해서 지원할 회사가 좀 한정되어 있는데, 전부 다 일 년에 공고가 한두 번밖에 안 뜨니까 기다리기 지쳤어요.”

“저는 그냥 한국 취업시장 자체가 너무 준비해야 할 게 많은 거 같아요. 그걸 다 하기엔 시간도 없는데 자소서 쓰는 기간은 그 공고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걸 다 쓰려면 거의 밤새면서 써야 하고 시험도 준비해야 하고 너무 할 게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

## 5) 취업 지원 횟수와 목표치 조정 여부

일반대는 전문대보다 취업 지원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교수 주선으로 입사한 경우를 제외하고 10~100회 이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지원하는 과정에서 설정된 목표보다 연봉, 회사의 명성, 직무 내용, 기업 규모 측면에서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

### [취업 응시 횟수]

“30개 정도 넣었는데 공채 기준으로 15개 정도 면접 본 것 같고, 하나 붙어서 거기 입사했어요.”

“자소서 쓴 건 100건 넘는 것 같고 최종까지 간 건 열 몇 개 있었고 그중에 최종합격 3~4개 됐었는데 그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공채 같은 건 잘 안 썼고 주로 상시 채용 나오면 썼던 거 같고요. 한 20군데 썼던 거 같고 네다섯 군데 붙었고요. 면접은 가면 거의 됐던 거 같아요.”

“저는 10군데 지원을 했는데 면접도 절반 이상은 합격했어요.”

“100개 넘게 지원해서 15군데 면접 봐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서 일을 먼저하고 나중에 계약을 맺었어요.”

### [취업 목표치 조정 여부]

“연봉도 낮추고 원래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에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줄었어요.”

“원래 1~2학년 때는 자신감이 차서 구글코리아 이런 데까지 했다가 3~4학년 때 대기업만 가도 생규 하다가 거기도 못 가니까 중견 상장사라도 가자 이렇게 낮췄어요.”

“회사 네임밸류랑 연봉이 조금씩 조정됐죠. 그곳에서 날 보지 않으면 조금 더 밑층에도 넣고, 어쨌든 보험은 있어야 하니까 그랬던 거 같아요.”

“저는 직무를 포기했던 거 같아요. 하고 싶은 직무가 있었는데 안 된다, 어렵다 했을 땐 좀 더 많이 뽑는 직무를 넣고 그랬어요.”

“저는 많이 하향됐는데 처음에는 대기업이랑 메이저 공기업만 넣었어요. 근데 NCS랑 인적성 시험에서 거의 다 떨어지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중견도 넣고 공공기관도 넣고 하다가 지금 다니는 데 합격했습니다.”

---

## 2. 일반대 신규 취업자 재직 현황

### 1) 입사 이유와 직장 만족도

입사 이유로는 연봉과 워라벨(Work-life balance)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 위치, 정시출퇴근, 복지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다. 여성 참여자의 경우, 보건 휴가, 자유로운 연차 사용, 패밀리 데이 같은 복지 측면을 많이 언급하였다. 직장 만족도는 5점 척도로 보았을 때 평균 3.7점(미응답자 제외)으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요인에는 입사 이유와 동일하게 연봉과 워라벨이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관계, 빠른 진급,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답변하였다. 일반대 참여자 반응도 전문대 참여자와 매우 유사하였는데 밀레니얼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불만족 요인에는 거주지와 먼 거리, 불투명한 비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성과, 업무에서 성장의 한계, 딱딱한 조직문화를 이유로 꼽았다.

---

#### [입사 이유 및 직장 만족도]

“지금 있는 곳이란 제의가 왔던 다른 곳이란 연봉이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갔어요”

“전체적으로 연봉이란 규모, 업력이 괜찮아서 입사했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데, 내일채움공제가 안 되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업무강도가 높은 편인데 여기는 칼퇴를 할 수 있어서 지원했고,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회사를 고를 때 농협같이 근무지가 어디로 발령이 날지 모르는 곳은 피했고, 그 중에서 연봉 괜찮게 주는 데 끌려서 간 것 같아요”

“문화생활비 지원해주고 일찍 퇴근하는 날 있고 이런 복지 관련된 혜택이 좋았어요”

“이 분야로는 회사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보니까 멋있어서 들어 왔고 대부분 만족하는데, 다른 회사에 비해 나이가 많은 분이 많아서 분위기가 좀 자유롭지 못한 점이 있어요”

“데이터 분석 전공 자체가 구인이 별로 없어서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에 들어왔다는 거에 만족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들어오는 분야라서 좋아요”

“IT 기업이라 회사 분위기가 자유롭고 혼자서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만큼 피드백도 없어서 성장하기에 적합한 회사인지 고민이 좀 돼요”

---



## 2) 동일 전공 졸업자 취업 현황

참여자들과 동일한 전공으로 졸업한 주변 취업 현황을 물었다. 산업 업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산업 직군으로 진출하나 대부분 전공과 연관된 직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대학원 진학, 공무원, 공기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과학기술업 분야에서는 대학원 진학이 가장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지만, 전공과 연관되어 취업한다고 답변하였다.

---

### [동일 전공 졸업자 취업 현황]

#### - 제조업

“IT계열도 많이 가고 컴퓨터공학 전공하면서 대부분 그쪽으로 가지만 아닌 사람도 많더라고요. 되게 여러 직종에 있는 거 같아요. 일반 사무직도 있고”

“저희는 어학이다 보니까 교육 쪽이나 번역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긴 한데 제일 많이 간 건 여행사였거든요”

“저희 쪽도 산업은 다양하고 직무 측면에서는 영업, 마케팅 쪽이 많아요”

“과 특성상 대학원 간 친구가 엄청 많고, 선배는 배터리 연구 쪽이나 제약회사 연구, 아니면 생산직 쪽 많이 간 거 같아요”

“회계사 된 친구들이 잘됐다고 생각하고, 고시 준비도 많이 해서 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된다든지 대기업 간다든지 하죠”

#### - 교육 서비스업

“주로 대학원 많이 가는 거 같고요. 전공을 살리기 되게 애매한 과라서 저희는 다양하게 빠져요. 아나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전공을 살리는 친구들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는 거의 대학원이 필수라 진학도 많이 하고요. 유니세프나 초록우산 같은 NGO 단체도 많이 들어가고 저같이 사회복지 기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공무원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거의 3분의 1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그나마 많은 쪽이 은행원으로 가거나 교사 쪽으로 많이 가는 거 같아요”

“제 주변 대학원 진학하거나 유학 가거나 아트 페어에서 괜찮게 된 친구들은 상업 작가 생활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일 잘된 애들은 교직 이수해서 교사하는 친구들이죠”

“제 주변 친구들은 승무원 준비 많이 했고 남자들도 그렇고 근데 경찰 된 친구들도 은근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공무원 준비하는 거 같아요. 과 특성상 영어영문학과 솔직히 다 영어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이걸 살릴 수 없는 학과라서 다 전공 살리는 친구 한 명도 못 봤어요”

---

---

- **전문과학기술업**

“컴퓨터공학 개발자가 되거나 일반 회계 사무 업무를 보는 딱 두 가지로 정확하게 갈립니다.”

“화학과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넓어서, 분야가 되게 다양해서 선택해서 많이 가시는 거 같아요 이 분도 화학과인데 석유로도 가고 제약회사 가는 사람도 많고 화장품도 많고 분야가 다양해요”

“저희는 80%가 대학원 가고 20%는 전공을 살리지 않고 가요”

“저희 과는 대부분 대학원 가고요 나머지 한 40% 대학원, 30%는 공무원, 안정적 이라서 공무원 준비하고 나머지는 각자 대기업 들어가요”

---

## 제4절 취업지원센터 담당자 면담 결과

### 1. 취업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현황

#### 1) 취업지원센터 지원 대상

취업지원센터는 대부분 고학년, 졸업생에게 초점을 두고 취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대학 유형별로 지원 대상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에는 차이가 있다. 전문대의 경우, 학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전공별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학과 차원에서 취업지원서비스가 잘 이루어져 졸업생, 비전공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위주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 재학생 대상으로는 채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도라고 응답하였다.

---

#### [취업지원 대상]

“[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4학년이나 졸업생, 취업생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3학년 학생 중에서는 인턴하는 학생들이 간혹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1학년은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대학도 마찬가지로 4학년 학생들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학년 학생들도 상담에 끌어들이고 싶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춘 상담 도구도 개발하고 있고요.”

“[다] 대학은 전문대다 보니까 졸업생들 대상으로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재학생들에게도 채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재학생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하반기에는 그 친구들에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라] 대학은 2년제 학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기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 저희는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나 1학년 신입생들 모두에게 취업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취업지원서비스나, 산학협력도 잘되어 있어서 오히려 비전공 분야로 취업하려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

## 2) 취업지원프로그램 종류 및 특징

일반대의 경우, 취업을 앞둔 4학년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나 최근 들어 직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저학년 상담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상담 도구를 개발하고 입학부터 담당 상담사를 배정하는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스킬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문대에서는 1학년이 진로 탐색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취업이나 직무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인 입사 지원서 클리닉, 취업 특강, 자격증 과정에는 졸업 예정자가 많이 참여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하였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일부 프로그램에서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AI 이력서 경진대회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표 4-3> 학교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류

학교명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류
[가]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업 공채에 맞춰서 취업프로그램 운영</li> <li>• 전공이 아닌 산업이나 직무 계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li> </ul>
[나]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별로 진로 상담, 구직 스킬 향상, 취업 알선 진행</li> <li>• 올해는 교과, 비교과로 나누어 보충</li> <li>• 기본적으로 공통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가 있을 때에만 특화 프로그램 신설</li> </ul>
[다]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li> <li>• 현재는 자격증 과정, 서류 작성이나 면접 등 스킬 업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li> <li>• 최근 공공기관 입사를 대비한 소수 정예 엘리트 프로그램 운영 중</li> </ul>
[라]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프로그램, 취업 역량 기르기 프로그램, 직무 역량 기르기 프로그램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 중</li> </ul>

일반대의 경우, 계열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고 응답하였다. 학과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한 후 예산을 배정하여 학과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과 직무

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계열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

#### [취업지원프로그램 종류 및 특징]

“최근엔 AI 이력서 경진대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자가 꽤 많습니다. 작년에는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를 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상담 프로그램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도 대면으로 진행하다가 모바일 앱으로도 만들었어요. 일반 취업 특강들은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었고 진로 토크 콘서트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강사님, 참여하는 사람들도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보니 참여율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저희 센터 차원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학과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응모해서 학과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학과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특강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효용가치를 따져보면 높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공동된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한 회사나 대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돌리기에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중략) …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NCS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걸 넘은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거기에 지원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실제 지원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

## 2. 취업 및 졸업자 현황

### 1) 계열 및 전공별 취업률과 소요 시간

의약계열에 해당하는 간호학과가 취업률이 가장 높고,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공계열의 취업률은 대학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반대에서는 취업률 상위 그룹에 속하는 학과는 이공계열이라 밝혔지만, 전문대에서는 오히려 취업률이 낮은 학과에 속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와 같이 전공과 직무 간 연관성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으나 경영학과, 행정학과, 항공서비스학과와 같이 전공이 직무와 연관성이 낮거나 모호한 학과는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 [계열 및 전공별 취업률]

##### - 전문대

“간호학과는 90% 이상 취업하는 편이고, 유아보육과나 사회복지과도 80% 이상 취업해요.”

“약손피부미용과나 준오헤어디자인학과 같이 취업 보장 맞춤형 브랜드 학과 계열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취업이 잘돼요. [가](일반대)와 반대로 이공계열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항공서비스과랑 호텔관광경영과가 취업률이 낮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관련 사업들이 축소돼서 갈 길을 잃은 친구들이 많아요”

“인문사회계열은 보통 영업지원이나 영업, 회계직종으로 가는 편이에요. 전공을 살리기보다는 직무에 본인을 맞춰서 하는 편이죠”

##### - 일반대

“간호학과는 수요야 100%니까 간호학과는 전부 취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문헌정보학과도 의외로 높은 편이고요. 한마디로 전공이 곧 직무인 과들이 있는데 그런 과들은 취업률이 높게 나오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이렇게 전공이 직무와 연결성이 떨어지는 과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취업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신설된 바이오 분야만 빼고 전자, 전기, 화학, 기계학과 같은 이공계열의 취업률이 대부분 높은 편이고, 사범대나 어문계열 쪽이 안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여학생 취업률이 특히 낮아요.”

“이공계열 학생들이 전공에 맞춰서 직무 선택을 해서 이공계 산업군의 취직률이 높은 편이죠.”

“토목공학과나 건축공학과 같은 이공계 출신들이 관련 기업에 많이 취업하는 편이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3차 병원의 대학 병원 취업을 잘해요.”

---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계열 혹은 전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공계열과 간호학과가 취업소요 기간이 가장 짧고, 사범대와 예체능계열은 취업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난다고 응답하였다.

공학계열은 대학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문대 공학계열은 교육이나 훈련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취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일반대

공학계열은 4학년 때 대부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에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짧다고 밝혔다. 그 외 답변으로는 산학협력이 잘되어 있는 전문대의 학과는 현장실습 때 대부분 취업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

#### [계열 및 전공별 취업 소요 시간]

“이공계열 학생들이 금방 취업하고 특히 기사 자격증을 획득한 친구들이 빨리 회사에 들어가죠.”

“간호학과는 수요가 늘 있어서 일찍 취업하는 편이에요.”

“저희 학교는 산학협력이 잘되어 있어서 의지만 있다면 바로 취업 가능해요.”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가 1년에 1회밖에 없어서 바로 합격하는 게 아니면 시간이 좀 드는 편이죠.”

“실용음악과나 공연예술과는 음반이나 무대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나 컴퓨터정보보안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투자되는 시간이 길죠.”

---

## 2) 전공계열별 취업 분야 특징

인문·사회·교육계열은 산업보다 직무에 초점을 두고 취업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전공과 무관한 직무가 많아 일치도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계열과 아동 혹은 유아교육과는 취업 분야가 가장 뚜렷하였다. 병원 혹은 보육 지원으로 대부분 취업이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다.

이공계열은 대체적으로 전공에 맞춘 직무와 산업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과 같이 산업과 연계된 특정 학과에서는 교수의 주선으로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예체능계열은 계열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취업자, 프리랜서가 많고 이 경우가 오히려 전공과 일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전공계열별 취업 분야 특징]

“이공계 같은 경우는 자기 전공 그대로 직무를 찾아간다고 보면 될 거 같고 인문, 사회, 교육계열 쪽은 솔직히 대중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산업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은 직무를 맞춰서 가는 편입니다. 희망 직무가 있고 그 직무로 채용하는 회사가 있다면 전부 어플라이를 합니다.”

---

“인문이나 사범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엔 학생들이 전공을 살리고 싶은 생각은 많지만 전공 무관 직무들도 많기 때문에 전공에 일치되는 비율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3차 병원 이상의 대학병원에 전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나 보육 지원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공과 맞춰서 직무와 산업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산업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힘으로 거의 관련 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보건계열이나 유아교육과들은 특출나게 정해진 산업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과들은 직무에 가깝지 산업별로 나뉘지 않는 거 같고요.”

“스포츠과학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한 친구 중에서 전공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 같고요. 기타 합격자나 프리랜서로 잡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친구들이 전공과 일치되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방과 후 교사나 트레이너나 개인 코칭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기타 취업자로 빠집니다.”

### 3) 졸업 또는 취업 후 취업지원센터 이용 현황

졸업이나 취업 후에도 이직, 전직, 퇴사 후 재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지원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정부지원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문대는 졸업생 사후관리로 유지취업률을 위해 퇴사를 고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졸업 또는 취업 후 취업지원센터 이용 여부]

“3년 미만으로 근무한 퇴사자들이 이직이나 전직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 형성이 잘된 친구들이 이직 시에 잘 찾아오는 편이고, 퇴사를 원하거나 정부지원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입사 이후 업무나 대인관계 문제로 고민을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 4) 신규 취업자들의 고용 유지 현황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들은 보통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퇴사를 고민하지만, 3-6개월이라는 기간을 잘 넘기면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

##### [첫 입사 후 직장 유지 기간]

“처음 회사 들어간 친구들은 계속 그만두고 싶어 해요. 힘들게 들어왔는데 뛰다놓은 보릿자루마냥 얹혀놓고 일 안 시키니까 회의감 드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설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369법칙이라고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 시기만 잘 버티면 괜찮아진다고 설득을 많이 하고 내일채움공제의 중요함, 이런 걸 많이 일깨워 주죠.”

“초단기 퇴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수시로 퇴사하고 싶다는 연락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1년 이상은 다니고 나오라는 말을 많이 하죠.”

---

많은 대졸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경우, 최근 조기 퇴사율이 높은 현상을 두고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들은 순환보직으로 경력 관리의 어려움, 연봉이나 진급의 실제와 환상의 괴리감, 낮은 성취감이라고 응답하였다.

---

##### [공무원의 조기 퇴사율이 높은 이유]

“지방 근무 특성상 주변 인프라가 없어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 조직에 실망을 많이 하고 순환보직제 특성상 경력 관리가 어려워져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업 특성상 성취감을 느끼기도 힘들고, 기존에 알고 있던 연금제도라든지 호봉, 진급 부분이 실제 공무원 현실과 많이 달라서 퇴사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

### 3. 지원 및 정책적 요구사항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 3가지 의견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먼저, 대학 평가 항목 중에 취업률 항목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에 취업지원센터 담당자 모두 공감하였다. 취업률을 대학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의 질이 떨어지고 특히 학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일반대의 경우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취업 컨설턴트나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취업지원 관련 종사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근무환경이나 급여, 학생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생 쪽에서도 의지했던 선생님의 부재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취업프로그램 운영이 학과와 대학 본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된 프로그램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컨트롤타워를 통해 주어진 예산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 제5절 요약 및 함의

본 장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신규 취업자와 대학교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함으로써 대졸자 취업 과정과 취업 후 현황을 살펴보고 취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요구사항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FGI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문대 집단 결과 요약

전문대를 졸업한 신규 취업자는 대부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대는 직업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학과마다 직종과 직결되는 자격증 취득, 실습 등으로 학사가 운영되기 때문에 초기에 진로가 결정되고 자연스럽게 취업을 준비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전문대 참여자들은 학점, 어학 성적, 자격증,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면접, 실습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이 취업에 필요한 조건으로 밝혔다. 학과에 따라 조건에 따른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직종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간호학과는 어학·학점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병원 규모가 달라지므로 어학 공부와 학점 관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일 자리를 탐색하는 주요 경로는 교수 혹은 선후배나 현장 실무자였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지만 구인 공고 같은 단순한 정보를 얻는 데 그쳤으며 지인을 통해 얻는 정보를 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문대 집단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이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는 재학 중 이루어진 활동과 경험을 직무와 연결하거나 타 지원자와 차별화하여 기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 또한 상대에게 비치는 예의나 목소리 등의 교정, 전공과 무관한 면접 질문에 답변하는 데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었다.

## 2. 일반대 집단 결과 요약

일반대 참여자의 경우 취업을 준비한 시점이 대부분 4학년이라는 점에서 전문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중요한 요소로는 어학 성적과 인턴을 포함한 직무 관련 경험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어학 성적은 취업에서 불문율로 여겼으며, 인턴 활동 여부가 서류 심사와 면접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일반대에서는 취업을 위한 복수전공과 휴학,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복수전공의 경우에는 특히 인문계열과 상경계열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휴학은 계열에 상관없이 어학 성적, 자격증 취득,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휴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원 진학은 취업 실패에 따른 도피성으로 고민하거나 연구원이나 상담사처럼 직업에서 요구되는 학력으로 진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대 집단에서는 일자리 탐색을 인터넷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에서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 정보, 취업 노하우, 회사 내 분위기 정보 등을 교환하고 있었다.

일반대 집단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부분은 면접 준비와 금전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기업 특성과 직무에 맞춰 단기간에 면접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과정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어학이나 자격증 준비로 발생하는 응시료, 자기소개서 첨삭비, 면접 코칭 비용 등 다양한 취업 요건을 맞추는데는 많은 금전적인 비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지원금을 위해 정부가 주관하는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정책 지원 방향 모색

먼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통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분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조기 취업에 성공하거나 취업까지 공백기가 짧은 신규 취업자의 특징으로는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실습이나 인턴을 거쳤다는 점이었다. 또한 취업을 위한 휴학, 졸업 후 공백기에 가장 많이 한 활동 중 하나는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으로 나타났다. 대졸자는 취업에서 산업보다 직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기업에서도 직무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지원제도뿐만 아니라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스킬 등 공통된 내용으로 운영해 중복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갖 시작한 지원자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가 낮은 만족도를 보인 이유는 획일화된 정보 제공, 기대 수준보다 떨어지는 내용이었다.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에 취약한 전공이나 계열, 전공과 다른 새로운 분야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직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취업률의 양적인 평가보다 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가 취업률이다. 학교에서 실행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취업의 질보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함에 따라 학문을 깊이 탐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평가에서 양적으로 측정하는 취업률보다는 학생들이 취업에서 질적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취업 지원 관련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대학 본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에는 취업 컨설턴트, 직업 상담사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가 다양하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구직 발굴,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의 취업지원을 돕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 이는 대학과 학생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는 수립한 취업 지원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FGI에 참여한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는 계열별로 취업 컨설턴트를 배치해 진행하려던 연간 수립 계획이 컨설턴트의 교체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였다.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를 대하는 학생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취업 정보를 서비스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학생에게 양질의 취업 지원을 돕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이와 같은 인식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FGI에서도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 내 취업지원 관련 종사자들에게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 전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용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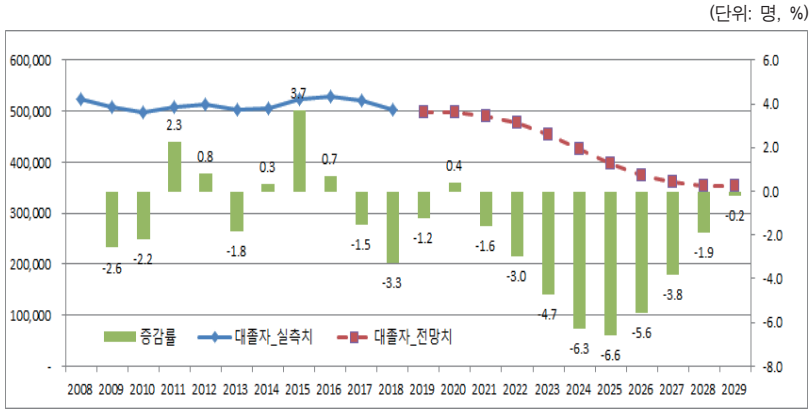
---

# 대졸자 신규 진입 전망

### 제1절 대졸자 신규 공급 현황 및 전망

대학 졸업자는 2014년 505,551명에서 8,880명 감소하여 2019년에는 496,671명으로 전망된다. 2019~2024년은 졸업자가 71,451명 감소하여 2024년 졸업자가 425,220명이고 2024~2029년은 졸업자가 72,057명 감소하여 2029년 졸업자가 353,163명으로 전망되었다. 전망 기간인 2019~2029년의 졸업자는 연평균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2019-2029년 대학 졸업자 전망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8-2019 교육통계연보

주: 졸업자 전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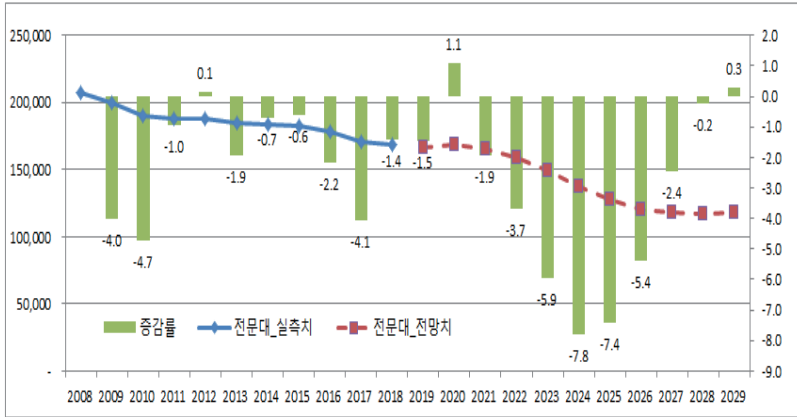
전망 상반기인 2019-2024년의 졸업자는 연평균 3.1% 감소하고, 하반기는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어 3.6%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4년 전문대 졸업자는 183,557명에서 17,230명 감소하여 2019년 166,327명으로 전망된다. 2019-2024년의 졸업자는 28,520명 감소하여 2024년에는 137,807명이고 2024-2029년의 졸업자는 20,055명 감소하여 2029년에는 117,752명으로 전망되었다. 전망 기간인 2019-2029년에는 연평균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상반기인 2019-2024년의 졸업자는 연평균 3.7% 감소하고, 하반기는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어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5-2] 2019~2029년 전문대 졸업자 전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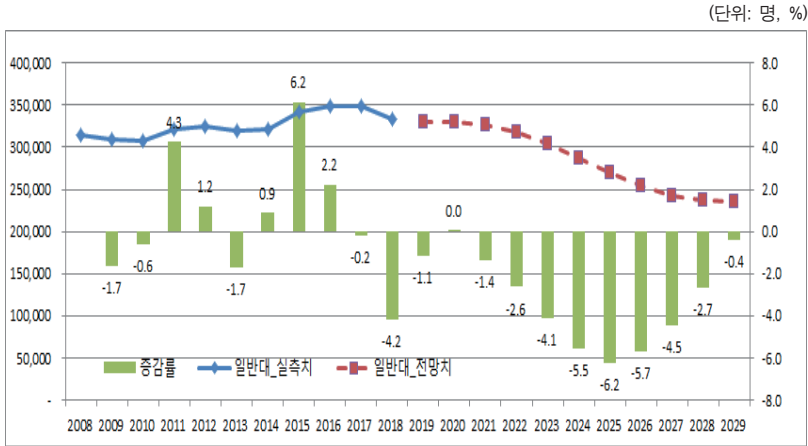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8~2019 교육통계연보

주: 졸업자 전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 활용

2014년 일반대 졸업자는 321,994명에서 8,350명 증가하여 2019년 330,344명으로 전망된다. 2019~2024년의 졸업자는 42,931명 감소하여 2024년 287,413명이고 2024~2029년의 졸업자는 52,001명 감소하여 2029년 235,412명으로 전망되었다. 전망 기간인 2019~2029년에는 연평균 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상반기인 2019~2024년 졸업자는 연평균 2.7% 감소하고, 하반기는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어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5-3] 2019-2029년 일반대 졸업자 전망



주: 일반대에는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가 포함되어 있음

졸업자 전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 활용  
 자료: 교육개발원, 2008-2019 교육통계연보

<표 5-1> 2019-2029년 대학 유형별 졸업자 전망

(단위: 천 명, %)

학교 유형	졸업자				졸업자 증감				졸업자 수 증가율(연평균)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	2014~2019년	2019~2024년	2024~2029년	2019~2029년	2014~2019년	2019~2024년	2024~2029년	2019~2029년
총합	506	497	425	353	-9	-71	-72	-144	-0.4	-3.1	-3.6	-3.4
전문대	184	166	138	118	-17	-29	-20	-49	-2.0	-3.7	-3.1	-3.4
일반대	322	330	287	235	8	-43	-52	-95	0.5	-2.7	-3.9	-3.3

주: 졸업자 전망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 활용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8-2019 교육통계연보

2014-2019년의 졸업자는 0.4% 감소하였다. 전망 기간 상반기인 2019-2024년에는 3.1%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감소세가 더 커져 3.6%로 전망되었다.

졸업자 수 증가율의 감소세가 확대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중학교 학령인구(취학 적령 인구)는 2000~2020년 연평균 3.2% 감소하고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연평균 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는 같은 기간 연평균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졸업자 전망치는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표 5-2> 2000~2020년 학령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

	2000년	2020년	증감	연평균 증가율
중학교	1,869,467	1,357,688	-511,779	-3.15
고등학교	2,166,163	1,382,055	-784,108	-4.39
고등교육기관	3,274,558	2,363,876	-910,682	-3.21

주: 학령인구(취학 적령):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 만 18~21세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2019. 6. 공표)

## 제2절 대졸 취업자 전망

대졸 취업자 전망은 졸업자 전망치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진행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취업률은 2014년 67.0%에서 2018년 67.7%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문대 졸업자 취업률은 2014년 67.8%에서 2018년 71.1%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일반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2014년 64.5%에서 2018년 64.2%로 다소 감소하였다.

<표 5-3> 2014~2018년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추이

(단위: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고등교육기관	67.0	67.7	67.7	66.2	67.7
전문대학	67.8	70.6	70.6	69.8	71.1
일반대학	64.5	64.3	64.3	62.6	64.2
교육대학	79.0	84.5	84.5	72.9	68.8
산업대학	70.2	67.1	67.1	67.6	70.1
각종학교	52.1	55.4	55.4	56.4	55.8
기능대학	76.0	82.8	82.8	79.5	81.0
일반 대학원	77.5	78.3	78.3	77.7	78.9

주: 취업률 조사는 해당 연도 마지막 날 실시함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2015-2019)

대졸 취업자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률 전망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9~2029년 전망된 졸업자 수에 2019~2029년 취업률을 곱하면 2019~2029년 취업자 수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대졸자 취업률을 실측치 자료만으로 전망하는 데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대졸자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2019~2029년에 100%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요인이란 고령화 등으로 다른 연령대의 취업률 변화, 다른 학력 속성의 취업률 변화 등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정책 효과도 있다.

2019~2029년 취업자 수 전망치는 그 시기에 속하는 상황과 변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나 산업 구성과 직업의 구성은 전망 동안 취업자 수에 비해 안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2019~2029년 취업자 전망은 3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할 수 있다.

시나리오 I 은 2019~2029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추세를 취업률에 적용하여 전망하는 방법이다. 시나리오II와 시나리오III는 각 전망 연도의 목표치 취업률을 설정하여 전망하는 방법으로 시나리오II는 전문대의 경우 2024년 취업률을 73%로, 2029년 취업률을 75%로 설정하고 일반대의 경우는 2024년 취업률을 70%로, 2029년 취업률을 72.5%로 설정한다. 설정 시나리오III는 전문대의 경우 2024년 취업률을 75%로, 2029년 취업률을 80%로 설정하고 일반대의 경우 2024년 취업률을 72.5%로, 2029년 취업률을 75%로 설정하여 전망을 수행한다.

산업과 직업 전망은 각각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졸업자의 산업 진입 비중 테이블(〈부표 35〉, 〈부표 37〉)과 직업 진입 비중 테이블(〈부표 36〉, 〈부표 38〉)을 전망하여 활용할 것이다.

산업과 직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2008~2018년 졸업자의 첫 직장의 산업과 직업 비중을 각각 시계열 데이터로 구축한다. 그 다음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가중 평균하여 전망을 수행한다. 최근 3년간 데이터를 가중 평균하여 활용하는 이유는 각 산업 및 직업의 비중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을 〈부표 35〉~〈부표 38〉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은 전문대와 일반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일반대의 경우 산업대, 교육대학이 포함된다.

〈표 5-4〉 2019~2029년 전문대 졸업 취업자 전망

(단위: 명, %)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
졸업자	183,557	166,327	137,807	117,752
취업률 I	67.8	70.5	72.3	73.5
취업자 I	124,452	117,320	99,573	86,572
취업률 II	67.8	70.5	73.0	75.0
취업자 II	124,452	117,320	100,599	88,314
취업률 III	67.8	70.5	75.0	80.0
취업자 III	124,452	117,320	103,355	94,202

주: 졸업자 전망 자료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전망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자료 활용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8~2019 교육통계연보

〈표 5-5〉 2019~2029년 일반대 졸업 취업자 전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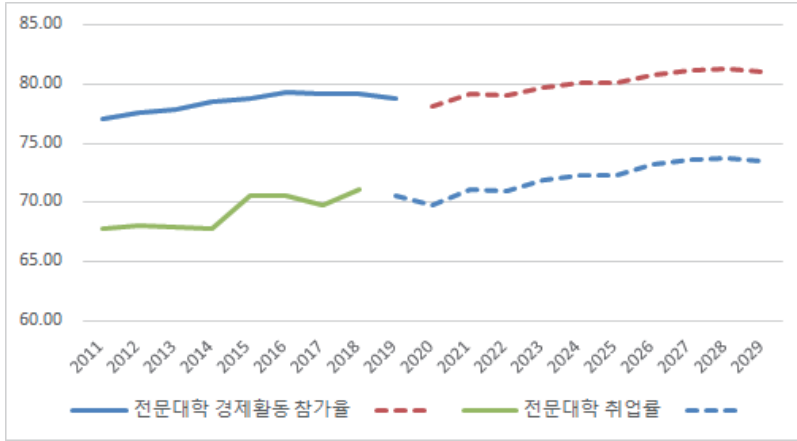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
졸업자	321,994	330,334	287,413	235,412
취업률 I	73.2	67.8	70.5	69.9
취업자 I	235,619	223,891	202,542	164,587
취업률 II	73.2	67.8	70.0	72.5
취업자 II	235,619	223,891	201,189	170,673
취업률 III	73.2	70.5	72.5	75.0
취업자 III	235,619	233,010	208,375	176,559

주: 졸업자 전망 자료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전망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 활용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8~2019 교육통계연보

[그림 5-4] 2019~2029년 전문대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전망(시나리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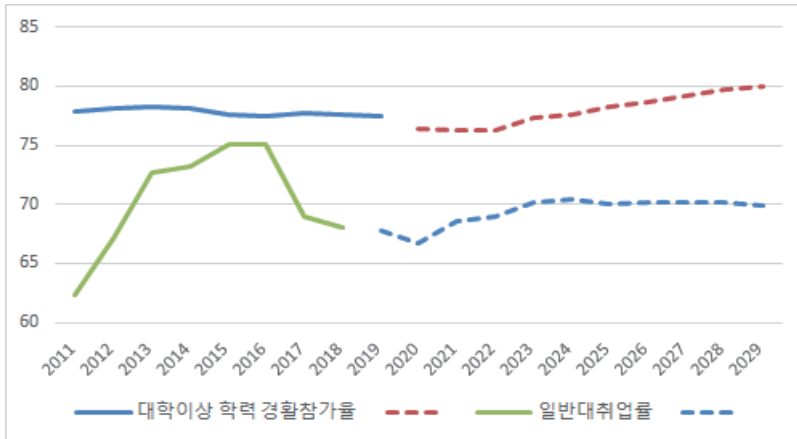
(단위: %)



주: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 활용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1~2018 취업통계

[그림 5-5] 2019~2029년 일반대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전망(시나리오 I)

(단위: %)



주: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 활용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1~2018 취업통계

## 1. 전문대 졸업자 취업자 산업·직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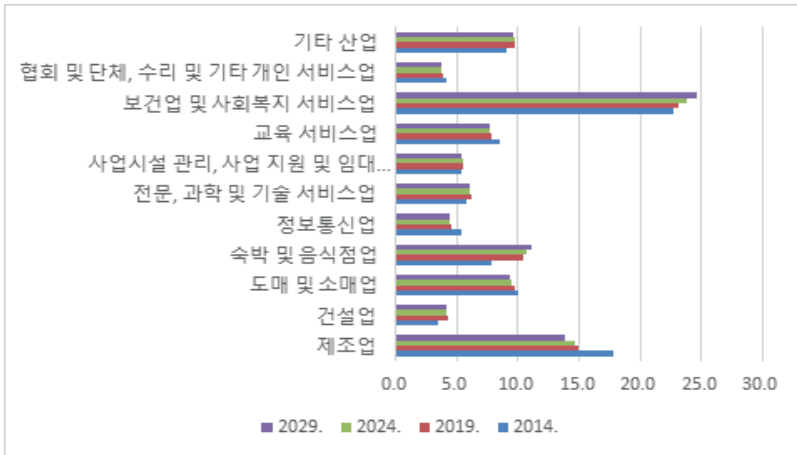
2019년 전문대 졸업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23.1%에서 2029년에는 24.7%로 높아져 동 산업의 수요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비중도 2019년 10.4%에서 2029년 11.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조업의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29년에는 13.8%로 전망 기간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문대 졸업 취업자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시 유리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은 2029년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음으로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나 2019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5-6] 2019~2029년 전문대 졸업 취업자의 산업 비중 전망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표 5-6> 2019~2029년 전문대 졸업 취업자의 산업 비중 전망

(단위: %)

산업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
제조업	17.8	14.9	14.7	13.8
건설업	3.5	4.3	4.2	4.2
도매 및 소매업	10.0	9.7	9.5	9.4
숙박 및 음식점업	7.8	10.4	10.7	11.1
정보통신업	5.4	4.5	4.4	4.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7	6.1	6.0	6.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4	5.5	5.5	5.4
교육 서비스업	8.5	7.9	7.7	7.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2.7	23.1	23.8	24.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1	3.9	3.7	3.7
기타 산업	9.0	9.7	9.8	9.7
총 합	100.0	100.0	100.0	100.0

주: 기타 산업에는 전체 비중 3% 미만인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포함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표 5-7> 2019~2029년 전문대 졸업 취업자의 직업 비중 전망

(단위: %)

직업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
경영·사무·금융·보험직(관리직 포함)	21.6	19.1	18.5	17.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9.5	9.6	9.5	9.4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2.2	11.6	11.4	11.2
보건·의료직	17.1	19.6	20.9	22.2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3	5.8	5.8	5.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11.6	13.4	13.7	15.0
영업·판매·운전·운송직	9.6	8.4	8.5	8.3
건설·채굴직	0.6	0.7	0.7	0.7
설치·정비·생산직	11.1	11.4	10.7	10.4
농림어업직	0.3	0.4	0.4	0.4
총 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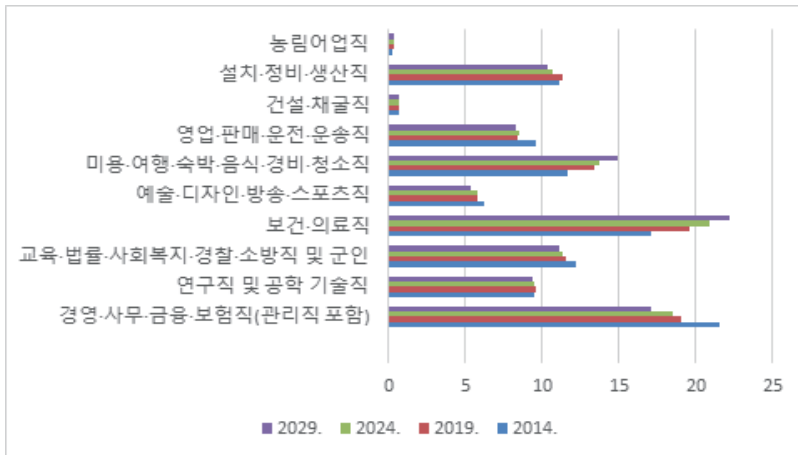
전문대 졸업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보건·의료직 비중이 2019년 19.6%에서 2029년에는 22.2%로 높아져 전문대졸 취업자 중 동 직업에 속하는 취업자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취업자 비중도 2019년 13.4%에서 2029년 1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영·사무·금융·보험직(관리직 포함) 비중은 2019년 19.1%에서 2029년에는 17.1%로 전망 기간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문대 취업자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시 유리한 직업은 보건·의료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으로 전망된다. 경영·사무·금융·보험직(관리직 포함)은 2029년에도 보건·의료직 다음으로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나 2019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림 5-7] 2019-2029년 전문대 졸업 취업자의 직업 비중 전망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전문대 졸업자 수요가 가장 많을 보건 사회 서비스업 안에서 직업 구조를 살펴본 결과 산업 특성에 맞게 보건·의료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보건·의료직 비중은 73%에서 2029년에는 75%로 동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2029년에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는 직업은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으로 2019년 20%에서 2029년에는 19%로 비중이 감소하여 2019년 대비 동 직업 수요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 사회서비스업에서 전망 기간 수요가 가장 많아진 직업은 보건·의료 직으로 2019년에 비해 2029년에는 보건 사회 서비스업 안에서 동 직업으로 진입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표 5-8> 2019-2029년 전문대 졸업 보건 사회 서비스업의 직업 비중 전망

(단위: %)

직업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
경영·사무·금융·보험직(관리직 포함)	8.0	4.0	4.0	3.0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0.0	0.0	0.0	0.0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2.0	20.0	20.0	19.0
보건·의료직	67.0	73.0	74.0	75.0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0.0	0.0	0.0	0.0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3.0	2.0	2.0	2.0
영업·판매·운전·운송직	0.0	0.0	0.0	0.0
건설·채굴직	0.0	0.0	0.0	0.0
설치·정비·생산직	0.0	0.0	0.0	0.0
농림어업직	0.0	0.0	0.0	0.0
총 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2. 일반대 취업자 산업·직업 전망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2019년 17.4%에서 2029년에는 16.7%로 낮아졌지만 2029년에도 일반대 졸업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게 전망되는 산업이다. 교육 서비스업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도 2019년 15.8%에서 2029년에는 15.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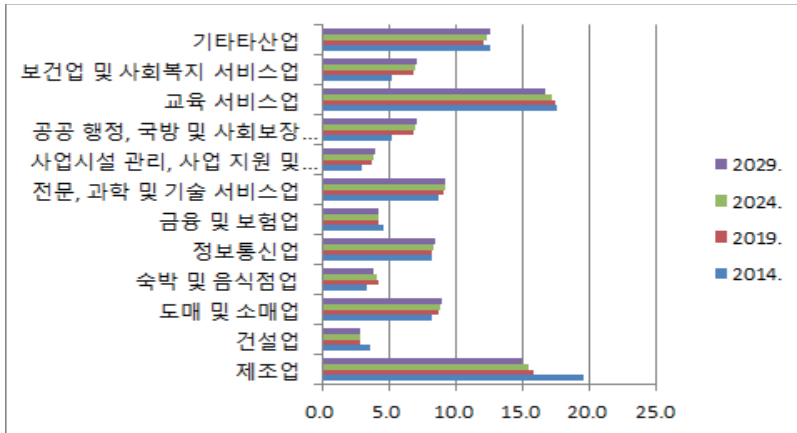
도매 및 소매업과 정보통신업 취업자 비중은 2019년에 비해 2029년의 비

중이 가장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증가한 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일반대 졸업 취업자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시 2019년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과 정보통신업으로 전망된다. 교육 서비스업은 2029년에는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나 2019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5-8] 2019~2029년 일반대 졸업 취업자의 산업 비중 전망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표 5-9〉 2019~2029년 일반대 졸업 취업자의 산업 비중 전망

(단위: %)

산업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
제조업	19.6	15.8	15.4	15.0
건설업	3.7	2.9	2.9	2.9
도매 및 소매업	8.2	8.7	8.8	9.0
숙박 및 음식점업	3.3	4.2	4.1	3.9
정보통신업	8.2	8.2	8.3	8.5
금융 및 보험업	4.6	4.3	4.3	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8	9.1	9.2	9.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	3.8	3.8	3.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2	6.8	6.9	7.1
교육 서비스업	17.6	17.4	17.2	16.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2	6.8	6.9	7.1
기타 산업	12.6	12.1	12.3	12.6
총 합	100.0	100.0	100.0	100.0

주: 기타 산업에는 전체 비중 3% 미만인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포함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표 5-10〉 2019~2029년 일반대 졸업 취업자의 직업 비중 전망

(단위: %)

직업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
경영·사무·금융·보험직(관리직 포함)	33.9	32.2	32.3	31.9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20.5	19.5	20.3	21.4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7.4	15.1	14.7	13.8
보건·의료직	6.3	8.4	8.2	8.3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5	7.8	7.9	7.8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3.3	4.9	4.8	5.1
영업·판매·운전·운송직	7.4	7.4	7.3	7.3
건설·채굴직	0.3	0.3	0.3	0.3
설치·정비·생산직	3.4	4.2	4.0	4.0
농림어업직	0.1	0.2	0.2	0.2
총 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일반대 졸업자가 가장 많이 취업한 경영·사무·금융·보험직 비중은 2019년 32.2%에서 2029년에는 31.9%로 낮아졌지만, 일반대 취업자 중 동 직업에 속하는 취업자 비중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직업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으로 2019년 19.5%에서 2029년에는 21.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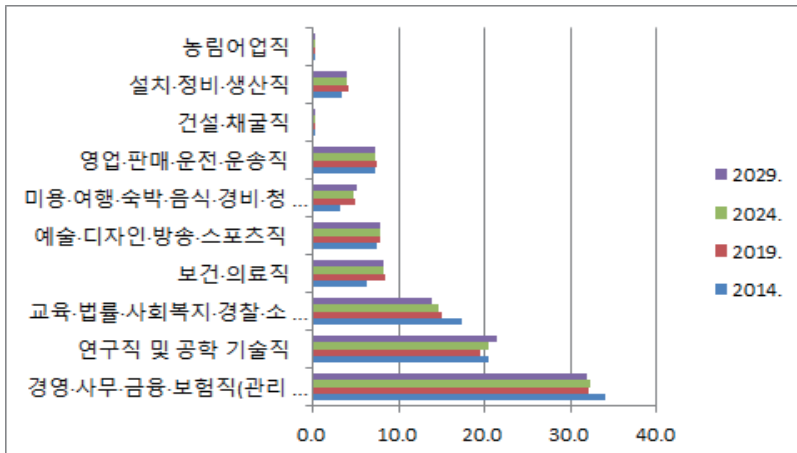
그러나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의 감소 영향으로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의 비중은 2019년 15.1%에서 2029년에는 13.8%로 전망 기간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일반대 졸업 취업자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시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직업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으로 전망된다.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은 2029년에도 전체 취업자 중 31.9%를 차지하며 직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가 존재하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5-9] 2019~2029년 일반대 졸업 취업자의 직업 비중 전망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일반대 졸업자가 많이 진출한 교육 서비스업 안에서 직업 구조를 살펴본 결과 산업 특성에 맞게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9년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비중은 52%에서 2029년 48%로 동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지만 2029년에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직업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으로 2019년 22%에서 2029년에는 20%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 서비스업 안에서 전망 기간 비중이 가장 높아진 직업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으로 2019년 20%에서 2029년에는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에 비해 2029년에 교육 서비스업 안에서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진입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표 5-11> 2019-2029년 일반대 졸업 교육 서비스업의 직업 비중 전망

(단위: %)

직업	2014년	2019년	2024년	2029년
경영·사무·금융·보험직(관리직 포함)	21.4	22.3	21.1	20.4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3.3	19.6	21.7	24.9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9.9	52.0	50.9	48.0
보건·의료직	0.7	0.8	0.9	0.9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3.9	4.8	4.9	5.1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0.3	0.2	0.2	0.2
영업·판매·운전·운송직	0.4	0.2	0.2	0.2
건설·채굴직	0.0	0.0	0.0	0.0
설치·정비·생산직	0.1	0.1	0.1	0.1
농림어업직	0.0	0.0	0.0	0.0
총 합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 제6장

---

# 결론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은 높은 대학 졸업률을 보이지만 노동시장 진입 성과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의 학력이 오른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상승이지만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취업률은 인적자본 투자수익률은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낮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하여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 신규 진입 과정을 조사하였다.

2장에서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2008~2018년까지 사용하여 대졸자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시계열로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 10년 동안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할 수 있었다. 2008년 청년 대졸 취업자 비중은 77.7% 수준이었으나 2018년은 73.6%이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도 2008년 15.5%에서 2018년 18.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대학 유형을 구분하여 경제활동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상황이 일반대 졸업생보다 지난 10년간 더 어려워졌음을 확



인했다. 전공계열별로 살펴본 결과, 의약계열 졸업자와 예체능계열 졸업자는 2008년에 비해 2018년에는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였고 사회계열의 경우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계열별 특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항 로짓 분석 모형을 통해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취업에서 더 용이하며 전문대가 일반대보다 취업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이 가장 높은 의약계열과 비교하여 다른 계열이 취업할 한계효과를 계산해 본 결과 자연계열이 취업할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2018년 자연계열의 상황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인문계열은 2018년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을 확인했다.

3장은 201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만을 활용하여 취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청년층으로 한정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 현황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경제활동 조사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임을 고려한다면 두 조사의 결과 비교를 통해 청년 대졸자만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그 결과 청년 대졸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높아 동 산업이 청년 대졸자가 선호하는 산업이거나 신규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일 것이다.

직업을 선정하는 데 성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청년 대졸자 신규 진입 직업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성은 경영·사무·금융·보험직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의 경우 보건·의료직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일반직의 경우 경영·사무·금융·보험직임을 확인했다.

경영·사무·금융·보험직에 가장 많이 신규 진입한 전공은 사회계열로 나타났고,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의 경우는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전공자가 많았다.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의 경우는 교육계열 전공자가 많았고 다음은 사회계열이었다. 보건·의료직은 의약계열 출신이 83.3%인 것으로 나타나 전공과 직업 일치도가 가장 높았다.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은 예체능계열 출신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계열로 나타났다.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에 신규 진입한 청년 대졸자는 사회계열

출신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예체능계열이다. 영업·판매 운전·운송직은 사회계열 출신이 가장 많았다. 건설·채굴직과 설비·정비·생산직은 공학계열 출신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직은 자연계열 출신이 많았다.

4장은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에 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자 FGI를 수행하였고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하였다. 참여자 집단은 전문대와 일반대로 구분하여 대학 유형별 취업률 상위 3개 산업 분야를 고려해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6개 그룹을 구성하였고,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1개 그룹을 포함하였다.

취업 준비 과정 중 애로사항으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금전적인 측면이 두드러졌다. 그와 동시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응답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전공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부재하거나 내용이 질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공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이 요구되거나 프로그램에 따라 수준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졸업 전 혹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는 학과, 신규 취업자의 경우, 실제 직무를 체험하는 실습 활동, 인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작성에서도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없어 어려웠다는 응답으로 미루어 볼 때,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취업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취업률이 대학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대학 내 취업과 관련한 종사자가 비정규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을 유도하게 되면서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수치적인 취업률보다는 양질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를 마련하고 취업 관련 종사자의 고용 개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분석된다.

5장은 대졸자 신규 진입 추이를 전망하였다. 대졸자의 신규 진입 추이를 전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2019~2029년은 대졸자 수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 2019~2029년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2019~2029년 대학 졸업자 수를 전망하였다.

전망 기간에 대학 졸업자 수는 연평균 3.4%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망 상반기보다 전망 하반기로 갈수록 졸업자 감소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수는 졸업자 수에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상 취업률을 적용하였다. 취업률을 전망하는 기간 모든 변인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시나리오별로 취업률을 전망하였다.

시나리오 I 은 2019~2029년 중장기 인력수급 자료 중 대졸자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을 취업률에 적용해 전망하였고 시나리오 II와 시나리오 III는 목표 취업률을 전망 상반기, 하반기로 설정해 전망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별로 전망된 취업률을 졸업자 수에 적용하여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대졸자 전망 수치를 산출하였고 산업·직업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산업과 직업 비중 전망을 수행하였다.

전망 결과는 대학 유형을 구분하여 전문대와 일반대로 진행하였는데 전문대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9년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신규 진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고 직업은 보건·의료직으로 전망되었다.

일반대는 도매 및 소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019년보다 2029년에 상대적으로 신규 진입이 쉬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과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이 2029년에는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하여 청년 대졸자의 신규 진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2019~2029년 대졸자의 신규 진입 전망도 수행하였다.

2019~2029년 대졸자 신규 진입 전망 결과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인력공급 제약이 전망 하반기에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는 노동력 부족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의 질 개선이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교육부는 2015년부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이 단순히 양적인 축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

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8-2028년 결과에 따르면 인력수요 차원에서 중요한 특징은 기술 진보의 영향으로 산업 및 직업의 구조개편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서술했다.<sup>6)</sup> 이러한 산업 및 직업 구조개편에 적응하기 위해선 대학은 전문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2017년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8년 조사로, 현시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더불어 2020년 초에 확산된 코로나19 여파를 전망 모형에 포함하지는 못하였고 산업과 직업 비중 매트릭스 전망을 시행할 때도 향후 10년 동안 산업과 직업 구성에 큰 영향을 줄 변인이 없다고 강한 가정을 시행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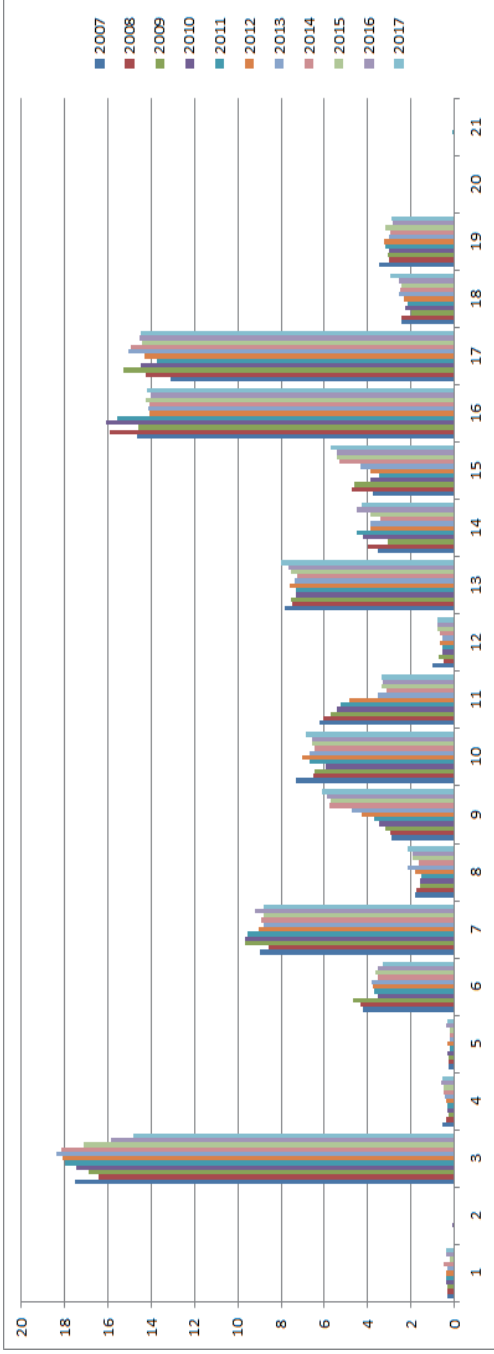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본 전망 모형에 적용하지는 못하였지만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대졸자의 신규 진입 경로의 파악은 가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6) 이시균·박진희·정재현·김수현·홍현균·정순기·방글·공정승·이혜연·김영달·이용호·황선웅·김문정·김윤영·권혁진·홍성민·윤문희(201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8-2028』, 한국고용정보원.

<부표 1> 산업별 취업자 분포 추이

(단위: %)



주: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정보통신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취업이동경로조사 2018

〈부표 2〉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모델 설명변수

	설명
female	여성 더미
sch	일반대(교육대 포함) 더미
josa_age	조사 당시 연령
josa_ages	조사 당시 연령 * 조사 당시 연령
maj1	인문 졸업자 더미
maj2	사회계열 졸업자 더미
maj3	교육계열 졸업자 더미
maj4	공학계열 졸업자 더미
maj5	자연계열 졸업자 더미
maj6	의약계열 졸업자 더미
maj7	예체계열 졸업자 더미
fa_eco	아버지 취업자 더미
mo_eco	어머니 취업자 더미

〈부표 3〉 2007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추정치		marginal
female	-.0889*	(0.0474)	-.0153* (0.0081)
sch	-.1994***	(0.0480)	-.0343*** (0.0082)
josa_age	.0813*	(0.0428)	.0140* (0.0074)
josa_ages	-.0005	(0.0007)	-.0001 (0.0001)
maj1	-.8015***	(0.1122)	-.1378*** (0.0192)
maj2	-.6858***	(0.1070)	-.1179*** (0.0184)
maj3	-.8985***	(0.1214)	-.1545*** (0.0208)
maj4	-.6755***	(0.1069)	-.1162*** (0.0183)
maj5	-1.0847***	(0.1098)	-.1865*** (0.0188)
maj7	-.6627***	(0.1123)	-.1139*** (0.0192)
fa_eco	-.0388	(0.0953)	-.0067 (0.0164)
mo_eco	.0317	(0.0383)	.0055 (0.0066)
_cons	.3880	(0.6856)	
Log likelihood			-8732.2243
obs			16,61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취업이동경로조사 2008

〈부표 4〉 2008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추정치		marginal
female	.0163	(0.0484)	.0027 (0.0080)
sch	-.1998**	(0.0486)	-.0199** (0.0081)
josa_age	.1397***	(0.0408)	.0232*** (0.0068)
josa_ages	-.0014**	(0.0006)	-.0002** (0.0001)
maj1	-.7635***	(0.1139)	-.1268*** (0.0189)
maj2	-.7033***	(0.1072)	-.1168*** (0.0178)
maj3	-.6543***	(0.1194)	-.1086*** (0.0198)
maj4	-.6036***	(0.1063)	-.1002*** (0.0176)
maj5	-.8894***	(0.1101)	-.1477*** (0.0182)
maj7	-.7108***	(0.1124)	-.1180*** (0.0186)
fa_eco	.1777*	(0.0957)	.0295* (0.0159)
mo_eco	-.0350	(0.0384)	-.0058 (0.0064)
_cons	-.8032	(0.6766)	
Log likelihood			-8584.4636
obs			16,73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취업이동경로조사 2009



<부표 5> 2009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추정치		marginal
female	.0024	(0.0449)	.0004 (0.0084)
sch	-.3715***	(0.0438)	-.0695*** (0.0082)
josa_age	.2020***	(0.0326)	.0378*** (0.0061)
josa_ages	-.0024***	(0.0005)	-.0005*** (0.0001)
maj1	-.9027***	(0.1037)	-.1688*** (0.0193)
maj2	-.5833***	(0.0961)	-.1091*** (0.0179)
maj3	-.5672***	(0.1095)	-.1061*** (0.0204)
maj4	-.5893***	(0.0971)	-.1102*** (0.0181)
maj5	-.9507***	(0.1010)	-.1778*** (0.0188)
maj7	-.7903***	(0.1007)	-.1478*** (0.0188)
fa_eco	-1.1328	(0.1025)	-.0248 (0.0192)
mo_eco	-.0828**	(0.0363)	-.0155** (0.0068)
_cons	-1.4876***	(0.5561)	
Log likelihood			-9404.5028
obs			16,81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취업이동경로조사 2010

〈부표 6〉 2010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추정치		marginal
female	-.1337***	(0.0431)	-.0216*** (0.0070)
sch	-.0711	(0.0461)	-.0115 (0.0074)
josa_age	.0134	(0.0164)	.0022 (0.0027)
josa_ages	.0003	(0.0003)	.0000 (0.0000)
maj1	-.6240***	(0.1071)	-.1008*** (0.0173)
maj2	-.5972***	(0.0950)	-.0965*** (0.0153)
maj3	-.7399***	(0.1109)	-.1195*** (0.0179)
maj4	-.5195***	(0.0978)	-.0839*** (0.0158)
maj5	-.7758***	(0.1022)	-.1253*** (0.0165)
maj7	-.4938***	(0.1038)	-.0798*** (0.0168)
fa_eco	-.0551	(0.1001)	-.0089 (0.0162)
mo_eco	-.0167	(0.0389)	-.0027 (0.0063)
_cons	1.5455***	(0.2904)	
Log likelihood			-8880.7039
obs			16,67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1

〈부표 7〉 2011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추정치		marginal
female	-.1018**	(0.0458)	-.0166** (0.0075)
sch	-.0877*	(0.0478)	-.0143* (0.0078)
josa_age	.1239***	(0.0347)	.0203*** (0.0057)
josa_ages	-.0014***	(0.0005)	-.0002*** (0.0001)
maj1	-.5978***	(0.1017)	-.0977*** (0.0166)
maj2	-.4692***	(0.0910)	-.0767*** (0.0149)
maj3	-.5580***	(0.1067)	-.0912*** (0.0174)
maj4	-.4192***	(0.0932)	-.0685*** (0.0152)
maj5	-.6018***	(0.0986)	-.0984*** (0.0161)
maj7	-.4207***	(0.0996)	-.0688*** (0.0163)
fa_eco	.0777	(0.1011)	.0127 (0.0165)
mo_eco	-.0539	(0.0383)	-.0088 (0.0063)
_cons	-.4508	(0.5847)	
Log likelihood			-8561.1425
obs			16,87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취업이동경로조사 2012

〈부표 8〉 2012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추정치		marginal	
female	.0807	(0.0496)	.0126	(0.0077)
sch	-.4163***	(0.0544)	-.0648***	(0.0085)
josa_age	.2254***	(0.0335)	.0351***	(0.0052)
josa_ages	-.0028***	(0.0005)	-.0004***	(0.0001)
maj1	-.5549***	(0.1039)	-.0864***	(0.0162)
maj2	-.1972**	(0.0978)	-.0307**	(0.0152)
maj3	-.4009***	(0.1101)	-.0624***	(0.0171)
maj4	-.1405	(0.0984)	-.0219	(0.0153)
maj5	-.6085***	(0.1015)	-.0948***	(0.0158)
maj7	-.0801	(0.1063)	-.0125	(0.0165)
fa_eco	-.0097	(0.1118)	-.0015	(0.0174)
mo_eco	-.0006	(0.0409)	-.0001	(0.0064)
_cons	-2.0417***	(0.5814)		
Log likelihood				-7612.8687
obs				15,58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3

<부표 9> 2013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추정치		marginal
female	.0417	(0.0486)	.0068 (0.0080)
sch	-.3612***	(0.0522)	-.0591*** (0.0085)
josa_age	.2533***	(0.0355)	.0415*** (0.0058)
josa_ages	-.0033***	(0.0005)	-.0005*** (0.0001)
maj1	-.7579***	(0.1050)	-.1241*** (0.0171)
maj2	-.3608***	(0.1013)	-.0590*** (0.0166)
maj3	-.3303***	(0.1122)	-.0541*** (0.0184)
maj4	-.3513***	(0.0997)	-.0575*** (0.0163)
maj5	-.8327***	(0.1028)	-.1363*** (0.0168)
maj7	-.3714***	(0.1038)	-.0608*** (0.0170)
fa_eco	.0396	(0.1041)	.0065 (0.0170)
mo_eco	.0390	(0.0394)	.0064 (0.0064)
_cons	-2.3563***	(0.6057)	
Log likelihood			-8060.1914
obs			15,89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취업이동경로조사 2014

<부표 10> 2014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추정치		marginal	
female	.0254	(0.0492)	.0040	(0.0078)
sch	-.4552***	(0.0546)	-.0723***	(0.0086)
josa_age	.2539***	(0.0371)	.0403***	(0.0059)
josa_ages	-.0031***	(0.0005)	-.0005***	(0.0001)
maj1	-1.0049***	(0.1131)	-.1597***	(0.0179)
maj2	-.6095***	(0.1082)	-.0968***	(0.0172)
maj3	-.4595***	(0.1213)	-.0730***	(0.0193)
maj4	-.6198***	(0.1069)	-.0985***	(0.0170)
maj5	-1.0827***	(0.1087)	-.1720***	(0.0172)
maj7	-.6629***	(0.1118)	-.1053***	(0.0177)
fa_eco	.2429**	(0.1039)	.0386**	(0.0165)
mo_eco	-.0387	(0.0400)	-.0061	(0.0064)
_cons	-2.3296***	(0.6307)		
Log likelihood				-7886.4048
obs				15,92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취업이동경로조사 2015

## 〈부표 11〉 2015년 대출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추정치		marginal
female	.0771	(0.0487)	.0129 (0.0081)
sch	-.4100***	(0.0552)	-.0684*** (0.0092)
josa_age	.3343***	(0.0403)	.0558*** (0.0067)
josa_ages	-.0044***	(0.0006)	-.0007*** (0.0001)
maj1	-.8471***	(0.1069)	-.1413*** (0.0178)
maj2	-.4950***	(0.1013)	-.0826*** (0.0169)
maj3	-.5041***	(0.1142)	-.0841*** (0.0190)
maj4	-.4966***	(0.1004)	-.0828*** (0.0167)
maj5	-.9358***	(0.1029)	-.1561*** (0.0171)
maj7	-.5882***	(0.1069)	-.0981*** (0.0178)
fa_eco	-.0412	(0.1152)	-.0069 (0.0192)
mo_eco	.0057	(0.0397)	.0010 (0.0066)
_cons	-3.5050***	(0.6776)	
Log likelihood			-8028.9945
obs			15,62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출자취업이동경로조사 2016

<부표 12> 2016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추정치		marginal
female	.0466	(0.0505)	.0074 (0.0081)
sch	-.3781***	(0.0601)	-.0603*** (0.0096)
josa_age	.2808***	(0.0401)	.0448*** (0.0064)
josa_ages	-.0033***	(0.0006)	-.0005*** (0.0001)
maj1	-.9240***	(0.1143)	-.1473*** (0.0182)
maj2	-.7194***	(0.1089)	-.1147*** (0.0173)
maj3	-1.0224***	(0.1225)	-.1630*** (0.0195)
maj4	-.6009***	(0.1080)	-.0958*** (0.0172)
maj5	-1.0524***	(0.1104)	-.1678*** (0.0175)
maj7	-.5863***	(0.1168)	-.0935*** (0.0186)
fa_eco	-.0635	(0.1248)	-.0101 (0.0199)
mo_eco	.0618	(0.0417)	.0099 (0.0066)
_cons	-2.6935***	(0.6845)	
Log likelihood			-7399.3432
obs			14,90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7



〈부표 13〉 2017년 대출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추정치		marginal
female	-0.095	(0.0486)	-0.016 (0.0079)
sch	-.2347***	(0.0601)	-.0383*** (0.0098)
josa_age	.2044***	(0.0395)	.0334*** (0.0064)
josa_ages	-.0023***	(0.0005)	-.0004*** (0.0001)
maj1	-.9009***	(0.1068)	-.1472*** (0.0174)
maj2	-.5720***	(0.1027)	-.0934 *** (0.0167)
maj3	-.7347***	(0.1163)	-.1200*** (0.0190)
maj4	-.4745***	(0.1018)	-.0775*** (0.0166)
maj5	-.9547***	(0.1042)	-.1560*** (0.0169)
maj7	-.4268***	(0.1125)	-.0697*** (0.0184)
fa_eco	-.0749	(0.0999)	-.0122 (0.0163)
mo_eco	.0336	(0.0402)	.0055 (0.0066)
_cons	-1.5512**	(0.6704)	
Log likelihood			-7935.8317
obs			15,68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출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부표 14〉 2007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전문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1.1362	(0.0853)	-0.0212 (0.0133)
josa_age	.0388***	(0.0077)	.0060*** (0.0012)
maj1	-.9009***	(0.2010)	-.1401*** (0.0311)
maj2	-.6052***	(0.1651)	-.0941*** (0.0256)
maj3	-.3221	(0.2596)	-.0501 (0.0404)
maj4	-.5866***	(0.1645)	-.0912*** (0.0255)
maj5	-.9523***	(0.1851)	-.1480*** (0.0286)
maj7	-.7827***	(0.1669)	-.1217*** (0.0259)
fa_eco	-.0594	(0.1729)	-.0092 (0.0269)
mo_eco	-.0029	(0.0757)	-.0005 (0.0118)
_cons	1.1321***	(0.3308)	
Log likelihood			-2219.6547
obs			4,55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

<부표 15> 2008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전문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1431*	(0.0848)	-.0227*
josa_age	.0385***	(0.0080)	.0061***
maj1	-.6466***	(0.2108)	-.1025***
maj2	-.8815***	(0.1616)	-.1398***
maj3	-.2699	(0.2611)	-.0428
maj4	-.7109***	(0.1608)	-.1127***
maj5	-.5690***	(0.1909)	-.0902***
maj7	-.9333***	(0.1648)	-.1480***
fa_eco	.0440	(0.1731)	.0070
mo_eco	.0641	(0.0752)	.0102
_cons	1.0387***	(0.3436)	
Log likelihood			-2246.0413
obs			4,54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9

<부표 16> 2009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전문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2120***	(0.0749)	-.0352*** (0.0124)
josa_age	.0363***	(0.0066)	.0060*** (0.0011)
maj1	-.9970***	(0.1750)	-.1658*** (0.0289)
maj2	-.6627***	(0.1334)	-.1102*** (0.0221)
maj3	.1235	(0.2171)	.0205 (0.0361)
maj4	-.5080***	(0.1385)	-.0845*** (0.0230)
maj5	-.7959***	(0.1604)	-.1323*** (0.0266)
maj7	-.8790***	(0.1389)	-.1462*** (0.0229)
fa_eco	-.0273	(0.1586)	-.0045 (0.0264)
mo_eco	-.0470	(0.0666)	-.0078 (0.0111)
_cons	1.0678***	(0.2945)	
Log likelihood			-2842.6912
obs			5,55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0

〈부표 17〉 2010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전문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3661***	(0.0862)	-.0553*** (0.0130)
josa_age	.0298***	(0.0065)	.0045*** (0.0010)
maj1	-.7846***	(0.2115)	-.1184*** (0.0318)
maj2	-.5870***	(0.1322)	-.0886*** (0.0199)
maj3	-.1195	(0.2382)	-.0180 (0.0360)
maj4	-.6633***	(0.1430)	-.1001*** (0.0215)
maj5	-.4412**	(0.1781)	-.0666** (0.0268)
maj7	-.7146***	(0.1404)	-.1078*** (0.0211)
fa_eco	-.1962	(0.1723)	-.0296 (0.0260)
mo_eco	-.0320	(0.0754)	-.0048 (0.0114)
_cons	1.6006***	(0.2981)	
Log likelihood			-2283.9406
obs			4,79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1

<부표 18> 2011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전문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2637***	(0.0812)	-.0415*** (0.0127)
josa_age	.0284***	(0.0066)	.0045*** (0.0010)
maj1	-.5343***	(0.1974)	-.0840*** (0.0310)
maj2	-.5872***	(0.1276)	-.0923*** (0.0200)
maj3	-.1601	(0.2167)	-.0252 (0.0341)
maj4	-.3534**	(0.1373)	-.0556** (0.0216)
maj5	-.1180	(0.1748)	-.0185 (0.0275)
maj7	-.5503***	(0.1364)	-.0865*** (0.0214)
fa_eco	.0687	(0.1623)	.0108 (0.0255)
mo_eco	.0070	(0.0733)	.0011 (0.0115)
_cons	1.1040***	(0.2986)	
Log likelihood			-2387.8449
obs			4,85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2

〈부표 19〉 2012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전문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0375	(0.0816)	-.0063 (0.0136)
josa_age	.0313***	(0.0074)	.0052*** (0.0012)
maj1	-.7915***	(0.1711)	-.1323*** (0.0284)
maj2	-.4188***	(0.1303)	-.0700*** (0.0217)
maj3	-.0290	(0.2350)	-.0048 (0.0393)
maj4	-.2163	(0.1339)	-.0361 (0.0224)
maj5	-.5613***	(0.1551)	-.0938*** (0.0258)
maj7	-.4830***	(0.1343)	-.0807*** (0.0224)
fa_eco	-.0159	(0.1756)	-.0027 (0.0293)
mo_eco	.0765	(0.0716)	.0128 (0.0120)
_cons	.8248**	(0.3213)	
Log likelihood			-2437.0921
obs			4,73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3

<부표 20> 2013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전문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1.565**	(0.0776)	-0.285** (0.0141)
josa_age	.0147**	(0.0065)	.0027** (0.0012)
maj1	-1.0606***	(0.1702)	-1.934*** (0.0307)
maj2	-6.6565***	(0.1389)	-1.197*** (0.0252)
maj3	.0103	(0.2304)	.0019 (0.0420)
maj4	-4.567***	(0.1399)	-0.833*** (0.0254)
maj5	-.3278*	(0.1717)	-.0597* (0.0313)
maj7	-8.023***	(0.1373)	-1.462*** (0.0248)
fa_eco	.0440	(0.1563)	.0080 (0.0285)
mo_eco	.0480	(0.0672)	.0087 (0.0123)
_cons	1.3023***	(0.2905)	
Log likelihood			-2692.5214
obs			4,90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4



<부표 2> 2014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전문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1.835**	(0.0797)	-0.317**
josa_age	.0226***	(0.0074)	.0039***
maj1	-1.0512***	(0.1705)	-.1816***
maj2	-.7004***	(0.1403)	-.1210***
maj3	.1980	(0.2594)	.0342
maj4	-5.428***	(0.1446)	-.0938***
maj5	-.4122**	(0.1707)	-.0712**
maj7	-.8528***	(0.1435)	-.1473***
fa_eco	.2286	(0.1657)	.0395
mo_eco	-.0565	(0.0704)	-.0098
_cons	1.1519***	(0.3162)	
Log likelihood			-2537.2005
obs			4,81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5

<부표 22> 2015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전문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0.653	(0.0825)	-.0117 (0.0148)
josa_age	.0305***	(0.0085)	.0055*** (0.0015)
maj1	-1.0553***	(0.1782)	-.1890*** (0.0316)
maj2	-.8145***	(0.1405)	-.1459*** (0.0250)
maj3	.1274	(0.2750)	.0228 (0.0493)
maj4	-.5286***	(0.1451)	-.0947*** (0.0259)
maj5	-.7125***	(0.1654)	-.1276*** (0.0295)
maj7	-1.1091***	(0.1433)	-.1987*** (0.0252)
fa_eco	-.0913	(0.1953)	-.0163 (0.0350)
mo_eco	.0897	(0.0734)	.0161 (0.0131)
_cons	1.1191***	(0.3487)	
Log likelihood			-2345.0886
obs			4,33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6

〈부표 23〉 2016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전문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0389	(0.0929)	.0068 (0.0161)
josa_age	.0489***	(0.0108)	.0085*** (0.0019)
maj1	-.9758***	(0.2073)	-.1692*** (0.0357)
maj2	-.6890***	(0.1412)	-.1195*** (0.0243)
maj3	-.1368	(0.2630)	-.0237 (0.0456)
maj4	-.4268***	(0.1421)	-.0740*** (0.0246)
maj5	-.1845	(0.1810)	-.0320 (0.0314)
maj7	-.5212***	(0.1474)	-.0904*** (0.0255)
fa_eco	-.1532	(0.2428)	-.0266 (0.0421)
mo_eco	.1128	(0.0820)	.0196 (0.0142)
_cons	.4794	(0.4290)	
Log likelihood			-1957.8906
obs			3,70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7

〈부표 24〉 2017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전문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1865*	(0.0953)	-.0346*
josa_age	.0331***	(0.0092)	.0061***
maj1	-.8199***	(0.2144)	-.1521***
maj2	-.7631***	(0.1558)	-.1416***
maj3	-.4876*	(0.2642)	-.0905
maj4	-.7432***	(0.1540)	-.1379***
maj5	-.4274**	(0.1915)	-.0783**
maj7	-.7441***	(0.1605)	-.1381***
fa_eco	.2170	(0.1869)	.0403
mo_eco	-.0273	(0.0851)	-.0051
_cons	.7740**	(0.3625)	
Log likelihood			-1803.0658
obs			3,24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부표 25> 2007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일반)

	추정치		marginal
female	-0.0726	(0.0541)	-0.0131 (0.0098)
josa_age	.0663***	(0.0116)	.0120*** (0.0021)
maj1	-.8244***	(0.1470)	-.1487*** (0.0265)
maj2	-.7413***	(0.1439)	-.1337*** (0.0259)
maj3	-.0700***	(0.1562)	-.1930*** (0.0281)
maj4	-.7365***	(0.1442)	-.1329*** (0.0260)
maj5	-1.1443***	(0.1453)	-.2064*** (0.0261)
maj7	-.6064***	(0.1528)	-.1094*** (0.0275)
fa_eco	-.0292	(0.1156)	-.0053 (0.0208)
mo_eco	.04070	(0.0447)	.0073 (0.0081)
_cons	.2474	(0.3761)	
Log likelihood			-6408.4412
obs			11,76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

<부표 26> 2008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일반)

	추정치		marginal
female	-0.085	(0.0549)	-0.0014 (0.0094)
josa_age	.0519***	(0.0113)	.0089*** (0.0019)
maj1	-.7394***	(0.1488)	-.1265*** (0.0254)
maj2	-.6134***	(0.1451)	-.1050*** (0.0248)
maj3	-.9687***	(0.1570)	-.1658*** (0.0268)
maj4	-.5494***	(0.1444)	-.0940*** (0.0247)
maj5	-.9220***	(0.1459)	-.1578*** (0.0249)
maj7	-.5587***	(0.1541)	-.0956*** (0.0264)
fa_eco	.2453**	(0.1167)	.0420** (0.0200)
mo_eco	-.0579	(0.0453)	-.0099 (0.0077)
_cons	.3040	(0.3788)	
Log likelihood			-6147.5298
obs			11,72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9

〈부표 27〉 2009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일반)

	추정치		marginal
female	-0.0698	(0.0519)	-0.0140 (0.0104)
josa_age	.0376***	(0.0098)	.0075*** (0.0020)
maj1	-.9512***	(0.1457)	-.1905*** (0.0290)
maj2	-.6083***	(0.1416)	-.1218*** (0.0283)
maj3	-1.0257***	(0.1550)	-.2054*** (0.0309)
maj4	-.7081***	(0.1423)	-.1418*** (0.0284)
maj5	-1.0770***	(0.1440)	-.2157*** (0.0286)
maj7	-.7973***	(0.1484)	-.1597*** (0.0296)
fa_eco	-.1536	(0.1356)	-.0308 (0.0272)
mo_eco	-.0976**	(0.0440)	-.0195** (0.0088)
_cons	.9125**	(0.3523)	
Log likelihood			-6343.9004
obs			10,77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0

<부표 28> 2010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일반)

	추정치		marginal
female	-1.082**	(0.0521)	-0.180** (0.0087)
josa_age	.0205**	(0.0080)	.0034** (0.0013)
maj1	-6.298***	(0.1495)	-1.048*** (0.0248)
maj2	-6.238***	(0.1425)	-1.038*** (0.0237)
maj3	-1.0433***	(0.1568)	-1.736*** (0.0260)
maj4	-5.266***	(0.1448)	-0.876*** (0.0241)
maj5	-8.662***	(0.1464)	-1.441*** (0.0243)
maj7	-3.525**	(0.1566)	-0.586** (0.0261)
fa_eco	-0.196	(0.1247)	-.0033 (0.0208)
mo_eco	-0.144	(0.0460)	-.0024 (0.0077)
_cons	1.4462***	(0.3002)	
Log likelihood			-5933.7423
obs			11,54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1



〈부표 29〉 2011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일반)

	추정치		marginal
female	-.1047*	(0.0538)	-.0174*
josa_age	.0423***	(0.0109)	.0070***
maj1	-.6593***	(0.1404)	-.1096***
maj2	-.4700***	(0.1343)	-.0781***
maj3	-.9108***	(0.1498)	-.1514***
maj4	-.5046***	(0.1359)	-.0839***
maj5	-.7613***	(0.1386)	-.1265***
maj7	-.3585**	(0.1476)	-.0596**
fa_eco	.0671	(0.1318)	.0111
mo_eco	-.0788*	(0.0456)	-.0131*
_cons	.7293**	(0.3685)	
Log likelihood			-6002.4929
obs			11,69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2

<부표 30> 2012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일반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0.0026	(0.0510)	-0.0005 (0.0098)
josa_age	.0436***	(0.0100)	.0084*** (0.0019)
maj1	-.5216***	(0.1254)	-.1001*** (0.0240)
maj2	-.3124**	(0.1216)	-.0600** (0.0233)
maj3	-.7530***	(0.1353)	-.1445*** (0.0259)
maj4	-.2311*	(0.1224)	-.0444* (0.0235)
maj5	-.6461***	(0.1241)	-.1240*** (0.0237)
maj7	-.0558	(0.1332)	-.0107 (0.0256)
fa_eco	-.0520	(0.1248)	-.0100 (0.0240)
mo_eco	.0087	(0.0429)	.0017 (0.0082)
_cons	.2707	(0.3407)	
Log likelihood			-6549.7958
obs			11,47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3

〈부표 3〉 2013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일반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0402	(0.0488)	-.0080 (0.0097)
josa_age	.0351***	(0.0092)	.0070*** (0.0018)
maj1	-.7341***	(0.1177)	-.1466*** (0.0234)
maj2	-.3741***	(0.1164)	-.0747*** (0.0232)
maj3	-.5374***	(0.1296)	-.1073*** (0.0258)
maj4	-.3717***	(0.1148)	-.0742*** (0.0229)
maj5	-.8166***	(0.1168)	-.1630*** (0.0232)
maj7	-.2004	(0.1224)	-.0400 (0.0244)
fa_eco	.0137	(0.1148)	.0027 (0.0229)
mo_eco	.0230	(0.0414)	.0046 (0.0083)
_cons	.4724	(0.3052)	
Log likelihood			-6929,8836
obs			11,78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4

<부표 32> 2014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일반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0.438	(0.0496)	-0.0086 (0.0097)
josa_age	.0728***	(0.0105)	.0143*** (0.0020)
maj1	-1.1021***	(0.1310)	-2.157*** (0.0254)
maj2	-.7831***	(0.1283)	-.1533*** (0.0250)
maj3	-.9404***	(0.1417)	-.1841*** (0.0276)
maj4	-.7890***	(0.1264)	-.1544*** (0.0247)
maj5	-1.2491***	(0.1272)	-2.445*** (0.0246)
maj7	-.6739***	(0.1339)	-.1319*** (0.0261)
fa_eco	.3182***	(0.1097)	.0623*** (0.0215)
mo_eco	-.0892**	(0.0416)	-.0175** (0.0081)
_cons	-3.335	(0.3369)	
Log likelihood			-6856.0808
obs			11,85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5

〈부표 33〉 2015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일반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0.495	(0.0485)	-0.0099 (0.0097)
josa_age	.0514***	(0.0102)	.0103*** (0.0020)
maj1	-.8940***	(0.1258)	-.1794*** (0.0251)
maj2	-.6015***	(0.1227)	-.1207*** (0.0246)
maj3	-.9047***	(0.1368)	-.1815*** (0.0273)
maj4	-.6738***	(0.1212)	-.1352*** (0.0243)
maj5	-1.0651***	(0.1227)	-.2137*** (0.0244)
maj7	-.5610***	(0.1304)	-.1126*** (0.0261)
fa_eco	.0481	(0.1214)	.0097 (0.0244)
mo_eco	-.0130	(0.0411)	-.0026 (0.0082)
_cons	.2789	(0.3357)	
Log likelihood			-7089.3498
obs			12,01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6

〈부표 34〉 2016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일반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0.983**	(0.0483)	-0.192** (0.0094)
josa_age	.0539***	(0.0105)	.0105*** (0.0020)
maj1	-1.0178***	(0.1324)	-1.1987*** (0.0257)
maj2	-.8809***	(0.1300)	-.1720*** (0.0253)
maj3	-1.2335***	(0.1426)	-.2408*** (0.0276)
maj4	-.7795***	(0.1292)	-.1522*** (0.0251)
maj5	-1.2251***	(0.1304)	-.2392*** (0.0252)
maj7	-.6454***	(0.1402)	-.1260*** (0.0273)
fa_eco	-.0073	(0.1225)	-.0014 (0.0239)
mo_eco	-.0004	(0.0414)	-.0001 (0.0081)
_cons	.5045	(0.3416)	
Log likelihood			-7073.6611
obs			12,24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7

〈부표 35〉 2017년 대졸자 취업 결정 요인 로짓 분석 - 대학 유형별(일반대)

	추정치		marginal
female	-.0889**	(0.0450)	-.0178** (0.0090)
josa_age	.0518***	(0.0098)	.0103*** (0.0020)
maj1	-.8966***	(0.1129)	-.1793*** (0.0224)
maj2	-.6492***	(0.1103)	-.1298*** (0.0220)
maj3	-.9514***	(0.1241)	-.1902*** (0.0247)
maj4	-.5239***	(0.1099)	-.1048*** (0.0219)
maj5	-.9656***	(0.1114)	-.1931*** (0.0221)
maj7	-.3978***	(0.1224)	-.0795*** (0.0244)
fa_eco	-.1625*	(0.0985)	-.0325* (0.0197)
mo_eco	.0357	(0.0388)	.0071 (0.0078)
_cons	.4071	(0.3092)	
Log likelihood			-8010.5328
obs			13,61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18

〈부표 36〉 2008-2018년 전문대 졸업자 산업 진입 비중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업, 임업 및 어업	0.2	0.3	0.2	0.1	0.2	0.3	0.3	0.3	0.2	0.3	0.4
광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제조업	20.1	18.4	17.6	18.6	18.7	18.2	17.8	17.3	17.5	16.0	14.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3	0.2	0.1	0.1	0.2	0.2	0.1	0.3	0.1	0.1	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2	0.3	0.2	0.2	0.2	0.3	0.2	0.2	0.1	0.2	0.2
건설업	4.2	3.9	4.8	3.7	3.6	3.8	3.5	3.9	4.1	4.7	4.1
도매 및 소매업	10.6	11.4	12.7	12.5	10.8	10.8	10.0	9.0	10.2	9.5	9.6
운수 및 창고업	1.6	1.9	1.6	1.5	1.3	1.7	1.5	1.3	1.3	1.4	1.7
숙박 및 음식점업	5.1	5.3	5.4	6.2	6.3	7.2	7.8	9.7	9.5	10.0	10.5
정보통신업	6.2	5.6	5.1	4.9	5.8	5.3	5.4	4.9	4.8	4.2	4.6
금융 및 보험업	3.8	2.9	3.0	3.0	2.9	2.0	1.5	1.8	1.4	1.6	1.4
부동산업	1.0	0.3	0.5	0.5	0.4	0.6	0.5	0.8	0.8	0.6	0.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6	6.0	6.2	5.6	5.2	6.1	5.8	6.0	5.4	6.0	6.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4	6.0	4.2	6.3	6.9	5.6	5.4	4.8	4.7	5.8	5.6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3.1	2.8	2.2	2.0	2.3	2.5	2.9	2.5	2.5	3.3
교육 서비스업	7.1	7.8	8.1	7.4	9.1	7.1	8.5	8.3	8.4	7.5	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9	20.7	22.4	21.7	20.7	22.2	22.7	22.6	22.4	22.7	2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	2.8	1.7	2.0	2.1	2.5	2.6	2.4	2.4	2.5	3.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	3.4	3.4	3.7	3.7	3.9	4.1	3.9	4.2	4.5	3.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부표 37> 2008-2018년 전문대 졸업자 직업 진입 비중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사무·금융·금융·보험직(관리직 포함)	27.0	27.2	27.6	26.9	25.9	23.9	21.6	20.6	21.3	20.3	19.3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3	9.5	8.7	8.6	10.3	9.4	9.6	9.5	9.2	9.7	9.7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9.7	11.2	12.3	10.8	11.6	10.8	12.2	12.0	12.7	10.5	11.2
보건·의료직	14.4	15.4	16.3	17.0	16.4	16.6	17.2	17.7	17.6	18.2	19.9
예술·디자이너·방송·스포츠직	7.3	6.9	6.3	6.6	6.5	7.0	6.3	6.6	5.7	7.0	6.7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5	8.3	7.9	9.1	8.9	9.4	11.6	12.3	12.0	13.1	13.0
영업·판매·운전·운송직	9.8	10.2	9.8	9.7	9.5	9.0	9.6	9.1	8.3	8.7	9.1
건설·채굴직	0.4	0.5	0.5	0.5	0.6	0.8	0.6	0.4	0.5	1.0	0.6
설치·정비·생산직	11.3	10.7	10.5	10.7	10.1	13.0	11.1	11.4	12.2	11.2	10.1
농림어업직	0.2	0.3	0.2	0.2	0.2	0.3	0.3	0.4	0.4	0.3	0.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부표 38〉 2008-2018년 일반대 졸업자 산업 진입 비중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업, 임업 및 어업	0.18	0.15	0.24	0.27	0.24	0.27	0.19	0.28	0.18	0.16	0.19
광업	0.05	0.01	0.05	0.13	0.02	0.07	0.03	0.04	0.04	0.03	0.01
제조업	17.09	16.60	17.43	18.24	18.92	18.90	19.57	19.15	17.18	16.00	15.0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69	0.48	0.36	0.44	0.46	0.49	0.67	0.69	0.63	0.84	0.8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27	0.31	0.34	0.32	0.21	0.33	0.21	0.20	0.19	0.44	0.35
건설업	3.84	4.31	4.44	3.03	3.48	3.36	3.66	3.21	3.15	2.84	2.81
도매 및 소매업	8.15	7.01	8.07	8.55	8.84	8.49	8.24	9.16	8.08	9.23	8.54
운수 및 창고업	1.99	1.82	1.60	1.62	1.69	1.88	2.39	1.81	2.34	2.27	2.46
숙박 및 음식점업	1.53	1.64	1.83	2.08	2.31	2.95	3.34	3.73	3.90	4.17	4.27
정보통신업	8.93	7.89	8.13	7.25	7.85	8.53	8.21	7.70	7.90	8.07	8.34
금융 및 보험업	7.57	7.79	7.28	6.79	6.58	6.29	4.59	3.77	4.34	4.04	4.35
부동산업	0.83	0.44	0.61	0.41	0.43	0.56	0.45	0.49	0.69	0.78	0.94
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48	9.05	9.25	8.94	9.06	9.03	8.75	8.34	8.95	8.85	9.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48	2.99	2.57	3.30	3.47	3.24	3.01	2.70	3.42	4.05	3.75
항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14	5.31	5.30	4.33	3.87	4.31	5.24	6.30	6.92	6.79	6.85
교육 서비스업	20.31	21.19	19.22	21.54	19.72	18.01	17.55	17.89	17.63	17.38	17.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69	8.45	8.72	8.36	8.19	8.39	9.17	9.74	9.61	9.61	9.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9	2.27	2.21	2.35	2.32	2.35	2.55	2.48	2.57	2.62	2.8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9	2.22	2.29	2.02	2.23	2.46	2.07	2.23	2.25	1.78	2.3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0.02	-	0.04	-	0.01	-	0.00	0.01	-	0.01
국제 및 외국기관	0.01	0.08	0.06	0.04	0.08	0.07	0.09	0.09	0.01	0.06	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부표 39〉 2008-2018년 일반대 졸업자 직업 진입 비중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영·사무·금융·보험(관리직 포함)	34.74	37.18	35.66	35.62	36.81	37.40	33.94	32.72	29.23	33.31	32.63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8.96	16.89	17.59	17.29	16.95	16.74	20.52	19.12	15.71	20.02	20.80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20.13	21.53	21.69	22.15	20.45	18.20	17.36	16.56	15.38	15.19	14.89
보건·의료직	5.90	5.64	5.81	5.71	5.86	6.10	6.31	7.17	11.04	7.83	7.78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74	7.33	6.82	6.81	6.79	7.42	7.45	8.05	6.87	7.90	8.06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2.00	1.98	1.90	2.34	2.59	2.82	3.26	3.52	6.79	4.25	4.5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7.63	6.95	7.57	7.45	7.32	7.45	7.35	8.75	7.94	7.54	7.09
건설·채굴직	0.19	0.21	0.19	0.11	0.21	0.20	0.25	0.23	0.32	0.32	0.24
설치·경비·생산직	2.60	2.18	2.61	2.41	2.91	3.37	3.41	3.63	6.47	3.49	3.76
농림어업직	0.11	0.11	0.17	0.12	0.12	0.31	0.15	0.25	0.24	0.14	0.19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8-2018

## [부록 1]

**대졸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 전망**  
**집단심층인터뷰 가이드라인**  
**(취업 지원센터 담당자)**

STEP 1	Introduction & Warming-up	5분
STEP 2	취업 지원센터 및 지원 프로그램 현황	20분
STEP 3	취업 현황 및 취업 필요 사항	30분
STEP 4	졸업/취업 후 상황	15분
STEP 5	지원 및 정책적 요구사항	10분
STEP 6	마무리/종료	5분
TOTAL		85분

STEP 1	Introduction & Warming-up	5분
--------	---------------------------	----

Q. (인사)상호인사 및 참여 감사 말씀

Q. (목적과 취지 소개) 본 좌담회는 통계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준비과정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전문대학과 대학에서 취업 지원 업무 담당자분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 진행 중 애로사항,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지원 및 개선사항 등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좌담회 녹취 양해)

Q. 사회자, 참석자 자기소개

- (참석자)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담당업무, 업무기간 등

Q. 진행 방법 소개

- 녹취 사실 공지 및 취득된 모든 자료 정보보호 체계 설명
- 상호인사 및 참여 감사 말씀 →핸드폰 끄기
- 좌담회 취지에 대한 설명
- 사회자, 참석자 자기소개
- 진행 방법 소개

v 자유 토론으로 진행

v 정답, 오답 없음 솔직하게 말씀

v 모든 분의 참여 요망, 다른 사람 의견 경청, 한 번에 한 분석만 말씀

v 제한된 시간에 예정대로 끝내기 위해서 의견이 주제를 벗어나거나 너무 긴 경우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끊음 등

<b>STEP 2</b>	<b>취업 지원센터 및 지원 프로그램 현황</b>	20분
---------------	-----------------------------	-----

Q.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취업 지원센터의 인력구성 현황과 직무 구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 취업 지원센터 구성원 안에서 직무 구분이 있는지? (컨설턴트 별도 존재, 상담원 등)

Q.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취업 지원센터의 취업 지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 취업 준비 대상 : 졸업반 대상 / 기졸업생 대상
- 취업 준비 대상자의 특징은 있는지?
- 직무와 산업을 구분하고 취업에 관한 관심도와 정보 취득력, 전공계열별로 특징이 존재하는지?
- 전공계열별 취업지원에 참여한 학생의 학년/학기 다른지?  
(예. 공학계열은 저학년부터 관심, 교육계열은 4학년 2학기부터 관심 등)

※ 전공은 입학 당시 전공 기준

(전공계열 :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학, 예체능계열로 구분)

Q.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취업 지원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전공계열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전공계열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정원, 참여인원)
- 구인 업체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공공기관, 공무원, 삼성 등)
-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b>STEP 3</b>	<b>취업 현황 및 취업 필요 사항</b>	30분
---------------	-------------------------	-----

- Q.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졸업자가 많이 취업하는 산업과 직무는 무엇입니까?  
- 전공 계열별로 확인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
- Q. 구인을 많이하는 업체의 특징이 있습니까? 이러한 업체의 트렌드 변화가 있습니까?  
- 전공 계열별로 확인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
- Q. 취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또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공 계열별로 확인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
- Q. 취업을 위해 개발/개설되어야 하는 (취업)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공 계열별로 확인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약, 예체능)

<b>STEP 4</b>	<b>졸업/취업 후 상황</b>	15분
---------------	-------------------	-----

- Q.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학생들이 졸업이나 취업 후에도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합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용합니까?
- Q. 취업 소요기간이 짧은 전공(또는 학과)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Q. 취업 소요기간이 긴 전공(또는 학과)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Q. 전반적으로 취업 만족도가 높은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근로조건(급여, 근무환경 등)
- Q. 전반적으로 취업 만족도가 낮은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근로조건(급여, 근무환경 등)
- Q. 취업 후 퇴사(이직)이 빈번한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근로조건(급여, 근무환경, 고용형태 등)
- Q. 첫 직장 입사 후 몇 개월 정도 지나면 해당 직장을 유지합니까?

- Q. 공무원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 공무원의 1년 미만 퇴사 및 5년 미만 퇴사가 높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직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 근로 환경(급여)에 대한 이해 부족 등
  - ※ 최근 들어 공무원 1년 미만 퇴사가 1천 명이 넘고 5년도 안 돼 퇴사는 공무원이 6000명 수준이라고 보도가 되었음
- Q. 취업 후 만족도 높은 직장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직무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 등

<b>STEP 5</b>	<b>지원 및 정책적 요구 사항</b>	10분
---------------	-----------------------	-----

- Q.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혹은 학과에서 지원하였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직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양 교과목 개설 혹은 졸업 전 필수 이수 등
  - 전공계열별 요청 사항 (예. 공학계열은 프로젝트를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교과목에 편성, 사회계열 학생들의 대외활동 참여의 기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공모전 개최 등)
- Q.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안정적 지원 (학과 통폐합 등 이슈) 등
- Q. 취업률을 높이기 취업 지원센터에서 지원하였으면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전공 계열별 혹은 특성 프로그램별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근무환경(학교 소속으로 운영) 등

## [부록 2]

**대졸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 전망**  
**집단심층인터뷰 가이드라인**  
**(사회초년생)**

STEP 1	Introduction & Warming-up	5분
STEP 2	취업 준비 과정(졸업 전 상황)	20분
STEP 3	현재 직장 현황 및 취업 후 상황	30분
STEP 4	마무리/종료	15분
TOTAL		70분

STEP 1	Introduction & Warming-up	5분
--------	---------------------------	----

Q. (인사)상호인사 및 참여 감사 말씀

Q. (목적과 취지 소개) 본 좌담회는 통계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준비과정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초년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선생님들의 취업 과정 및 준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등을 듣고 신규 대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좌담회 녹취 양해)

Q. 사회자, 참석자 자기 소개

- (참석자) 성명, 전공계열(입학 시 포함), 전공 학과(입학 시 포함) 등 간단히 소개

Q. 진행방법 소개

- 녹취 사실 공지 및 취득된 모든 자료 정보보호 체계 설명
- 상호인사 및 참여감사 말씀 →핸드폰 끄기
- 좌담회 취지에 대한 설명



- 사회자, 참석자 자기소개
- 진행 방법 소개

v 자유 토론으로 진행

v 정답, 오답 없음- 솔직하게 말씀

v 모든 분의 참여 요망, 다른 사람 의견 경청, 한 번에 한 분씩만 말씀

v 제한된 시간에 예정대로 끝내기 위해서 의견이 주제를 벗어나거나 너무 긴 경우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끊음 등

<b>STEP 2</b>	<b>취업 준비 과정(졸업 전 상황)</b>	40분
---------------	--------------------------	-----

Q. 귀하께서 졸업 전에 희망하신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 어떤 산업의 일자리를 희망하셨습니다?
- 어떤 직업을 희망하셨습니다?
- 어떤 근로형태를 희망하셨습니다?(정규직/비정규직 등)
- 어느 정도의 임금을 희망하셨습니다?(구체적으로)

Q. 귀하께서 졸업 전에 희망하신 일자리에 대한 산업 및 직무에 대한 정보 획득(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해 본 경험이 있다면) 정보 획득(분석)의 주체(경로)는 어디였습니까?  
(본인 / 취업 지원센터 / 취업스터디 / 동아리 등)
- (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방식과 항목으로 정보 획득(분석)을 하셨습니까?  
(예. 기업정보(사람인 기업정보 페이지의 매출액, 인원 수 등)만을 찾아본 정도 / 자세하게 재무제표를 분석 / 산업 주요 이슈를 스크랩했다 등)

Q. 귀하께서는 재학 중에 취업 진로 관련 과목을 수강하신 적이 있습니까?

- (수강했다면) 해당 과목의 구체적인 교과명은 무엇이었는지요?
- (수강했다면) 해당 과목은 교양 과목이었는지요?
- (수강했다면) 해당 과목은 선택 or 필수 과목이었는지요?  
(전공 특수성상 필요한 진로 과목인 경우 있음. 예. 교육계열 전공자들의 교생실습 등)

Q. 귀하께서는 취업을 위해 대학 재학 중에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참고 ] 필요 활동 예시

학점 및 전공 전문성	교내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센터 활동 등)	어학성적
아르바이트	기관/ 기업 프로그램	동아리/스터디
봉사활동	공모전	자격증
인턴십	해외 경험/ 교환학생	취업서류 및 면접 컨설팅
인/적성 시험		

- Q. 귀하께서 취업을 위해 대학 재학 중에 해보신 활동은 무엇입니까?  
(필요 활동 참조)
- Q. 귀하께서는 취업을 위해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다?  
- ( )학년 ( )학기부터 준비 시작
- Q. 귀하께서는 취업을 위해 휴학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언제 휴학을 하셨고 휴학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있다면) 휴학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 Q. 귀하께서는 복수전공 or 부전공 or 전공심화를 하셨습니까?  
- (했다면) 복수전공 or 부전공 or 전공심화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취업 목적으로 복수전공 or 부전공 or 전공심화를 했는지 확인)
- Q. 주변에서 취업을 위해 복수전공 등을 신청하는데 전공계열까지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Q. 귀하께서는 취업준비 중에 가장 고려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점, 자격증, 아르바이트(경험), 교수님 혹은 취업 지원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노력, 스펙 쌓기 등)  
(임용고시나 특정 시험 준비 등)

- Q. 귀하께서는 취업을 위해 취업 지원 혹은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취업박람회 등)
- (경험이 있다면) 참여하셨던 프로그램명은 무엇입니까?
  - (경험이 있다면) 참여하셨던 프로그램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 (경험이 있다면) 참여하셨던 프로그램이 전공계열의 특성과 부합하였습니까?
  - (경험이 있다면) 참여하셨던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5점 척도)
- Q. 귀하께서는 취업 준비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 (시간 부족, 정보 부족, 자기 소개서 등 서류 작성 어려움, 멘토 or 상담자 부족 등)
  - (시간 부족 응답자)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이었는지요? (취업 준비 시작 시점이 늦어서 /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 전공 공부로 인해서 등)
- Q. 귀하께서는 취업 준비과정 중에 진학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취업이 힘들어서, 트렌드 변화 등(예. 마케팅 관련 업종 트렌드 변화로 석사 이상 학력 요구))
- Q. 귀하께서는 취업 응시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 총 취업 지원 횟수는? / 서류 통과 횟수 / 면접 통과 횟수
- Q. 귀하께서는 취업 응시를 하시면서 본인의 취업 목표가 조정되었습니까?
-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정(수정)하셨습니까?(급여 / 고용형태 등)
  - (있다면) 몇 번이나 취업 목표를 조정(수정)하셨습니까?

<b>STEP 3</b>	<b>현재 직장 현황 및 취업 후 상황</b>	30분
---------------	---------------------------	-----

- Q.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산업은 무엇입니까?  
(제조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세부 산업확인))
  -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총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매출액은 얼마입니까?(19년 or 20년)
- Q. 귀하께서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 언제 입사하셨습니까?

- Q.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팀에 있으며,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 구체적으로 확인(예. 인사팀에서 채용 관련 업무 담당)
- Q. 귀하께서는 취업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셨습니까?
- Q. 귀하께서 취업하는데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점, 자격증/경력, 공모전/프로젝트 경험, 학교/교수님/취업지원센터, 인턴제도 등)
- Q.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장에 입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로조건(급여, 근로 환경 등)이 좋아서, 취업이 급해서 등)
- Q.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일자리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5점 척도)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Q. 취업 준비 전 목표 일자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Q. 입사 전 생각했던 직무와 현재 직무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Q. 귀하에게 현재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평생 일자리, 경력을 쌓기 위한 일자리 등)
- Q. 귀하와 동일한 전공 계열이나 학과의 취업한 선후배 및 동기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산업과 직무는 무엇입니까?  
-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공과 적성이 맞아서, 급여 수준이 높아서, 일자리가 안정적이어서 등)  
- 성공한 사례에서 취업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Q. 귀하께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꼭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 Q. 귀하께서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받고 싶었던 취업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모의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직무 분석 등)

## 참고 문헌

- 김진웅(2008), 「산업구조 변화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학회』, 23, pp. 5~30.
- 안주엽·오선정·최세림(2019),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일자리(1)』,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조세형(2006), 『‘고용의 질’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이삼식·강은나·박종서·변수정·이소영·황남희·김태일·설재훈·이준협·이선희(2014),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시균(2015), 「청년 인력수급 전망과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9주년 기념 세미나, 『청년고용 이렇게 풀자: 청년고용 현황과 정책제언 자료집』(2015. 4. 8. 대한상공회의소 B2 의원회의실), 한국고용정보원.
- 이시균·박진희·정재현·김수현·홍현균·정순기·방글·공정승·이혜연·김영달·이용호·황선웅·김문정·김윤영·권혁진·홍성민·윤문희(2019),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8-2028』, 한국고용정보원.
- 이주호·정혁·홍성창(2014),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KDI Focus』, 46.
- 이유진·김의준(2016)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 『노동정책연구』, 16(3), pp. 1~25
- 조아미(2007), 「청소년의 직업결정유형과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5(1), pp.11~20.
- 채구묵(2007), 「신규대졸자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9(4), pp. 35~61.
- 최요한(2018),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 『노동정책연구』, 18(4), pp. 31~50
-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8~2018).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2008~2019)」.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2011~2018)」.
- 한국교육개발원, 「OECD교육지표(2019~2020)」.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8~2018)」.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2019.6)」.

- Ammermueller, A., Kuckulenz, A. and T. Zwick(2009), “Aggregate Unemployment Decreases Individual Returns to 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8(2): pp. 217-226.
- Becker, G. S.(1964), “Human Capital.” Columbia University Press fo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ewYork.
- Constant, A. & Zimmermann, K. F. (2003), “Occupational Choice Across Generations” , *APPLIED ECONOMICS QUARTERLY*, 49(4): 299-318.

집필진 강민정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  
박세정 (한국고용정보원 인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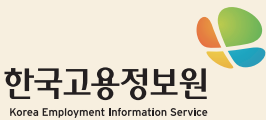
## 대졸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 전망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나영돈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27740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 1577-7114  
홈페이지 [www.keis.or.kr](http://www.keis.or.kr)  
조판 및 인쇄 (사)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 02-2271-2526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31-977-3



# 대졸자 노동시장 신규 진입 전망



2774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T.1577-7114 [www.keis.or.kr](http://www.keis.or.kr)

